# 현대불교

제 816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12월 29일 수요일(음력 11월 24일 · 불기 2554년 · 주간)










# 교회 닮으려 하지 말라

## 한국종교학회서 종교학자들 지적

한국종교학회(회장 류성민)가 12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종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윤이흠 서울대 명예교수, 김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강돈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박희택 불교아카데미 원장 등이 참석해 다종교 상황과 종교간 커뮤니케이션, 종교간 갈등 극복 및 공존을 주제로 발표했다. 참가자들 가운데에는 종교 본연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가하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도 있었다. 발표자들은 자신이 속한 종교의 치부도 거침없이 밝히고, 소통과 화합을 외쳤지만 원점에서 맴돌았다.

윤이흠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강연 '한국다종교 상황의 혼돈과 갈등'에서 종교 간 갈등의 원인을 현대사회 체제의 '무분별한 팽창주의'에 있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현대종교는 특정종교 교단 안의 문제, 종교사이의 마찰을 세속 질서를 바로잡는 사회의 법질서에 의존한다. 세속의 질서를 깊이 수용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세속화된 종교를 비판했다.

특히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장은 제2섹션 '종교간 갈등 극복 및 공존을 향하는 길' 총평에서 "한국의 종교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 대형화 조직화 권력화된 대형교회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불교가 개신교를 쫓아 대형사찰을 만들어 조직화된 멤버십 종교를 추구한다면 개신교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윤승용 소장은 "종교간 갈등보다도 정부의 종교정책과 그 집행과정에서 종교편향이 문제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집행에 의한 종교편향을 막기 위해 윤 소장은 정부 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측정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윤승용 소장은 "설문조사도 각 교단 중심 통계에 그쳐 교단간 경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정부가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불교계가 더 자성의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희택 불교아카데미 원장은 주제발표 '현대 한국사회의 종교적 갈등의 구조와 해법'에서 "종교적 갈등 해소를 위해 불교계는 자기혁신의 정진을 가속화하고 피해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장은 "불교계가 잘못 처신하면 단순히 나이만 많다고 해서 장로로 대접해 달라는 투정으로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조계사에 성탄트리 점등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2월 20일 서울 조계사(주지 토진) 일주문 앞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봉행했다. 자승 스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불자들은 한마음으로 기뻐하며 축하한다. 예수의 삶을 본받아 남북의 불안, 정치권 혼란으로 인한 상심, 평화와 관용을 위협하는 아집과 독선을 이겨내야 한다"고 성탄 메시지를 전했다. 글=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 7대종교 '증오범죄법' 입법 촉구

### 동성애 차별 금지법 등은 반대

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7대 종교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종교 차별 금지를 위한 증오(혐오) 범죄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12월 9~16일 '대한민국 종교지도자 이웃종교체험 성지순례'에서 로마교황청 등을 방문한 뒤 귀국해 2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7대 종교 대표자들은 성명서에서 "다문화 · 다민족 · 다종교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인종, 문화, 종교 그 밖에 그 어떤 분야에서도 차별 또는 혐오로 인한 사회적인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증오(혐오)범죄법 등 입법 조치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7대 종교 대표자들은 '동성애차별금지법' 과 같이 전통적인 사상적 근간을 무너뜨리는 입법은 반대했다.

조동섭 기자

## 선사와 신학자 머리 맞댄다

### 대구 동화사 등서 대담·법문·특강

개신교의 불교폄훼와 정부의 종교편향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때, 선사와 신학자가 만나 종교간 평화를 논의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2월 31일 대구 동화사를 시작으로 1월 5일까지 부산 해운정사, 서울 국제선센터에서 '2011 초조대장경 천년 밀레니엄 릴레이토크'를 개최한다.

'가슴을 열어 빛을 보다'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12월 31일 한국불교 선지식인 진제 스님(대구 동화사 조실)과 세계적인 신학자 폴 니터 미국 유니온 신학교 교수가 만나 불교-기독교간 수행 전통과 평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구 사회의 화제작 〈부처님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Without Buddha I Could Not Be A Christian)〉의 저자인 니터 교수는 동화사 금당선원과 부산 해운정사에서 정진 중인 수좌스님과 재가 불자들도 만날 예정이다.

신년 1월 1일 오전11시에는 동화사에서 진제 스님의 신년 법어와 폴 니터 교수 초청강연이 진행된다.

2~4일은 부산 해운정사에서 행사가 진행된다. 2일 오후 2시 해운정사에서 폴 니터 교수는 해운정사 대중들과 평화발원 자비명상 법회에 참석한다. 4일 오전 11시에는 진제 스님과 폴니터 교수가 각각 법문 · 강연한다. 이 자리에서 니터 교수는 행사기간 체험한 간화선 수행 체험담을 소개할 예정이다.

5일 저녁 7시 30분에는 서울 국제선센터에서 불교계와 기독교를 대표하는 학자 및 종교지도자들이 만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평화 담론을 연다.

행사에는 국제선센터 선원장 효담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 길희성 서강대 명예교수가 불교계 대표로 참석한다. 기독교계에서는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 이정배 기독자교수협의회장, 정현경 뉴욕 유니언 신학교 교수가 참석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사회통합과 평화를 이뤄내자는 불교계의 간절한 사회통합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종교간 선의 경쟁해야"

### 자승 스님·NCCK 회장에 당부

"개신교의 과격한 불교 폄훼 일부 아니다. 조직적이고 심각하다. 종교평화는 몇몇 지도자들의 목소리일 뿐 (일반 신도)현장에서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20일 취임인사차 예방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신임총무 김영주 목사를 앞에 두고 개신교의 종교폄훼를 강하게 지적했다. 만남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김영주 목사는 "최근 벌어진 불교와 개신교간 갈등은 당황스럽지만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역별 종단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논의한다면 무난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을 꺼냈다.

이에 자승 스님은 "시각이 많이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스님은 "피부로 느끼는 사안은 심각하다. 일부 과격단체나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 조직적으로 그 정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개신교의 선교과정에는 불교를 미신으로 폄훼하는 등의 일들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최근 유포된 (땅밟기 등 불교폄훼) 동영상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도 증오(혐오)범죄법 등 입법적 조치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종단이 정면 대응한 적이 없고 과격하게 반응한 적 없지만 상황이 심각할 뿐 아니라, 교계에서도 종교폄훼를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음을 내비쳤다.

이어 "종단간 교리와 믿음이 달라 화합은 불가능하지만, 선의의 경쟁으로 상생은 가능하다"고 말해 각자의 공동선을 추구하는데 있어 공정한 활동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자승 스님의 발언에 김영주 목사는 "지도자의 생각이 그 정도라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겠다. 불교계와 함께 할 수 있는 일, 종교간 대화가 가능한 일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언 기자

## 정찬주의 행복한 禪 기행 ⑧ 선(禪)은 재즈와 같다

### 석상사1

선(禪)을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한 말 중에는 임제선사의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라[殺佛殺祖]'일 것이다. 본래의 자기 자신을 매순간 온전하게 드러내면 되는 것이지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인 부처와 조사의 가르침에 갇히지 말라는 뜻이다. 벽안의 수행자 현각 스님도 "선불교는 재즈다. 선승의 생활은 재즈와 같다. 많은 종교들이 형식과 틀, 어떤 룰을 강조하는데 선불교는 다르다. 재즈처럼 자유롭고 즉흥적인 연주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선승의 길을 자유롭게 가는 자신은 행복하다고 말한다.

알다시피 재즈는 사랑과 자유를 노래하는 데 원초적이고 즉흥적이고 찰나적인 감성을 중시하는 미국의 대중음악 장르 중 하나이다. 온몸으로 살고 온몸으로 죽는 활발발한 선기(禪機)와 흡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선의 역동성이다. 선이 선방에 갇혀 관념화되어 간다면 그 선은 결국 생명력을 잃고 말 터. 선은 선방의 좌복을 떠난 자리에서 더 빛을 발할지도 모른다. 선방의 울타리를 벗어나 홀가분한 만행과 먼 길의 순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도(道)가 어디에 있냐고 묻자, 부처님은 호흡과 호흡 사이에 있다고 설했다. 순례 중인 나는 순간순간 내 발자국이 찍히는 자리라고 말하고 싶다. 석상사(石霜寺)로 가는 길에 만난 모든 인연이 나의 선지식이듯 합장하며 순례하고 싶다.

▶19면에 계속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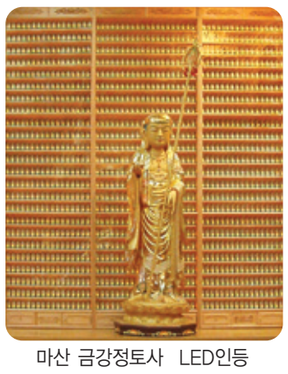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 종류 | 일반전구 | 찬덕 LED 전구 |
|---|---|---|
| 소비전력 | 10W | 2W |
| 효율 | 10 lm/w | 50 lm/w |
| 연간전기료 | 2146원 | 429원 |
| 수명보장 | | 30,000 시간 |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종교차별 정책 중단 하라”

## 전국사찰서 민족문화수호법회… 관변단체 조계사서 난동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족 문화를 푸대접하고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사찰에서는 12월 22일 정부의 민족문화보호 외면 정책과 종교편향 자행을 규탄하는 민족문화수호법회가 봉행됐다.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법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족 문화를 푸대접하고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계사에 모인 3000여 사부대중에게 민족문화 수호를 위해 마음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오늘 동지 법회가 위기에 처한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갖고 있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현 정부에 대해 죽비를 내리는 의미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 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종교차별 정책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종교차별 정책 중단을 결의했다.

종단 관계자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족문화 보전정책을 마치 특정 종교에 선심을 베푸는 식의 천박한 인식을 바로잡을 때까지 정진을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탄법회가 봉행된 조계사에서는 라이트 코리아, 고엽제전우회 녹색국민연합 등 자신을 친정부 관변단체 소속이라 밝힌 50~60대 남성 20명이 난입해 신도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탁자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어 그들은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조계종과 스님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조계사는 “정부가 관변단체를 동원해 불교를 폄훼하고 있다”며 정부를 배후로 지목하고 나섰다.

조계사(주지 토진)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신도들의 신행활동을 방해 말고 신도를 불안케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사는 “조계종은 현 정부와의 마찰을 단지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고자 108배 정진을 해왔다”며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친정부 관변단체까지 동원해 불교계를 폄훼해 또 하나의 국민 분열을 잉태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조동섭 · 천진영 기자**







12월 22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민족문화수호법회(위)와 동시에 조계사 앞에서 열린 친정부 관변단체의 기자회견을 빙자한 대 조계종 항의 시위 모습.

## “경책의 죽비 높이 들겠다”

### 조계종 중앙종회, 연석회의 후 성명 발표

정부 · 여당의 날치기 예산 통과와 관련한 불교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12월 21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 고통을 안겨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행태에 한마음으로 경책의 죽비를 높이 들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는 △4대강 사업 전면 중단 △졸속 예산 철회 △불교 자주권 침해하는 국가법령 폐지 △정부 · 여당의 참회를 촉구했다.

20일, 조계종 종무원조합 원우회도 성명서를 통해 “한반도 평화 및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0일 기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 종단협, ‘기자 조선’ 망언 유감

### 민족문화수호 성명서 등도 채택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올해 중국에서 열린 ‘제13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중국대회’의 중국측 학성 스님 망언에 대해 다시 한 번 한국 불교계의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

종단협은 1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10월 중국 무석 범궁에서 진행된 한중일 중국대회에서 학성 스님은 기조연설에서 “기자 조선은 중국 사람이 세운 한반도 최초의 왕국이며 문화를 전파시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종단협은 2011년도 예산을 7억3620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정부의 사과와 증오(혐오)범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조선왕실의궤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의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박기범 기자**

## 안상수 “명진 스님 친분? 억울”

### 사과해 놓고 “스님들 다 기억 못해 딴소리”

봉은사 사태의 발단이 된 ‘좌파 주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뷰스앤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안 대표는 중증장애아동시설인 용산 후암동 ‘영락애니아의 집’을 방문 후 동행한 취재기자 3명과 함께 한 오찬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안 대표는 “내가 명진 스님 때도 참 억울했다. 3년 전 식사한 것도 사실 20여 명 넘는 스님, 이름도 명진, 도법, 무슨 다 비슷하지 않나”라며 “그런 스님을 다 어떻게 기억하나? 내가 그것 때문에 참 억울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자승 스님 이슬람사원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2월 23일 서울 한남동 한국이슬람교중앙회를 방문했다. 조계종단 대표로는 이슬람사원을 처음 찾은 자승 스님은 이주화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이맘을 만나 공동선 실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조동섭 기자**

## 불교보다 가톨릭 더 신뢰

### 개신교 단체 조사… 불자의 불교 신뢰 69.9%

우리나라 국민들은 불교보다 가톨릭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자들도 불교 다음으로 가톨릭을 가장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2월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윤실이 11월 8~18일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실시했다.

응답자 중 41.4%가 가톨릭교회를 신뢰한다고 밝혔고, 불교는 33.5%, 개신교회는 20.0%로 나타났다. 2009년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인 종교기관인 가톨릭, 개신교, 불교 순이었으나 올해는 가톨릭, 불교, 개신교 순서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7.6%, 불신한다는 응답은 48.4%로 조사됐다. 특히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개신교인 중에서도 16.8%의 비율을 보였다. 비개신교인의 신뢰도는 8.2% 수준에 그쳤다.

개신교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응답은 불교 신자와 무종교인들에게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불자와 무종교인들은 각각 34.6%와 32.8%가 2~3년 전보다 개신교를 더 낮게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시민단체, 언론, 정부, 사법부, 개신교회, 국회 중 종교별로 가장 신뢰하는 기관에 대해 불자들은 시민단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톨릭 신도 역시 시민단체라고 응답했다. 반면 개신교인들은 47.5%가 개신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는 불교와 가톨릭에서는 5% 미만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불교는 60대 이상에서, 가톨릭은 60대 미만에서 가장 많은 신뢰를 받았다. **박기범 기자**

## 교회만 불렀다

지식경제부가 소망교회 등 개신교 교회만을 대상으로 방송장비 교체 공청회를 열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12월 22일 팔레스 호텔에서 ‘방송장비 종교계 확산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등 기독교 측만 참석했다. 당초 지식경제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교회 부문 방송장비 고도화를 위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이라고 명시돼 있다.

같은 날,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형님 예산, 여사님 예산도 모자라 이제는 이명박 장로님 예산까지 챙기겠다는 것이냐”며 지식경제부 장관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대학 등 방송장비 수요자 의견 수렴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간담회를 추가로 열겠다”고 해명했다. **박기범 기자**

## 경찰도 불교 폄훼?

경찰이 최근 범어사 출신 스님의 입적과 천왕문 화재사건의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자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와 범어사가 사건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대불청은 12월 22일 “범어사 출신 스님 사망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경찰의 추측성 발표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일 강원도 속초에서 범어사 출신 스님이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되자 화재사건과의 연관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대불청이 본질 왜곡이라고 항의했다. 조사 결과 강원도에서 입적한 스님은 천왕문 화재 당시 마산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어사도 22일 부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이번 사태로 범어사와 조계종 스님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항의했다. **박기범 기자**

虎踞山 雲門寺
2011년도 운문사
# 승가대학 ·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 운문사승가대학

**자 격 :** 사미니계 수지자,
타 승가대학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모집인원 :** 사미니과 00명
**시험과목 :**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1통
은사스님 추천서
본인 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건강진단서, 최종학력 증명서
법명도장 및 증명사진(장삼.만의착용) 2매
**준 비 물 :** 만의, 장삼, 승려증, 필기도구, 동방아, 세면도구
**도착일시 :** 2011년 1월 22일 오후 4시까지
**시험일시 :** 2011년 1월 23일 오전 7시
**문 의 처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운문사
054)372-8800 / 팩스 054)371-0359
www.unmunsa.or.kr

### 보 현 율 원

**자 격 :** 기본교육기관 졸업자,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비구니
**모집인원 :** 10명 이하
**특 전 :** 졸업 후 조교수 자격부여, 연구기간 중 연구비 지원
**시험과목 :** 면접 및 구술
**제출서류 :** 수행이력서(본 율원 소정양식) 1통
종단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은사스님 및 강주스님 추천서
승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초본
건강진단서 /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증명사진(가사.장삼착용) 2매
**준 비 물 :** 가사, 장삼, 승려증, 필기도구
**시험일시 :** 2011년 1월 23일 오후 2시
**문 의 처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운문사
054)372-8800 / 팩스 054)371-0359
www.unmunsa.or.kr

###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개원〉
전문적으로 부처님경전을 다시 수학하고 싶은 대학원 학인스님을 모집합니다.
**자 격 :** 기본교육기관 졸업자,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비구니 00명
**특 전 :** 졸업 후 조교수 자격부여, 연구기간 중 연구비 지원
**시험과목 :** 면접 및 구술
**제출서류 :** 행이력서(율원동일) 1통
종단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은사스님 및 강주스님 추천서
승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초본
건강진단서 /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증명사진(가사.장삼착용) 2매
**준 비 물 :** 가사, 장삼, 승려증, 필기도구
**시험일시 :** 2011년 1월 23일 오후 2시
**문 의 처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운문사
054)372-8800 / 팩스 054)371-0359
www.unmunsa.or.kr

운 문 사 학장 명성 · 주지 일진

■불교계 10대 뉴스

# 2010년 불교계 어떤 일이?

2010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법정 스님 입적과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파동 등 불교계에서는 그 어느해 보다 많은 사회적 이슈가 쏟아져 나오며 세간에 오르내린 한 해였다. 정부의 종교편향과 개신교계의 불교폄훼를 비롯한 사회 곳곳의 편향된 종교의식은 여전해 종교화합과 평화를 바라는 국민과 불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경기불황 속에 수행과 명상, 차문화,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등 불교적 삶에 관심을 가진 사회인들이 늘어 불교저변이 확대됐다. 또 군포교 활성화의 계기가 될 논산육군훈련소 법당 착공, 조계종·태고종간 신촌 봉원사 문제 타결 등은 2011년에도 불교중흥의 희망이 계속될 것을 보여줬다. 한해동안 눈길을 끌었던 뉴스와 인물을 모았다. 〈편집자주〉

## 경인년 결산 10대 뉴스









스님이 만든 생식
곡류 50%를 발아시킨
효소 발아생식
❶ 타 생식에 비해 채소류, 해조류가 2배 이상 첨가되었습니다.
❷ 유기농으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❸ 99% 국내산 제품입니다.
❹ 돈을 벌기 위한 제품이 아닌 중생들의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불심 깊은 불자님 지역총판 모집합니다. 070-7629-5920
▸1일 1끼 1포(40g) × 60포 (2개월분) 100,000원

### 자승 스님 전격 방북, 성과는 천안함 사태로 묻혀

연초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1월 30일 진행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전격 방북은 국면 해소 및 남북불교교류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 법정 스님 입적… 무소유 신드롬

법정 스님이 3월 11일 오후 1시 51분 세수 79세, 법랍 56세로 송광사 서울 분원 길상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번거롭고, 부질없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수고만 끼치는 일체의 장례의식을 행하지 말고, 관과 수의를 따로 마련하지도 말라"는 법정 스님의 유언은 무소유의 참뜻으로 남았다.

### 봉은사 사태, 결국 명진 스님 퇴진

정치권 외압 의혹 문제까지 터져 나온 봉은사 직영사찰 문제는 결국 화쟁위원회 조정안이 수용되고, 진화 스님이 새 주지로 임명되면서 마무리 됐다.

### 불교계, 국민들에게 4대강 반대 화두 던져

2010년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불교계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5월 31일 경북 군위 지보사의 문수 스님 소신공양은 불교계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 사찰 땅 밟기 파문… 종교편향 갈수록 심각

올해 불자들은 개신교 신자들의 봉은사·동화사 땅 밟기 동영상, 울산KTX역 통도사 병기 취소 등 잇따른 불교 폄훼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특히 정부의 종교 편향적 태도는 그동안 얌전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불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면서 비종교인들에게도 종교 편향 문제가 최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 육군 훈련소 신규법당 착공… 십시일반 50여억 원 모여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조계종 숙원사업이었던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가 드디어 첫 삽을 떴다.

### 신촌 봉원사 타결… 순천 선암사 문제 급물살

서울 신촌 봉원사를 둘러싼 조계종과 태고종의 50여 년 묵은 소유권 분쟁이 마무리됐다.

### 조계종 교육개혁 시동

조계종이 1994년 승가교육체제 정립 이후 시행돼 온 승가교육에 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 조계종 선원청규 발간

한국불교 수행자의 지침서가 될 〈선원청규(禪院淸規)〉가 발간됐다. 전국선원수좌회에서 펴낸 〈선원청규(禪院淸規)〉는 고청규(古淸規)에 의지해 온 한국불교가 시대와 토양에 맞는 '우리의 청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 불교계가 주축이 돼 '조선왕실의궤' 반환

불교계가 주축이 돼 민족의 문화유산을 되찾아왔다. 한국과 일본정부는 11월 8일 〈조선왕실의궤〉를 포함한 우리 문화재 1025점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 1. 지구촌 이웃 묵묵히 돕다, 월주 스님(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은 그동안 국제구호NGO 지구촌공생회 이사장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케냐 등 저개발국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데 앞장서 왔다.

연초인 1월 11일 생명의 우물 1000개를 완공한 지구촌공생회는 2012년까지 캄보디아에 우물 1000개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캄보디아 따께오 주의 뜨로 빼양 뜨라우·정콧 2곳에 초등학교도 설립한다. 함께일하는재단과 위안부 피해시설 나눔의집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월주 스님은 "한 사람의 힘이 지구촌 곳곳의 굶주림과 같은 고통을 해소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전파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한다.

올해 월주 스님은 구호활동 외에도 항일운동가 민세 안재홍 선생을 기리기 위한 제1회 민세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민세상 심사위원회는 월주 스님이 80년대 말부터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수상 사유로 꼽았다.

## 2. 봉은사 사태 원만 수습, 도법 스님(화쟁위원회 위원장)



1990년 결사체인 선우도량을 만들어 청정 불교 운동을 이끌었으며, 1994년 조계종 개혁 불사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1998년 종단 분규 당시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사태를 마무리하고 실상사로 돌아갔다. 그 이후 귀농학교, 대안학교, 환경운동 등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운동을 펼쳐 온 도법 스님이 봉은사 사태에 중재자로 나섰다. 총무원과 봉은사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외압설이 부각되며 불교계 내홍이 최고조로 이르렀을 때 사태 수습을 위한 적임자로 도법 스님은 종도들의 신뢰를 받았다.

사태 수습을 위해 출범한 화쟁위원회 활동은 태생에서 한계가 있었지만 불교 전통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성과를 낳았다.

## 3. 육군훈련소 법당 건립, 자광 스님(조계종 군종교구 교구장)



2009년 7월 제2대 군종교구장으로 취임한 자광 스님에게 2010년은 육군훈련소 법당 신축이란 대불사를 위해 매진한 한 해였다.

1970년 군 포교를 시작해 군승 중위로 임관한 이래로 육군본부 군종감실 제도과장과 3군 군종참모를 역임했다.

자광 스님은 군포교 현장의 오랜 경험으로 군종교구장으로의 최적임자로 평가 받아왔다.

자광 스님의 불교에 대한 지론은 '멍텅구리가 돼야 한다'다. 낮은 자세로 보살 모시기를 부처님 모시듯 하는 자광 스님에게 불자들의 마음이 모인 것은 당연하다.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가 착공되기에는 불교계 안팎의 많은 성원이 있었지만 그 중심에 자광 스님의 활약이 있었다.

## 4. 조선 왕실 의궤 반환, 혜문 스님(문화재제자리찾기 위원회 사무총장)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 스님은 조선왕실의궤 반환의 일등공신이다. 혜문 스님은 2006년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를 구성해 의궤 반환운동을 주도해왔다.

혜문 스님은 일본 도쿄대에 소장돼 있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명성황후 시해에 쓰인 칼인 히젠도(肥前刀), 고종의 투구와 갑옷 등 드러나 있지 않던 우리 문화재를 찾아냈다.

스님은 또 '숭어'로 잘못 돼 있는 슈베르트 가곡 '송어'의 교과서 개정을 이끌어냈으며, 혜문 스님은 지난 8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상대로 낸 '여성 생식기 표본 보관 금지'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이목을 집중시킨바 있다.

## 5. '즉문즉설' 호쾌한 화법 여전, 법륜 스님(정토회 이사장)



정토회 이사장 법륜 스님의 전법활동은 올해도 거침없이 진행됐다. 대북지원사업, 수행, 출판 등에서 두드려졌다. 특히 오랫동안 인터넷을 통해 회자되어 결혼 전 반드시 읽어야 할 대표적인 글로 화제가 된 〈스님의 주례사〉는 9월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20위로 오르고 1주만에 8위로 치고 올라왔다. 또 천안함 사건 이후 경색된 남북 상황에서도 대북인도적 지원을 호소와 함께 국제구호단체 JTS 를 통해 밀가루를 지원해왔다. 문수 스님 소신공양 이후 정토회원들과 함께 조계사에서 24시간 49일 수행정진을 수경 도법 스님과 함께 이끄는 등 환경 인권 포교 활동을 펼쳤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천적 수행을 강조하는 전문 수련기관인 수행공동체 정토수련원도 20년 만에 대웅전을 준공했다. 수련장도 확장 단장했다. 정토수련원은 움막과 비닐천막, 조립식 건물을 전전하던 수련원은 청년대학생 여름수련회를 시작으로 학생과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4박5일, 7박8일, 9박10일, 100일 수련 일정으로 깨달음의 장, 나눔의 장, 일체의 장, 100일 출가의 장 등의 수련과정을 1000여회나 가졌다.

현지사 소개 그 열한번째 주제 – 다보탑 –

대적광전에 이은 또 하나의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사실

법화경 다보불탑! 현지사 대적광전 앞에 빛으로 솟아나다!

그 날 나와 다보불은 현지사 다보탑 속에서 나란히 자리를 같이 해서 앉아 있을 것이다
– 석가모니불세존말씀 –

그 때 부처님 앞에 칠보탑이 나타나니 높이가 이만리요, 가로세로가 각 만리 씩인데 땅에서 솟아나와 공중에 머물렀다.
–《묘법연화경》 <견보탑품> –

현지사에 솟아난 빛의 묘탑
2008년 음력 10월 15일. 현지사 대적광전 개원식 마당에 빛으로 된 묘탑이 땅을 찢고 솟구쳤다. 그날 자리를 참석한 어떤 이는 땅위에서 곧게 뻗어 하늘 끝까지 휘몰아 치는 소용돌이를 보았고 어떤 이는 땅에서 소용돌이 치며 솟구치는 금빛 휘황찬란한 거대 묘탑의 형체를 보았다. 이 탑의 정체는 다름 아닌 불교 최상의 경전인 묘법연화경에서 소개되는 탑중의 탑, 다보탑이었다.

그 보배탑 속에는 여래의 전신이 계시느니라. 지난 세상에 동방으로 한량없는 천만억 아승지 세계를 지나가 세계가 있었으니 보정이라 이름하였으며, 그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어 이름을 다보라 하시었느니라. ...저 보배탑이 반드시 그 앞에 솟아나오고...
–《묘법연화경》 <견보탑품> –

대적광전의 가치와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출현
그 자리에 다보불탑이 솟아난 이유는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모신 대적광전 개원식이 있었기에 그 우주적 보물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이곳 현지사가 온전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법의 붓다회상이기에 영산불교 사상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빛의 묘탑을 재현하다.
현지사에서는 빛의 묘탑이 솟아난 그 자리에 유무를 초월한 절대계의 탑을 실제 크기보다 축소하여 재현하였다. 그리고 가섭과 아난이 다시 몸을 받아와 이번 생에 불과를 이룬 광명만덕·자재만현 두 분 큰스님에 의해 점안되었다. 따라서 이 탑은 보정정토의 실제 다보탑과 링크되어 있으며 다보부처님께서 이곳에 상주하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바세계 삼천대천세계의 땅이 모두 진동되고 갈라지며 그 가운데서 한량없는 천만억 보살들이 한꺼번에 솟아나왔다.
–《법화경》 <종지용출품> –

다보탑의 위신력
다보부처님과 천만억 본화보살님들 한분 한분의 능력은 실로 무한하여 그 모든 보살들의 능력이면 중생의 그 어떤 소원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 앞으로 이 다보탑은 인류 문화사에 길이 남을 우주적 보탑으로서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불자들의 무량 복전이 될 것이다.

인류 초유의 성지
다보탑 조성으로 인해 현지사는 다보부처님과 천만억 본화보살님께서 실제 현신하셔서 우주적 위신력을 발휘하는 역사상 초유이자 세계 유일의 성지가 된다. 상행보살님과 정행보살님은, 이번 생에 몸을 받아 불과를 증한 산혜혜자재통왕불 아난존자의 좌우보처이자 본화보살의 영도자로서 이곳 현지사는 향후 1만년 말법시대 본화보살들의 활동 중심이 된다. 현지사의 다보탑은 국가의 번영과 평화를 도모하는 원대한 원력을 담아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이며 수많은 성현들을 배출하는 인류의 기념비적 존재가 될 것이다.

※ 자재만현 큰스님 BBS TV
법회 절찬리 방영중!!
(QOOK 550, BTV 521, U+108번)

그 누가 이러한 천도재를 올릴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미중유한 천도대재 봉행!!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현지사의 천도대재는, 부부 각각의 친·외가쪽 조상님 40여명과 인연 깊은 3~40명의 윗대 무주고혼 조상 영가님 모두를 삼매의 힘으로 수배하여 영가의 현주소를 파악, 집전 장소로 데려옵니다. 복위자의 업을 소멸시켜주며 도량과 복위자의 집을 이전보다 더 맑을 정도로 깨끗이 영적인 청소를 해줍니다. 또한 조상 영가님들을 부처님께 공양올린 공덕으로 한단계 높은 곳으로 천도해 드립니다. 네 번이면 무주고혼과 지옥의 영가들을 하늘 천국까지 올려드리는 세상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는 희유한 천도재입니다.

현지사 대법회 – 매월 음력 8일, 23일 http://www.hyonjisa.com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033)243-1787, 1795 / 대전 분원 042)525-5325, 5345 / 부산분원 051)554-5150

## 일 주 문



### 현성 스님 독거어르신 돕기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12월 21일 동지를 맞아 서대문구청에서 독거어르신 및 탈북가족 30명에게 쌀 20kg을 각각 전달했다.



### 수덕사 육군32사단 위문

예산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12월 15일 육군 제32보병사단을 방문해 떡과 과일 위문금을 전달하고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 고운사 선체험관 특별철야정진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12월 31일부터 신년 1월 2일까지 선체험관에서 특별철야정진을 봉행한다.



### 봉선사 범종루 낙성식

남양주 봉선사 주지 인묵 스님은 12월 31일 봉선사 경내에서 범종루 낙성식 및 송년법회 탑돌이를 개최한다.



### 연꽃마을 동지팥죽 공양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은 12월 22일 동지를 맞아 안성파라밀요양원을 비롯해 총 24개의 산하시설에서 3만 5000인 분의 팥죽을 공양했다.



### 봉은사 봉암사 대중공양

서울 봉은사 진화 스님은 1월 3일 문경 봉암사로 대중공양을 봉행한다.
참가신청 (02)516-6630



### 선각종, 제10회 찬불가 경연대회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은 12월 15일 광주교도소 대강당에서 재소자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10회 불교 독경 및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 우리는선우 제1기 주역선해

성태용 우리는선우 대표는 1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7~9시 서울우리함께빌딩 6층에서 총15회에 걸쳐 '주역선해'를 강연한다.

### 〈열반〉 익산 태봉사 조실 상수 재공 스님

익산 태봉사 조실 상수 재공 스님이 12월 20일 세납 92세, 법랍 82세에 입적에 들었다.

재공 스님은 1928년 3월에 공주 신원사에서 원호 스님을 은사로 10세에 출가했다. 재공 스님은 1940년 익산 태봉사를 창건했다.

# "쥬얼리로 불교 이미지 바꾸겠다"

## 불교계 청년 소셜 벤처사업가 김 민 지

"쥬얼리에 부처님 마음을 담았어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마음을 디자인 한다고 할까요. 종교를 비롯한 모든 것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쉽게 전하고 생활화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제가 만든 쥬얼리를 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이 수익금이 제3세계에 쓰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진 능력이 좋은 일에 쓰인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불교계 청년 사회적 기업 1호를 준비 중인 김민지 씨(26)는 요즘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김민지 씨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과 철학이 있는지 일깨워 주고 싶다"며 사회적 기업 창업에 뛰어들었다.

김 씨는 사람들이 불교상품을 보며 '고리타분하다. 낡았다. 후지다. 진부하다. 촌스럽다'는 반응이 싫었다. 한국 문화유산의 70%를 차지하고, 세계에 내 놓아도 손색없는 불교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김민지 씨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고등학교 때 부여박물관에서 백제금동대향로를 봤어요. 금동대향로의 섬세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말을 잃었죠. 향로에는 실용성과 장식성, 조형성은 물론 혼이 담긴 그대로였어요.



제 인생을 바꿔놨죠. 보는 순간 인간문화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산업디자인을 전공 후 동국대 불교미술학과에 가서 불교미술을 배웠어요. 한국문화에서 불교문화는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주변 시선은 달랐어요. 전통의 가치를 배우고 익히는 저를 이상한 아이로 바라보더군요. 한국전통 불교문화의 가치보다는 서구문화에 더 익숙해 하는 친구도 많았고요. 교회에 간다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절에 가 법문을 듣겠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상했어요. 불교의 이미지를 바꿔볼 생각이에요."

사회적 기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올해 6월 정토회 100일 출가 기간 동안의 일이었다. 정토회 대학생 작은 짜이집 봉사를 하면서 제3세계를 돕겠다던 막연한 생각이 수행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구체화 됐다. 또 수행은 불교의 예술적 가치 외에 '마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단순히 팔기위한 것은 아니에요. 근원으로 가야해요. 모두 수공예로 만들어 지는 제 작품에는 혼과 영혼이 담겨 있어요. 마음을 치유하는 쥬얼리를 통해 문화재적 가치를 현대화하고 상품화할 계획이에요. 꼭 사회적 기업으로 승인받아 제3세계 어린이를 돕고, 한국전통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거에요."

김민지 씨 작품은 제1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에서 2위로 입상했었다. 지난 봄에는 'YOU ARE BUDDHA' 전을 개최하는 등 불교 용품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백제금동대향로에 담긴 불교문화의 가치가 현대에 감동을 주듯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준 정신적 문화적 불교문화를 이어 갈 계획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혼자 갖고 있지 않겠다는 것,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가치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전 사회적 기업을 선택했어요."

글=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 MBC '법정 스님 2부작' 대상

## 제18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

제18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 MBC스페셜 '법정 스님 2부작'이 선정·시상됐다.

조계종 총무원과 사단법인 보리(이사장 김재일)는 1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18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을 봉행했다.

대상을 수상한 MBC 이현숙 PD의 '법정 스님 2부작'은 법정 스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로 이 시대의 삶의 표상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불교의 사상과 가치관이 프로그램의 곳곳에 잘 배어있는 수작으로 평가 받았다.

이 밖에 불교언론인상에는 유자효 불교언론인회 고문이, TV부문 최우수상은 KBS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미소의 길 3부작'이, 라디오부문 최우수상은 대구불교방송의 열반절특집 드라마 2부작 '대열반'이, 신문부문 최우수상은 전상천·민정주 기자(경인일보)의 '길에서, 원효를 만나다', 인터넷부문 최우수상은 송광사 홈페이지(www.songgwangsa.org)가 선정됐다.

특별상은 박영환 KBS 보도본부 9시 뉴스 앵커와 MBC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을 연출한 김진만·김현철 PD에게 돌아갔다.

TV부문 우수상은 KBS 3·1절 특집 다큐멘터리 '초월의 비장(秘藏) 진관사 태극기', 라디오부문 우수상은 국악방송의 부처님오신 날 특집 '건달바의 노래', 신문부문 우수상은 금강신문 기획취재팀의 '불교 지성의 대화', 인터넷부문 우수상은 '나무아미타불 카페(cafe.daum.net/net)가 각각 차지했다.

이나은 기자

# 청도 운문사 신임 주지에 일진 스님



일진 스님이 신임 주지로서 소임에 충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2월 19일 청도 운문사 신임 주지로 일진 스님이 임명됐다.

일진 스님은 "학인의 마음으로 관세음기도 정진에 더욱 매진해 참회하고, 인욕하며, 움직일 수 있는한 솔선수범해, 자신의 수행과 포교로 주지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운문승가대학(학장 명성)은 청풍루에서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국태민안을 위한 오백나한 백일기도' 회향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서 명성 스님은 "공덕을 중생에게 회향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리회향하는 마음을 내 성불의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김상기 신임 육군참모총장 취임

## 불자 장성 대거 진급



김상기 신임 육군참모총장(58·육사32기)을 비롯한 불자 장성이 12월 16일 대거 진급했다. 김상기 대장은 16일 충남 계룡대 무궁화회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42대 육군참모총장에 취임했다.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는 이번 취임에 앞서 "이번에 진급한 총 110여 장군 가운데 16명이 불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한 신자는 20여 명 나머지는 무교 또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은 육사 32기로 육군 제50사단장을 거친 뒤 육군본부 전력기획부장, 특수전사령관, 국방부 정책실장, 제3야전군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군법당 법회를 거르지 않을 정도의 돈독한 불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은 야전부대 경험이 풍부하고 정책분야에도 능통해 최적임자로 평가돼 왔다. "싸울 수 있는 군인을 만들겠다"는 군 개혁 방침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전형적인 야전통으로 꼽힌다.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은 취임사에서 "기(氣)와 혼(魂)이 깃든 부대지휘를 통해 사기가 충천하고 신바람 나는 선진 육군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위로부터의 변화와 자기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강군을 만드는데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자"고 말했다.

군종교구는 12월 말 군내 주요 보직 및 인사 이동 후 불자 장군 현황을 2차 취합해 진급 축하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급 불자 장성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육군 대장) △정연봉 김명섭 승장래 장군(육군 소장 진급) △이광수 박성혁 장군(공군 소장 진급) △공회식 김상철 염완균 이해영 정진국 문영기 장군(육군 준장 진급) △김종일 박동우 장수홍 장군(해군 준장 진급) △장경식 정영진 장군(공군 준장 진급)

노덕현 기자

# 경북불교대학인의 밤

경북불교대학(학장 돈관·은해사 주지)은 12월 17일 경산 컨벤션센터에서 경북불교대학인의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교대학 졸업생 1000여 명이 참석해 불교중흥을 위한 단합된 모습을 보이며 신심을 다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학장 돈관 스님이 경북불교대학인의 밤에 참석해 불교 중흥을 다짐했다.


## 골굴사 선무도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

경주 골굴사에서는 템플스테이 2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200명을 무료 초대합니다.

마애불과 12처석굴의 1500년 사찰 아름다운 골굴사에서
선무도와 문화예술공연관람 및 체험, 대자연과 인연법의 소중함을 배우는 발우공양,
나를 돌아보는 108배 등 다양한 체험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소중한 인연을 만납니다.

※ 대 상 : 장애인 복지단체 및 기초생활 수급자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가족(다문화가족)
※ 기 간 : 2011년 6월, 11월
※ 문 의 : 054)775-1689 / 744-1689 fax. 746-0172
www.sunmudo.com / d-kumkang@hanmail.net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산 304번지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움직이는 禪의 숨결~ 선무도 템플스테이는 연중상시 참가가능합니다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를 통해 참 나를 찾아가는 길 _ 禪武道

천년의 시공을 초월한 문화의 향연
## 템플스테이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골굴사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시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전통무용 대가의 안무와 오랜 수행경력의 선무도 시연단이 이끄는 전문공연단의
특별한 문화예술공연을 골굴사 상설무대에서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정기공연
2011년 1월 1일부터 (관람료없음)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선무도와 함께하는 '2011년 해맞이 템플스테이'에 초대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 (재)선무도대금강문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산 304번지 전화 054)775-1689, 744-1689

# 정토회, 핸드폰으로도 만나요

## 일반 휴대폰도 가능… 내년 특화 서비스 계획

정토회가 변화하는 모바일 환경에 발맞춰 핸드폰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일반 휴대폰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해 회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12월 14일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해 정토회에 접속하면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법회와 부처님 교화 이야기, 오늘의 경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정토회 홈페이지에서 이용했던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휴대폰의 경우 '**9191#888'과 'show' 버튼을 누른 뒤 폰피클럽을 다운 받으면 된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올레마켓에서 라이프스타일에 접속 후 폰피클럽 어플을 다운 받아 설치하면 된다. 현재까지는 KT 이용자만 가능하며 내년부터는 다른 통신사로도 확장할 계획이다. 아이폰 사용자도 내년 경에 지원 가능하다.

정토회의 모바일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홈페이지의 메뉴를 핸드폰을 통해 볼 수 있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정토회도 내년에 스마트폰 이용자가 더욱 늘어나면 모바일로 특화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나영 미디어팀 팀장은 "인터넷을 능가하는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다. 모바일 이용이 강화되면 새로운 포교 수단으로 정착될 것이다. 내년에 특화 서비스를 통해 더욱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 민추본, 독자적 대북 지원 길 열었다

### 대북지원지정단체 통일부 승인
### 연평도 사태로 교류 경색 우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가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지정단체' 승인을 받아 독자적 대북 지원의 길을 열었다.

민추본은 그 동안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창구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11월 22일자로 통일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종단협을 통하지 않고도 독자적 대북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개인, 기업, 법인과 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물품을 전달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인도적지원사업도 참여할 수 있다.

통일부는 대북지원지정단체 승인을 심의하면서 최근 3년간 지원 실적과 안정적 북측 지원 단체, 승인 신청 단체의 위상과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2000년 6월 창립된 민추본은 그 동안 조선불교도연맹중앙위원회 등 북한과의 다양한 민간 지원과 교류를 펼쳐와 무난히 심의를 통과했다.

민추본은 대북지원지정단체 승인 후 보건 · 의료 분야의 지원을 계획했다. 그러나 승인 직후 연평도 포격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북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지 못 하고 있다. 남북 관계가 경직되면서 지원이나 교류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재산 민추본 기획홍보계장은 "경직된 분위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민간 차원의 교류가 끊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남북 화해를 위해서 민추본은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추본은 올해 진행한 '평화통일성지순례'에 대한 평가 세미나를 12월 15일 템플스테이 종합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 날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 네트워크 강화와 다양한 코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미애 민추본 주임은 "설문조사 결과와 여러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대중통일 사업으로 더욱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 "삼성현마저 무산돼선 안돼"

### 정호완 삼국유사학회 대표, 종교간 화해 협력 강조

대구 팔공산역사문화사업이 무산된 이후 경산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사업에 대한 개신교계의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개신교계의 무분별한 종교폄훼에 지역 학계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정호완 대구대 명예교수의 종교화합에 대한 바람을 들어보자. 〈편집자주〉

동북공정을 잘 아시지요. 중국이 고구려의 역사를 저네들의 것이라고 하면서 역사 기술을 다시 하는 작업이 동북공정입니다. 요즘 일부 개신교 단체에서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현창하려는 과제들이 불교편향 사업이며 사업의 진행을 저지하고 그 가치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동북공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예가 바로 대구 팔공산 역사문화공원 사업 무산과 요즘 불씨를 지피고 있는 경산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사업 저지를 위한 활동입니다.

10월 26일 경산에서는 경산시와 대구대 양자 간에 원효(元曉)와 설총(薛聰), 일연(一然) 삼성현(三聖賢)을 현창하는 사업의 공조를 위한 양해각서 교환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설총의 생애와 학문'을 주제로 삼성현 연구소가 주최하는 학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삼성현이 모두 경산 출신이기에 이를 기념해 역사문화공원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삼성현은 불교계 인물을 넘어 한국역사에 길이 남을 스승입니다.

본 발표가 끝나고 종합토론이 시작될 무렵, 경청기독교연합회의 삼성현 대책위원회 소속 어느 목사님이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고 "어용교수 물러가라" "삼성현 연구소를 해체하라"는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동석했던 회원들과 함께 연호를 하며 학술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자리에 있던 지역의 유림들과 일부 시민들의 항의로 장내는 안정을 찾았고 대책위 소속 다른 목사님의 사과로 회의는 이어졌습니다.

국보 중 54%, 보물 중 60% 이상이 불교 문화재입니다. 신라와 고려는 국교가 불교였고 위에서 아래까지 모든 국민이 불자였습니다. 삼성현의 역사 · 문화적 현창을 반대하는 분들의 조상들도 모두가 불자였습니다. 한국 문화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국가 정책이나 지자체 문화사업이 불교 포교에 이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문화적인 부분을 살려 우리 조상들의 얼을 기리고 지역과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전승하는 일은 지속돼야 합니다.

템플스테이 같은 문화 사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을 품격 있는 도시로 가꾸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서 비롯되는 인적자원과 오랜 역사에서 오는 문화뿐입니다.

이제 갈등을 넘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한가 하는 상식에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혜를 모으고 문화산업의 뿌리와 줄기를 키워갈 시기입니다.

개신교 문화도 그 나름으로 존중되고 이를 잘 살려가야 합니다. 한국 근대사의 교육 문화에 얼마나 많은 공로가 있습니까. 종교갈등을 넘어서 우리 힘과 지혜를 더불어 힘을 합해야 합니다. 갈등을 넘어 평화를 가꾸고 길러 감이 홍익(弘益)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정호완 대구대 명예교수
(삼국유사학회 · 삼국유사사업위원회 대표)

## 100자 뉴스

### 도선사, 군법당 건립기금 1억원

서울 도선사(주지 혜자)는 12월 20일 아름다운동행에 육군훈련소 신축불사 기금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군포교 거점이 될 군법당 완공에 힘을 보태 고맙다"고 말했다. 육군훈련소 신축불사기금은 22일 현재 50억 9418만원이 모연됐다. 노덕현 기자

### 신흥사, 108인연만들기 선포

속초 신흥사(주지 우송)는 12월 17일 2010 자비나눔대법회에서 '108 인연만들기'를 선포했다. 108인연만들기는 신흥사 신도 108명이 지역 108세대와 1:1 인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자비나눔 프로그램이다. 속초 마레몬스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1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지역 내 저소득계층 300세대와 속초 70개소 경로당에 8000만원 상당의 쌀 · 라면 등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 제2회 승만보살 10대원(大願) 수계법회

불교여성개발원 승만경연구회(회장 이인자)는 12월 2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회 승만보살 10대원(大願)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수계법회에는 〈승만경〉을 공부한 여성불자와 대승보살의 원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80여 명에게 수계가 내려졌다.

조계종 포교원 원장 혜총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진행된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거향찬, 청성, 청사, 개도, 참회, 연비, 귀의, 선계, 계첩수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나은 기자

### 제1회 세계불교문화올림픽개최



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능인,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은 12월 13일 네팔 카트만두 대통령궁에서 파르마난다 지하 네팔 부통령과 제1회 세계불교문화올림픽 개최 협약을 조인했다.

제1회 세계불교문화올림픽은 네팔 · 한국불교도가 공동 주최해 2011년 5월 22일 네팔 룸비니에서 열린다. 추산 동참인원은 약 5만명으로 한국에서는 1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는 올림픽대회 개최를 기념해 룸비니에 25m 크기의 아기부처 탄생불 불상을 조성키로 하고 동참불자를 모집하고 있다. (053)325-0400 노덕현 기자

### 문화재청, 원주 법천사지 정비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사적 제466호 원주 법천사지의 정비를 추진한다.

법천사지는 2001~2007년 발굴조사를 거쳐 '법천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문화재청은 2008년부터 법천사지 정비를 준비해 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발굴이후 방수천막으로 유적을 덮어놓으면서 불가피했던 경관 훼손과 문화재 탐방의 어려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진영 기자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요법

무릎찜질,허리찜질,족욕,좌욕,반신욕,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 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사이에 대류현상이 일어나 잘순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 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핫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않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휘림건강 (주)은 철,칼슘,마그네슘, 셀레늄,등이든 광물질 30여종 (특허획득 제10-096707 호 발명의 명칭 :세라믹 전기발열체 및그제조




방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핫 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 노인정 경노당,한의원,산후조리원, 복지원,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됐나
기술의 진보가 건강 혁명을 일으켰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건강혁명이다.

휘나핫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에서 방사되는 B.CP 슈퍼블랙디스크는 섭씨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면상 발열체 반신욕조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이 기능성을 갖는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기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가구개념을 도입하여 고풍스런 분위기를 위하여 원목 (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휘나핫B.C.P 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명품이랄 수 있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능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부림출판사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 출산 장려 불교가 앞장서자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전문가 초청 다양한 가능성 논의

"저출산 문제와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해 불교계에서 가정의 달인 5월에 건강한 출산과 지혜로운 부모됨을 기원하는 법회를 열자. 또한 출산과 생명가치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키는 인식개선운동도 펼치자."

이영호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이 12월 21일 만해 NGO 교육관에서 개최한 '저출산 정책 포럼 및 부처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가족교육 성과 발표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저출산 정책의 이슈를 알아보고, 불교계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는 손주영 보건복지부 저출산인구정책과 사무관, 이영호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최종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 불교 접목 한부모 가족 지원 가능

이영호 센터장은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과 불교계 참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센터장은 불교계가 한부모 가족 지원과 관련해 불자성의 내면화를 위한 교육과 실천, 본말사 체계를 활용한 교육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제안했다. 또한 자치구 사암연합회의 신도 가족봉사단 활동, 태교 팔정도, 태아와 함께하는 육바라밀 등 사찰 내 강좌를 개설해 불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이 밖에도 범 불교적 인식개선 캠페인, 한부모 가정 상담소 설치, 재단산하 어린이집 한부모 가정자녀 우선순위 부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부모 가족은 2005년을 기준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330만 가구 중 137만 가구가 한부모 가족이다. 서울시 한부모 가족은 31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의 9.6%에 해당한다.

이영호 센터장은 "한부모 가족은 이혼 가구의 증가비율이 두드러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도 증가 추세다. 부자가구의 증가비율이 모자가구에 비해 높다는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증가는 전체가구 빈곤율에 3%에 해당한다. 모자가정은 실업, 불안정 고용, 주택, 의료비 등 경제문제가 심각하다. 입양가정의 87%가 미혼모 자녀이며 주된 사유는 경제적 능력부족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위기상황 극복, 사회적응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2009년 6월에 설립됐다. 센터에서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종합상담, 취업지원, 미혼모 대안학교, 재무설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미혼모 대안학교인 캥거루 스쿨은 학습 및 교육의 기회가 단절된 미혼모들에게 검정고시 학습, 진로탐색, 자아발견 등을 통해서 계속 학습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친정엄마맺기' 멘토링 사업은 출산양육의 경험이 있는 멘토를 선발, 교육을 통해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와 1:1 매칭을 통해서 미혼모들의 정서 안정 및 출산과 양육을 중심으로 생활코칭을 하는 사업이다.

[표]1자녀 이하를 둔 20~39세 기혼여성의 가장 주된 출산중단 이유

| 구 분 | | 소득/고용 불안정 | 자녀 양육비 부담 | 자녀 교육비 부담 | 일-가정 양립 곤란 | 가치관 변화 | 불임 등 기타 |
|---|---|---|---|---|---|---|---|
| '05 | 전체 | 18.5 | 9.9 | 18.0 | 9.1 | 19.7 | 24.8 |
| | 취업 | 24.4 | 7.6 | 13.4 | 11.8 | 21.8 | 21.0 |
| | 미취업 | 14.1 | 11.5 | 21.8 | 7.1 | 17.9 | 27.6 |
| '09 | 전체 | 18.6 | 16.7 | 26.7 | 6.0 | 15.0 | 16.9 |
| | 취업 | 20.0 | 8.6 | 22.9 | 14.3 | 21.9 | 12.4 |
| | 미취업 | 17.7 | 20.8 | 28.6 | 2.2 | 12.1 | 19.0 |

*보건사회연구원,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 저출산 해법 사성제 재해석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008년부터 '건강한 출산·양육환경 조성사업'을 펼쳐왔다. 사회복지재단은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불교계 인식개선을 중점적으로 교육해왔다.

올해 실시된 '부처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가족 교육'은 불교적 생명관과 가족관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불교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생명 존엄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는 재단자체교육과 스님, 재가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재단자체교육에서는 '부모가 곧 부처입니다'를 주제로 특별 법문을 열어 불교의 효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교육에서는 불교의 여성관과 현대의 성 평등, 저출산의 원인과 해법을 불교의 사성제로 재해석했다.

스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는 전국비구니회와 연계해 부부·가족상담 사례연구,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불교사회복지 대응 전략, 불교의 생명관과 생명윤리 등을 주제로 외부 전문가 강연을 가졌다. 이 교육은 스님들이 사찰에서 불자의 가족 상담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 스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중생제도를 위해서도 상담교육 접목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재가자 대상 교육은 불교계 어린이집 부모를 대상으로 전국 사찰 및 불교대학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미래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최종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교육으로 불교계 생명관과 가족관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했다. 그러나 불교 특화전문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인력풀 구성은 해결돼야 할 과제이다"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 "종교계와 사회 전반의 장기적 안목 중요"

### 손주영 보건복지부 사무관, 불교계 생명존중 가치관 확산 기대



이날 손주영 보건복지부 사무관(사진)은 '제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에 세계 최저수준인 1.08명을 기록했다.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 현상은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취업과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2009년 합계출산율이 1.15명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했다.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 부담의 경감 등 90여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 계획으로 필요한 경우 휴가와 육아 휴직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육아휴직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휴직급여를 현재 월 50만원 정액제 지급에서 임금에 연동한 정률제로 개선했다. 또한 현재 3일로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로 연장하고 3일간은 유급화 했다.

정부는 또, 결혼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택마련 부담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부모들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진료비를 2012년까지 50만원으로 늘리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도 기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62만명)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고, 맞벌이의 경우에는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해 전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손주영 사무관은 "사회전반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특히 종교계는 국민의 정신적 리더로서 생명 존중의 가치관 회복과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 본동복지관, 행복이 넘치는 송년의 밤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은 연말연시를 맞아 자원봉사자, 후원자, 이용자가 함께 하는 송년의 밤을 마련했다.

'행복한 만남 · 소중한 시간'이라는 주제로 12월 16일 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동복지관은 송년의 밤을 통해 올해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2011년 전문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또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표창장을 전달했고, 다양한 공연을 통해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이어갔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자원봉사자, 후원자, 이용자가 모두 행복해지는 시간이 됐다. 내년에도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 청소년 미래 등불 밝힌 낙산복지재단

### 장학금 수여, 문화체험캠프… 밝고 건강한 성장 기대




낙산사 복지재단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문화캠프를 열었다.

낙산사 복지재단(이사장 금곡)이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 및 문화체험캠프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낙산사복지재단이 지역사회 교육복지증진을 위해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강릉MBC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12월 22일 낙산 유치원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양양군 저소득가정 청소년, 위탁가정청소년 등 60명의 청소년들에게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12월 22~24일 낙산사와 서울 일대를 체험하는 문화캠프도 진행했다. 청소년들은 22일 낙산사 유스호스텔에서 한지공예와 명상 체험을 가졌고 23일에는 일산 MBC 견학과 세종문화회관에서 뮤지컬을 관람했다. 마지막으로 24일에는 조계사와 불교문화박물관을 견학하고 양양으로 돌아갔다.

낙산복지재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양양군 저소득가정 청소년 및 학업우수 청소년에게 학업의지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환경을 제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낙산복지재단은 12월 20일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갖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기범 기자

## 연천군노인복지관, 고급 수의 2종 출시

연천군노인복지관(관장 김학석)의 노인일자리 사업 '宴 수의제작'이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

복지관은 수제직 천연 삼베로 제작한 고품질의 수의로 대마 수의와 저마 수의 등 2종의 고급 수의 제품을 출시했다고 12월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7월부터 한복 제작 등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들의 참여로 시작됐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대마와 저마 모두 남성용 19종, 여성용 21종이며 판매가격은 대마 55만원, 저마 45만원이다. 수익금은 전액 어르신들 인건비로 지급된다.

'宴 수의제작사업'은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천연 삼베를 사용해 고품질의 수의를 제작, 지역사회에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바른 장례문화를 정착하고, 어르신들께는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031)834-6080

박기범 기자


# 대한불교원효종 신년 하례 및 인원 확정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종도님들의 법체 청안하심과 하시고자 하는 제반일들이 부처님의 자온으로 원만회향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종단은 불기2555(2011)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코저 합니다. 현재까지 등록하신 종단소속원을 잠정적으로 집계하여 종단의 종도로써 권리와 의무를 부여 받으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바쁘시더라도 뜻있게 원만회향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음

일 시 : 2555(2011)년 1월 6일 오전 11시
장 소 : 대한불교원효종 목련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565-3번지)
문 의 : 총무원 02)735-0501~2 / 울산사무소 052)262-6857. 6859

총 무 원 장 향 운 합장



* 대한불교원효종은 신규등록, 재등록을 계속 받고 있으며, 종단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총무원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한글 보급은 불전 한글화를 통해 이뤄졌다”



〈아미타경언해〉

## 최종석 금강대 교수, 간경도감 의미 재조명

억불숭유 정책과 한글경시 풍조가 만연했던 조선 초기. 사대부들의 반대에도 왕실 주도로 불경 한글 번역을 위한 기구가 설치되고 역경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

최종석 금강대 불교복지학 교수는 최근 〈불교경전은 어떻게 전해졌을까〉(불광출판사 刊)에 게재한 논문 ‘한글에 담겨진 불경’에서 1461년 세조의 왕명으로 설치된 간경도감(刊經都監)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주목했다.

간경도감은 조선 초기인 1461년부터 1471년까지 11년 간 존속한 기관으로 불경의 국역과 판각을 관장하던 관립기관이다.

이때 한글로 번역된 불경으로는 〈능엄경언해〉〈법화경언해〉〈선종영가집언해〉〈법어언해〉〈금강반야바라밀다경언해〉 등이 있어 현재 불교학 연구 뿐만 아니라 우리말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최종석 교수는 간경도감의 설치가 단순히 세조가 왕위에 오른 뒤에는 찬탈을 속죄하기 위해 불교에 심취해 일어난 일로 볼 수 없음을 지적했다. 세조는 대군 때부터 불교를 좋아해 부왕인 세종의 불서 편찬 및 간인(刊印)을 적극 도왔다. 간경도감의 설치는 선대인 세종의 한글 창제 업적을 잇고 왕권 정통성을 지적하는 사대부계층을 견제하기 위한 세조의 남다른 시도였던 것이다.

최 교수는 “당시 국시인 유교에 입각한 격렬한 반발로 세종 당시에만 해도 한글 반포에 대한 항소가 끊임없을 때였다”며 “양심적 참회의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유교경전의 한글화를 위한 전초작업으로 한글 보급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글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당시 민간에 깊게 파고든 불교를 활용함이 유용했다.

최 교수는 “불경의 한글번역본 발간 정책은 유교적 이상국가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선의 지향점과는 다른 이질적 정책이다. 하지만 먼저 당시 백성이 쓰는 말과 새로 창제된 한글 사이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는 대중화를 위한 실용적 사고도 필요했다. 결과론적이지만 불전의 한글화 사업이 없었다면 한글 배포의 문제가 과연 용이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끝으로 “한글 창제는 기본적으로 애민, 자주, 실용 정신을 대변된다. 세조의 간경도감 설치는 이러한 정신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으로 향후 지속될 역경 사업은 이런 근본정신에 입각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불교문화재 17건 보물 지정

## 13m ‘하동 쌍계사 괘불도’ 등



문화재청은 하동 쌍계사 괘불도(사진) 등 불교 문화재 17건을 12월 20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문화재청이 2002~2016년까지 추진 중인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사업의 성과이다. 보물 지정된 문화재 17건은 2008년 경남 서부지역 불교문화재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유형별로는 불상 6건, 괘불도 2건, 동종 4건, 전적 1건 등이다.

불상은 6건으로 보물 제1686호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래여좌상, 보물 제 1688호 진주 청곡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등이 있다. 이들은 17세기 전반 대표적 조각승인 현진 작품으로 불상의 양식변화 뿐만 아니라 17세기 전반기 불상 양식 편년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존하고 연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1612년에 수화승 현진이 4명의 조각승과 조성한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상호가 갸름한 타원형인데 비해 ‘진주 청곡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편평한 방형으로 바뀌는 등 두 작품비교를 통해 17세기 불상양식의 변화를 볼 수 있다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괘불도는 2건으로 보물 제1692호 통영 안정사 영산회괘불도와 보물 제 1695호 하동 쌍계사 괘불도이다. 영산회계불도는 1702년 광흠이 수화승을 맡아 2명의 제자와 함께 조성했고, 1934년 계홍이 중수했다. 쌍계사 괘불도는 13m에 이르는 거대한 화폭에 입상의 석가모니 1구만을 묘사해 당당하면서도 괴량감 있어 보물로 지정해 보존 · 연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됐다.

동종은 4건으로 보물 제 1698호 진주 삼성암 동정, 보물 제 1700호 거창 고견사 동정 등이다. 고견사 동종은 조선후기 일반적인 동종과 다르게 명문에 사찰의 연혁, 동종 제작기간, 제작물품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천진영 기자**

# 초의 선사 다각도 조명

## 박동춘 소장, 차문화 연구서 내놔




조선 정조 10년(1786) 태어나 15세에 출가 후 해남 대둔사 일지암에서 40여 년간 수행하면서 선사상과 차에 관한 저술에 몰두하여 큰 족적을 남긴 초의 선사. 초의 선사는 당시 침체된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킨 대선사이자 명맥만 유지해 오던 한국 다도를 중흥시킨 다성(茶星)으로서 지금까지 추앙 받고 있다.

신라 말 유입돼 고려시대까지 왕실과 사찰 중심으로 형성된 차문화는 조선시대 배불정책의 영향으로 쇠퇴일로를 겪게 된다.

초의 선사는 차의 이론을 정립하고 제다법을 복원해 초의차를 완성했다. 또 당시 중국차만을 알고 있던 지식인들에게 한국차의 우수성을 인식시켰다. 선사는 차에 대한 관심과 애호를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다산 정약용 선생과 추사 김정희 선생 등 당대 최고의 석학들과 교우를 통해 사상적 교류를 나눴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이 최근 저술한 〈초의 선사의 차문화 연구〉(일지사 刊)선사의 생애, 수행을 비롯해 조선후기 차문화를 중흥할 수 있던 배경을 상세히 고찰했다.

또한 초의선사가 차의 이론을 연구하고 직접 차를 만들며 다도를 정립해 초의차를 완성한 모습을 그의 제다법, 탕법, 장다법을 통해 살폈다. 끽다거의 선다전통을 이은 초의차가 누구에게로 계승되었는지 추적해 초의차 계보를 알게 한다.

〈동다송〉, 〈다신전〉, 〈일지암시고〉 등과 유학자들이 초의 선사에게 보낸 간찰, 초의 선사와 교우했던 인사들의 문집을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박동춘 소장 본인이 발굴한 초의 선사 유품목록인 〈일지암서책목록〉을 통해 초의 선사가 차문화를 일으킨 총체적인 모습을 알려준다. **노덕현 기자**


# “고귀명수 (鼓龜命數 : 육임운명판단법)” 할인 출시 및 “효사 활인천역집 (曉史活人天役集 : 육임종합 CD프로그램)” 리콜 (무료) 실시!

“본회 사이트 첫 화면에 아래 -·=의 ‘활용효과성’을 위한 설명 강의 동영상을 올려 놓았습니다”

## -. 효사활인천역집 CD프로그램 리콜 실시 안내




1. 정 가 : 5백만원
2. 기 능 : 상담전문활용육임종합 CD 프로그램
3. 리콜(무료교환) 대상 :
가. 효사활인천역집 2010완결판
(판단의 애매성이 일부항목에서 불식되지 않음)
나. 효사활인천역집 2010완결보정판
(판단의 애매성이 일부항목에서 불식되지 않음)
다. 효사육임사주감정법
(대,세,일 운세 배치 오류 발견 됨)
4. 리콜이유 :
가. 승인(인증)기능을 없앴음.
나. 신분 직업을 미리 알수 있도록 보충 하였음.
다. 초사(初辭)와 내정(來情)의 핵심사에 대한 애매성을 불식시키기위해 아래 사항들의 낮 밤, 남 · 녀 구분 및 어간(語間)의미를 최정련 시켰음.
1). 근친상간자에 대한 판단의 정확도를 위해 해당 천장 분별과 낮 · 밤 시간 구분 표시를 철저히 했음.
2). 남녀삼각관계(一男二女 · 一女二男)와 불비 · 부족관계에 있어서의 애매한 부분(三傳三合 / 四課 全 一 陽 · 陰)에 대한 채용 · 불채용의 적용을 명확히 했음. 이때 남자 또는 여자가 질투로 남자 또는 여자를 살해하게 되는 대상 남녀의 구분도 엄중히 했음.
3). 교동(狡童 : 남자가 타인의 부인을 유혹하여 색정거래 하는 것)과 음일(淫溢 : 여자가 남자를 적극 유혹하여 가출하려는 것)의 낮 · 밤 시간 판단구분을 철저히 했음.
4). 부인이 간사(姦私)로 남편을 살해하는 대상 여인도 엄중히 구분해 적시 했음.
5). 데릴사위 신분임을 철저히 구분해 적시했음.
6). 처에 의한 소송을 당하는 남자를 철저히 구분해 표시 했음.
7). 부부이별 하는자에 대한 구분을 철저히 표시 했음.
8). 상신(傷身) 또는 불구(不具) 여부가 본인 · 처첩 · 자녀 · 부모 · 형제 중 누구에게 해당되는지를 엄중히 표시 했음.
9). 혈광사의 대상과 암매사의 대상을 양일(陽日)과 음일(陰日)로 분명히 구분시켰음.
10). 고등(사법 · 행정 · 외무 · 변리 · 회계)시험과 대학입학 시험 합격자 및 선거 당선자 여부를 별도로 표시 했음.
11). 12귀신(作事鬼 病鬼) 중 ‘여귀(女鬼)’ ‘음귀(陰鬼)’ ‘가택귀(家宅 鬼)’의 종류를 새로 보강 했음.
12). 12부정(邪崇)중 부정침범부위(신변 · 가택 등)를 철저히 구분해 표시 했음.
13). 산소탈 14부 중 묘지속 상태에서의 ‘뱀굴’ 여부 · ‘복골’ 여부 · ‘水듬’ 등 여부를 재정련 시켰음.
14). 집안에 귀물(鬼物 : 木 · 火 · 土 · 金 · 水)이 있는 경우 이를 표시 했음.
15). 기타에 있어
가) 이 사람이 왜 왔는가?
나) 이 사람의 전체적 상황은 어떠한가?
다) 이 사람의 구체적 문제는 무엇인가?
라) 이 사람의 비밀사안은 어떤 것인가?
마) 묻고자 하는 일이 이미 벌어졌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
바) 바깥일인가? 집안 내부 일인가? 후회하는 일인가?
사) 밝혀도 되는 일인가? 숨기고 싶은 일인가?
아) 上人(男)에게 유리한 일인가? 下人(女)에게 유리한 일인가?
자) 내 말을 신뢰 하는가? 설득해야 하는가? 자기 고집이 있는가? 등 위 프로그램에 장착된 15종 600여가지 사안 중 위 큰 항목 1 · 2 · 3 세가지와, 작은 항목 1-15 내용을 정련 · 보강 · 삭제 시켰으므로 리콜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5. 위 1항 대상외 기존 “효사활인천역집 Ⅰ · Ⅱ · Ⅲ CD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환 시기가 수차 있었기 때문에 금번 리콜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6. 2010.12.13일 - 12.31일 동안만 할인가 25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 =. 고귀명수(鼓龜命數) 출시

“안녕하십니까?”

중동지절(仲冬之節)에 저 고복자 효사 문안드립니다.

육임운명판단법 ‘고귀명수(鼓龜命數)’를 시작한지 4년만에 드디어 완성 시켰습니다.

선입금 하시고 지금껏 기다려 주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귀명수’ - 혼신을 기울여 무섭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사주(四柱)에 연연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시간의 방문자마다, 이어지는 다음 사람들까지, 또는 출생 연월일시별로, 표시해 놓은 해당 쪽수만 펼치면 거기, 군더더기 하나 없는 속 시원한 내용 들이 포박 포박 써져 있을 것입니다.

읽고 해석해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인 부동(不動) 단구(單句)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간추려 드리건대 **수명 관계 / 건강 · 질병 관계 / 직업 · 신분 관계(來情과 命運 겸용) / 배우자 성정 · 용모 관계 / 명운 관계 / 부부 선후사(先後死) 관계 / 일생 귀인조력 · 유무 및 그 거소지 관계 / 일생 구해(仇害)인 유무 및 그 거소지 관계 / 육친별 상신불구(傷身不具)관계 / 출산자녀 친 · 구(親 · 仇)관계 / 매년 나이별(신수) · 길흉관계 / 띠별 현재 상황 관계 / 여자운명 관계 / 초년 · 중년 · 말년 길흉 및 육친 불행관계 / 초 · 중 · 말년 12작사귀 · 12병귀 · 침범관계 / 신변 · 가택 · 초 · 중 · 말년 12부정 침범관계 / 산소탈-육친 중 누구에 의한 파가(破家) 또는 흥가(興家) 하겠는가? 관계 / 묘지 속 ‘뱀굴’ ‘복골’ ‘水듬’ 관계 / 남녀 혼인기(期)관계 / 전체 인생정체(定體) 관계 / 구체적 인생 행로(行路) 관계 / 살인 · 색정 · 생사별 · 사고 · 사건 관계 / 12궁위(本命 · 財 · 兄弟 · 田宅 · 子息 · 奴業 · 夫婦 · 病危 · 遷移 · 官職 · 老後福德 · 相貌) 길흉 관계까지**, 육임의 장점인 정확도 · 신속도 · 그 효과성에 맞춰 최대한 - 후회없이 - 잘 살펴 놓았다는 점을 주지해 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들을 일별할 수 있게 한 일,

曉史集 第二十七集
鼓龜命數
고 귀 명 수
- 육임운명판단법 -
鼓卜子 曉史 共著
龜玉子 乙山
도서출판 朱雀

통권 1권 · 순별6권 · 60갑자 매일별 60권 / A4 · A3 크기 중 선택하십시오.

즉 복 · 명(卜 · 命)을 합쳐 ‘명운(命運)’과 ‘당면사정(當面事情)’들이 모두 한 면 한 눈에 들여다 보이게끔 구성시킬수 있었던 것은 저의 ‘일상(日常)을 떠난 세월’과 ‘육임에 대한 역사성’을 갖지 않으면 도저히 못해 낼 작업이었고, 애제자 귀옥자 乙山의 외지조응(外之助應)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귀명수’의 완성은 ‘육임이 복(卜)일뿐 명(命)에는 약(弱)하다’는 오해를 단 한번에 불식시킨 쾌거로서, 수천년 육임사에 이 책과 같은 ‘명 · 복 활용서’로 까지 만들어진 예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 개인의 불행사가 육임 ‘고귀명수’를 만들어내게 한 소명으로까지 이해하고 이 책의 완성과 함께 제 인생의 완성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운에 있어서 -이 책처럼 딱딱 부러지는 ‘정형화(定形化) 되어있지 못한 것’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면 이것, 저것이면 저것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분명히 써 놓아야만 흑 · 백이 가려질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한 눈금의 오차가 없어야 할 우리 활인 천역자들의 ‘잣대’이면서 ‘칼’임에야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선입금을 받고도 4년을 끈 저의 진의는 바로 이점 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을 여기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미리 알고 권위있게 먼저 하게 될 말씀들을 애써 기록한 것입니다. 대 만족하실 것 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책 값은 3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만, 제가 보내드리는 이 소식을 접한 분들께서는 저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이겠기에 **2010년 12월 13일 - 12월 31일** 사이 동안만 150만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또, 기존 저의 각 활용서(래정비법시리즈)를 실비에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70-7514-8680**에서 제가 직접 주문 받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庚寅 仲冬 鼓卜子 曉史 拜上**

**고복자(鼓卜子) 저술 소개** 진정한 프로를 위한 진검승부적 위상을 제고시킨 육임활용 · 학습서들 입니다. 육임공부를 하지 않아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글로 쉽게 되어 있습니다.

**활용서**
- 육임래정비법시리즈 최종 2011 완결판
- ‘효사육임산책’(휴대용) · ‘효사육임복변집’(좌정용)
- 도사에게물어봐 (2011 증보판)
- 출산길일길시택일비법 (2011 개정판)
- 육임풍수 (2011 개정판)
- 육임 1년신수비결 (2011 개정판)
- 육임래정비법 (증보개편판 : 휴대용 좌정용)
- 도정기 (道程記) - 신간
- 불가법요집 (佛家法要集) - 고품격완성도 / 해당법문 경구 색인 수록 / 법회의 감동심 고취 구성 / 각종행사 30여 발원 · 기도문 게재 등 새 지평이 제시됨.
- 육임대계전서 (2011 개정판)

**학습서**
- 본 효사활인 천역집 (2011판 완결최종판 CD프로그램)
- 본 육임운명판단법 고귀명수 (鼓龜命數)
- 효사육임강의 CD (2011년 최신판)
- 오행제례의식집 (2011 개정판)
- 효사육임복변집부록 (2011 개정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 개정판)
- 효사육임강론 (曉史六壬講論) 2011 보정완결판 /
· 上권 : 육임각법종합구성 / 2050쪽 (학습용)
· 下권 : 육임서 역대저자 머리글 / 육임대요문답/ 사과삼전보기요령/항목별주요신장제시 /사과삼전표 / 천지반표 / 과 / 격 / 초사 / 국수해설 / 항목별성부단정 수록 / 2015쪽 (임상용)

**육임강의「도술(방법실기)반」**
**2011년 1월 8일 오후3시에 개강 합니다.**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070-7514-8680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403호 (조계사 건너편 SK건설 옆건물)
www.taotemple.net

# 지역 어르신 위한 토탈 서비스

행복법당
## 송광종합사회복지관


송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기체조 운동을 하며 행복을 쌓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과 부의 분배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많이 갖는 것을 행복한 삶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무소유'와 '버리고 떠나기'를 한 평생 실천하셨던 법정 큰스님의 가르침이 더욱 빛나는 이유이다.

복지(福祉)란 '행복한 삶'을 말한다. 좀 더 말하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크든 작든 갖은 것에 만족함을 느끼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복지관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최적의 공간이자, 포교의 장이다.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제)이 있는 곳은 광주에서도 가장 낙후된 광산구의 우산동이다. 송광복지관은 아직 복지관이라는 명칭이 낯설었던 시대인 지난 93년 광산구에 첫 출발을 하였다. 현재 광주에서 가장 오래되면서 가장 큰 복지관이라고 할 수 있다.

대지 400평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마련된 복지관에는 소강당, 노인무료급식소, 미용실, 푸드마켓, 자활사업장, 어린이집, 사회복귀시설, 노인복지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나눔드리 도서관, 방과후 공부방, 정보화교육실 등이 마련되어 매일 25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한다.

송광복지관 주변에는 작은 평수의 주공아파트가 많이 있다. 이곳의 주민들의 상당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일까 복지관 특화사업에는 늘 △거동불편 어르신 식사 배달사업 △저소득 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노인일자리사업 '우리 동네 환경개선사업' △ 지역사회 방임아동 야간 돌봄 사업 '나이트케어' 등이 진행된다.

복지관에는 늘 어르신들이 북적인다. 매일 점심시간에는 지역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식사를 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식사 배달사업이 진행되고, 연로하여 집안 수리를 할 수 없는 어르신에게는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된다. 여기에 일상생활의 섬세한 복지를 말하는 재가복지서비스에 세탁지원, 장애인목욕, 이미용, 가사지원, 차량지원, 의료지원, 자비의 선물나누기, 김장지원 등 다양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송광푸드뱅크 · 푸드 마켓 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광산구지역 내 남는 식품 및 기부물품을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주)비알코리아, 호남샤니, 세방전지 구내식당, 시루연, 광산구내 학교 급식소 등에서 귀중한 식료품을 제공해 주고 있다.

"아직까지 사찰이나 불교단체서 자원봉사나 물품기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업체와 관공서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찰과 복지관이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해 나아가야 할 일을 만들도록 해야지요."

송광복지관 사무실에서 복지관 현황을 설명해준 김영춘 부장의 말이다.

가장 불교적 실천이 가능한 곳인 복지관에 불자들의 발길이 가장 없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관을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이야기였다.

"어디 단체든 재정확보는 큰 화두일 것입니다. 정부지원금이 작아지는 요즈음 불자들의 도움이 더욱 절실 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화두에 맞는 실천으로 복지관에서는 처음 후원행사를 마련한다. 바로 12월 29일 열리는 '후원의 밤' 행사이다.

복지관은 행복을 주는 곳은 아니다. 하지만 행복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곳이 될 수는 있다.

마하트마 간디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만족이다. 만족 이외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가져와 보라." (062)941-8248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송광종합복지관장 도 제 스님 인터뷰



"저는 복지관에 다니기만 합니다. 스님이 복지관에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지 않겠어요"

도제 스님은 복지관에 매일 출근한다. 차로 5분 여 거리에 있는 작은 사찰 길상사 주지 소임을 시작하면서 복지관 관장을 같이 맡게 되었다.

이런 도제 스님을 만나기는 무척 힘들다. 시간 약속을 하지 않으면 놓치기 십상이다. 너무나 바쁜 스님이기 때문이다. 스님의 직함을 보면 쉽게 할 수 있다. 최근 조계종 전법단 광주전남지부장 소임을 비롯해, 동련 광주전남지부장, 파라미타 광주지부에서 지역 포교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스님은 매일 복지관에 출근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어르신 만나기를 빼먹지 않는다.

"저는 사실 어린이,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저희 복지관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공부방, 나이트케어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 아이들에게 다가갔을 때는 낯설어 했는데, 이제는 장난도 하고 지내요"

이렇게 스님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스님은 "정부예산은 40%만 있고,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한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한다"며 "사찰과 불자들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와 후원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했다.

스님은 최근 조계종에서 추진하는 전법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전국 6개의 광역시에 추진되는 전법단은 지난 10월 6일 광주전남전법단을 출범한 이래 2011년 3월 2일 광주전남전법단 포교결집대회 및 음악회 개최 등 세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

## 이럴 땐 어떻게 하죠?

## 출가는 굳은 각오 있어야 부자 관계는 대화로 푸세요

**Q** 출가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출가를 할 경우 그 순간부터 부모님은 뵐 수 없는 건가요? 뵐 수 있다면 얼마나 자주 뵐 수 있는지요?

또 가부좌를 할 수 없으면 출가를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출가할 때는 문제 없었지만 출가생활을 하면서 사고로 가부좌 등을 못하거나 다른 신체적인 이상이 생기면 종단에서 나가야 하나요?

**A** 상담자께서는 출가를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출가의 길이 어려운 길이란 것은 상담자께서도 짐작하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출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세속과의 인연을 정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 친지 등과의 끈끈한 사랑의 감정을 거둬 들여야 합니다.

그런 굳은 각오가 없이는 불가에 입문할 수 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에 끌리는 그런 감정들을 갖고 불문에 귀의하면 불가에서의 수행이 조금만 힘들어도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 전에 본인이 왜 수행자가 되려고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을 하고 출가를 해야 합니다.

출가를 하면 처음에는 부모님과의 상봉을 멀리 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사미계를 받고, 강원에서의 4년간 교육을 마친 후 비구계를 수지하여, 스님으로서의 자질과 신심이 갖추어지면 그때에는 오히려 가족들을 부처님 법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만남이 가능해 집니다.

그때 가면 본인 스스로 가족과의 만남에 있어 자제와 허용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가부좌가 잘 안돼 수행을 못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으시군요.

불가에 입문하여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게 되면 꼭 가부좌 자세가 아니더라도 수행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종단에서 꼭 나가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시지만, 정진하면서 포교를 위해 애쓰시는 스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마장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는 마음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Q** 부모님과 돈 문제로 싸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돈 관리에 관해 의심이 많으십니다. 아버지께서 결혼 자금을 모으라 하셔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믿고 맡기시면 될 터인데 통장을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일일이 확인하시더군요. 순간 너무 짜증나서 신경질을 내고 말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아버지와 이혼한 친어머니가 강원도에 홀로 계셔서 어머니께 돈을 부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짐작했는지 나가서 죽든 살든 거지가 되든 이제 마음대로 하라고 막말까지 하십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제 방에 작은 불상을 모시고 향을 매일 피웁니다. 불상 위에 부처님 사진을 붙여도 되는지 여쭙고 싶네요.

**A** 아버지가 상담자를 믿어주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정보를 줘야 이해 받고, 지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하도록 해보세요.

예로부터 "자기의 사랑은 자기 자신이 하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부처님 상이나 부처님 사진은 점안을 하지 않은 것은 장식물에 불과하므로 사진을 붙여도 무방합니다. 상담자께서 방에 부처님을 장식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니 한걸음 더 나아가 부처님을 모신 곳에서 매일 108배 기도를 함께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108배 기도를 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새로운 도법 지구촌에서 가장 빠른 생명에 문을찾아 선지식들에 모든법을 이어 받아 육경신수행으로 혜안 심안 불안 도안 법안 천안 도통으로 현장 법사와 손오공 능력을 얻어 무궁조화로 모든중생을 구제하는 경인년 루진통 대법회

천하대도 자성에 문은 말과 글과 참선 및 그 어떠한 수행으로는 생명에 문을 찾지 못하고
수많은 세월과 목을 메는 진광대도 우주와 내가 하나되는 문에 그대를 초대합니다

◆ 경신도통이란 멸하지 않는 영적부모인 것이고 인간의 수행으로는 몸에 붙은 신을 떼지 못하고 자손으로 내려 가지 않고 자기대에서만 부리는 도법을 받는 날이 천년에 한번드는 신묘년 2011년 1월 4일 ~ 5일 경신일 자신이 도통하는 성불 받는 날이다.

◆ 특별 금년 음 경인년은 천, 복 대운의 해이므로 결혼과 가정과 직장 및 수행자들에게 운이 막히고 사업마장, 결혼마장 되는 것은 자기 조상해탈 못한 영가들의 방해이므로 본인의 삼생의 죄업을 벗고 악한운과 일체고액을 소멸하는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윗대 조상님들이 본인에게만 열어주고 선복대운으로 자식에게 안가는 행운을 열어 운명을 바꾸는 것이며 2011년 1월 4일 ~ 5일 경신일부터 지구촌 새로운 유불선이 하나되는 법도이므로 이 기도로 하늘 땅 모든 대운을 받아 지금까지는 과거 지나간 일들만 말하는 것을 미래에 닥쳐오는 운명과 길흉과 철학 점술예언 예측하는 루진통 수행으로 천지와 복덕이 합하고 일월과 밝음이 합하고 귀신과 길흉을 합하고 사시 오행이 합하고 육갑음향과 세월 일시가 합하는 성스러운 대운을 받아 잡신 마장을 소멸 하는날 이므로 하늘과 땅은 사사로움이 없는 경신수행자에게 이 법을 주워 자신에 보림하는 법을 얻는 천장지법인 것이고 관심법으로 많이 안 배워도 미래에 다가오는 모든 운명과 건강 출세 신비의 명리철학 오행철학 성명철학 풍수철학 동양철학 등 팔신공 도천명으로지난날만 맞추던것을 즉시 도통 말문이 열리는 도법을 성불받아 일체를 관리하는 도통 군자로 사단법인 자격증을 얻어 철학원과 포교원을 경영하여 평생직업에 구애 받지 않는 자격을 얻어 거부장자되는 루진통 도통법 대법회

천지공사 육경신도통이란? 천하의 비밀법에 자신이 운명을 비켜갈 수 있는 영포태로 업장소멸하여 자신이 운명을 조종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도통법 인 것이며 천지공사인 것이다.



◆천지공사 경신도통으로 타심통을 열어 상통천문하달지리로 자신의 일체의 병을 다스리고, 귀신마장의 포망을 넘어 유불선이 하나로 되는 도천명을 득도하는 육경신 도통만이 유행되는 전염병과 그 어떠한 병도 다스르는 의통 능력자인 초능력을 얻어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도인이 되어 중생에게 빙이 된 영혼문을 열어 일체 영가를 해탈 시키는 초등력으로 생명에 문을 찾는 루진통 대법회
대용맹정진 수행하는 곳에서 생명의 빛이 혜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명문을 열고 정신과 신심의 문 육신의 문을 열어 운수 대통 팔자와 운명이 바뀌어 천하를 다스리는 천지공사 죽음의 뿌리를 끊고 시공을 넘어 견성도통으로 병업싱 사는 이 수행법은 한번만 하여도 수십년 수행한 능력 보다 더 큰 능력을 얻는 도통법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010-3239-3110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 교육원
부산특별시 금정구 장전3동 경문사 도량
상담전화 : 051)635-3110 / 010-8533-1601

● 입제 : 양력 2011년 1월 4일(음 12월 1일 화요일)(해시)
● 해제 : 양력 2011년 1월 5일(음 12월 2일 수요일)(해시)
02)821-6622, 821-7767, 010-3239-3110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 461번,153번으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입구 하차. 동작구 약사회 골목. 관음정사 별관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교육원
천지공사웅조미륵달마 경신도통회
사단법인 세계불교 달마종 총 본산 환성태일 합장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이상 절감 효과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왼쪽 두번째부터) 불광산사 주지 의인 스님, 선무도 서울 종로지원장 혜각 스님,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량잉빈 신임대표 등 70여 사부대중이 12월 19일 열린 송년회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

# “씬 니엔 콰일러(新年快樂)”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서울 불광산사 송년법회

### 성운 스님 뜻 이어 ‘인간불교’ 실현

“씬 니엔 콰일러(新年快樂).”

2010년을 서둘러 정리하는 듯 겨울 추위가 매섭다. 삼삼오오 송년회가 한창인 12월. 소박한 신년인사가 정답게 오간다. 12월 18일 서울 불광산사(주지 의인)에 소박한 웃음이 넘쳤다. “니하오(你好)” “안녕하세요” 중국어와 한국어 인사가 정답다.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다는 불교집안이지만 이들의 인사에 가던 인연도 다시 돌아올 것만 같다.

대만 불광산사 서울 분원인 ‘서울 불광산사’에서 진행된 송년의 밤 행사는 요란하지 않았다. 담박했다.

오전 10시 부터 주지 스님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불광산사 대중 수행법인 염불선(念佛禪)을 닦았다. 법당에는 향연(香煙)이 서려있었다. 법당을 처음 찾은 사람은 들어서자마자 콜록 거리며 기침을 할 정도지만 그 속에서도 사부대중은 ‘아미타불’을 일념으로 염했다. 아미타 기도법회, 사시불공, 재앙소멸 발원문에 이어 오후에는 염불정근, 천도기원, 아미타경 독경 소리가 법당을 울렸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도는 쉼 없이 이어졌다.

수행으로 마음을 닦은 스님과 신도들은 함께 송년의 밤 행사를 준비했다. 각한(覺瀚) 스님은 앞치마를 두르고 공양간과 행사장을 분주히 드나들었다. 불광산사 4명의 스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신도들과 함께했다.

행사에는 의인 스님,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량잉빈(梁英斌) 신임대표, 황건량 부대표, 장성기 교무팀 비서관, 선무도 서울종로지원 원장 혜각 스님, 동국대사범대부중 김화실 교감 선생님, 국제불광회서울협회 · 국제불광회 청년회 회원 등 7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의인 스님은 “2011년 한 해는 반야지혜로 좋은 인연을 맺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반야지혜는 모든 일을 이뤄내는 데 힘이 되며, 좋은 인연은 자유자재한 삶을 준다”고 말했다.

행사는 1년 동안 함께 수행한 도반들에게 주는 상장 수여부터 시작됐다. 상장은 종이에 코팅을 해서 검소하게 만들어 보다 많은 신도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수상 명목도 발심상, 수행정진상과 같은 수행을 북돋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상품도 거창하지 않았다. 기념 티셔츠, 불광산사 다이어리, 책, 작은 화초, 핸드폰 고리가 전부였지만 행복한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송년의 밤 공연도 수수한 상장 · 상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공연은 무엇을 얼마나 잘 하느냐보다, ‘누가’ 하느냐가 핵심이었다. 중국 근대 현악기 얼후(二胡) 연주, 어린이들의 노래 및 바이올린 연주, 간단한 게임, 불교기초교리 퀴즈대회, 선무도 공연 모두 신도의 몫이었다. 빼어난 실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함께 행복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의 작은 발심에서 시작됐다. 특히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이끈 청년회는 세대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다.

불광산사 스님들은 중간 중간 진행되는 게임에 함께 웃고 박수쳤다. ‘인간불교(人間佛教)’의 이상을 실천하고 있는 불광산사의 저력은 작은 데서 비롯됐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누구나 참여하고, 모두가 함께한다는 것. 신도에 대한 ‘배려’와 자비에 있었다.

채식공양을 마치고 산사를 나섰다. 비가 내렸다. 매서운 추위가 주춤하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신묘년(辛卯年)을 반갑게 맞이하라는 경인년(庚寅年)의 따뜻한 마음처럼.

글=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 #서울 불광산사

서울 불광산사는 1999년 서울 중구 장충동에 설립됐다. 주지스님을 비롯해 4명의 스님이 기거한다. 한국인, 주로 대만과 관계가 있는 유학생, 화교 혹은 한국인과 결혼한 대만 사람들, 한국을 방문한 대만인 등이 신도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 불광산사는 대만 불광산사의 활동을 알리고, 화교와 유학생을 포교하는 역할도 한다. 1년에 2차례 대만 불광산사로 성지순례를 떠나고, 대만 불광사를 창건한 성운 대사의 설법집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다. 또 한국 내 불교 관련 소식을 대만에 전하고 있다.

불광산사는 한국을 포함, 전 세계 곳곳에 220개 지부가 있다. 지부는 신도를 위한 공간인 법당, 선방, 도서실, 사경실, 차방이 갖춰져야 개원이 가능할 정도로 엄격히 관리된다.

차방인 ‘적수방(滴水房)’에는 대만차(茶)는 물론 각종 과자류와 식품류도 판매하고 있다. 또 매주 월(초급), 수(중급) 중국어 강좌를 열고 있으며, 선무도, 명상반, 어린이 중국어 작문, 불교 교리 등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02)2276-0993





①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는 화교 어린이들.
②각한 스님(왼쪽에서 두번째)과 신도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겨울에는 아늑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사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멍석 카페트

◇ 원산 · 제조 : 한국
◇ 크 기 : 가로 280cm × 세로 180cm × 두께 약 1cm
◇ 용 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등 ◇ 가 격 : 3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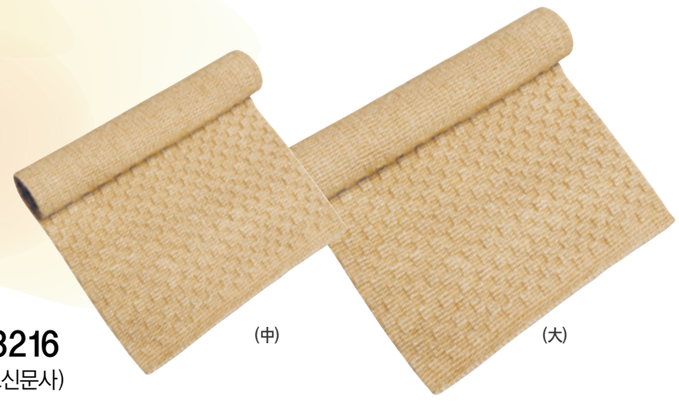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 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 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 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 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 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 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 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 삼베매트(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120,000원
■ 삼베매트(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60,000원

◇ 용도(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사용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사라집니다.



(中) (大)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7개국 음식 맛보러 오세요

## 비단고을, 다문화가족 식당 '코끼리' 개점



12월 21일 나주시 중앙로에 개점한 다문화음식점 '코끼리'에는 우즈베키스탄, 몽골,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이주여성 7명이 근무한다.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문화생활을 돕고, 고국의 음식체험을 통해 사랑방 역할을 할 음식점이 문을 열었다.

나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인 비단고을지혜나눔사랑회(대표 원광 · 심향사 주지)는 12월 21일 나주시 중앙로에 다문화음식점 '코끼리'를 개점했다.

점포 상호는 동남아지역에서 부와 화합, 성스러움을 상징하는 '코끼리'에서 따왔다.

식당에는 몽골(호쇼, 초이방), 우즈베키스탄(하눔), 필리핀(룸피아 샹하이), 중국(딤섬, 사천식 깐풍기), 베트남(쌀국수, 월남쌈) 등 모두 7개국 12가지 음식을 판매한다.

비단고을지혜나눔사랑회는 지난 7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의 현지점검을 받은 뒤, 10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수행단체로 운영을 시작했다. '코끼리'에는 국도비 7000만원과 2200만원의 자부담금이 투입됐다.

현재 '코끼리'에는 주방장 1인을 포함해 우즈베키스탄, 몽골,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의 이주여성 7명이 근무한다.

비단고을은 코끼리 식당을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다국적 음식의 체험공간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코끼리 식당의 운영 수익금은 독거노인 밑반찬 △다문화 청소년 장학사업 △다문화 가족의 문화체험 활동 지원 △이주민 노동자 및 가족의 인권보호와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에도 사용된다.

21일 개점식에는 원광 스님, 도제 스님(길상사 주지), 이영규 나주시청 자치위원회 국장 등을 비롯해 100여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해 각 나라의 음식들을 시식했다.

원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다문화 이주민들이 외로움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 부탁한다"며 "많은 시민들 다문화식당을 애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에는 440여 가구의 다문화 가정이 있다. 이주민 여성이 나주에 정착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단고을지혜나눔사랑회는 나주 심향사 부설로 운영되는 다문화지원단체이다.

이 단체는 2004년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000여 회 실시했으며, 2008년부터는 결혼이주민 여성들과 아동들의 가족나들이 및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비단고을지혜나눔사랑회는 22일 다문화가정을 위한 '동지팥죽 나누기' 행사도 진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mybuda@hanmail.net

## 고창 청소년, 선운사 다도 체험

### 고창복지관 선운백로다회, 지역 청소년 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차(茶)와 예절'을 가르치는 템플스테이가 열렸다.

차(茶)문화 보급을 통해 지역문화사업을 이끌고 있는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완) 선운백로다회는 12월 16일 고창 선운사에서 지역청소년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지역문화사업 일환으로 다도프로그램 선운백로다회를 진행 해온 복지관은 다도 선생님을 초청해 학생들에게 찻물 우리는 법, 찻잔 잡는 법, 차 마시는 예절 등 한국의 차 문화를 소개했다. 학생들은 일대일 지도를 통해 한복 옷고름 매는법, 공수, 배례법 등 전통예절도 체험했다.

선운사 포교국장 종진 스님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의 전통 차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문화 보급사업인 선운백로다회는 지역에 차(茶)와 예절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7월에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기초반, 중급반, 직장인반으로 6개월부터 2년 과정으로 진행되어 다도(茶道)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종진 스님은 "선운백로다회는 앞으로 지역 유치원 및 초등학교와 연계해 다도 예절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지역 병원과 요양원, 복지관 등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차 나눔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노인복지회관은 16일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한 해 동안 수고한 300여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제3회 복운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날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나주 세지중, 2010벽상축제 개최

"오늘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연습한 우리들의 숨은 재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종립학교인 나주 세지중학교(이사장 원일 · 나주 미륵사 주지)는 12월 17일 세지중 벽상관에서 재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0 벽상축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1부 3학년 전원의 예비성년식과 태권도 시범, 스포츠댄스 공연에 이어 2부 학예발표회에는 사물놀이, 플루트, 첼로, 가야금, 포크기타, 드럼, 리코더 연주가 이어졌고, 연극, 각반별 댄스파티가 진행됐다. 학생들은 저마다 숨은 끼를 발산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마친 3학년 학생들은 어른임을 상징하는 상투를 쓰고, 성년 제례의식을 진행했다.

원일 스님은 인사말에서 "학부모의 교육적 욕구와 친환경 교실 만들기를 통해 나주의 명문중학교로 발전했다"며 "학교와 교사들의 정성과 학부모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벽상학원 세지중학교는 전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벽상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97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세지중 3학년 학생들은 상투를 쓰고 성년 제례의식을 진행했다.

## 동지팥죽 나눔 곳곳 열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를 맞아 잊혀 져 가는 세시풍속 전승을 위한 '팥죽 나눔 행사'가 전북 지역 곳곳에서 열렸다.

전북 완주 송광사(주지 도영)는 3000명분의 동지 팥죽을 준비해 송광사 경내와 경기전, (구)코아백화점, 모래내시장, 정심원, 서원노인복지관에서 동지 팥죽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익산 함렬읍 금당사(주지 탄오)도 함렬 농협 주차장에서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함께 팥죽을 나누며 이웃과 함께 하는 세시풍속의 미덕을 이어갔다.

일부 시민들이 보시한 성금은 함열읍 사무소에 기탁했다.

익산 숭림사(주지 지광)도 동지법회 후 인근 마을의 경로당과 군부대등에 팥죽과 떡, 과일 등을 돌리고 이웃의 정을 함께 나누었다.

도영 스님은 "붉은 팥죽을 함께 나누며 묵은 것을 털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려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풍습을 우리 후손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전승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조계종 부산연합회' 창립

### 내년 1월 11일 발기인대회

부산의 대표사찰인 범어사를 중심으로 지역 조계종 종단의 힘을 결집하는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결성된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12월 20일 안국선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1월 11일 오후 4시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내년 4월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사부대중결집대회(가칭)' 개최를 결의했으며 지역불자들에 대한 교육불사와 학술, 문화, 복지, 장학사업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나은 기자






##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⑱

선원총림의 조직과 기구(7)-기타 소직(小織)

# 빨래 먹일 풀 쑤는 소임도 있다



소직 중 가장 중요한 직책인 요주는 중료를 관리한다. 사진은 해인사 지대방에서 스님들이 차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

선원의 중요한 소임은 전번에도 언급했지만, 6명의 지사(六知事)와 6두수(六頭首)이다. 이들이 주지(방장)를 보필하여 총림을 운영한다. 그러나 6지사와 6두수만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밑에 이들을 보좌하는 30여 개의 작은 소임이 있다. 이것을 소두수(小頭首) 혹은 소직(小織)이라고 한다.

소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은 중료(衆寮, 대중방, 큰방)를 관리하고 있는 요주(寮主)이다. 다른 말로는 요원(寮元), 요수좌(寮首座)라고도 한다. 중료(衆寮)는 추해(抽解, 옷을 풀고 쉬다), 차(茶), 간경(看經), 기타 잡무를 보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방' 또는 '대중방'이라고 한다. 선당(승당)이 좌선과 취침 등의 공간이라면 중료는 기타 일상생활 공간이다.

가방화주(街坊化主)는 '가방(街坊)' 또는 '화주(化主)'라고도 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화주(化主)와 같다. 화주란 원래 중생을 교화하는 교화주(教化主)의 준말로서, 곧 부처님이나 장로(長老) 또는 주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것이 변하여 화주가 된 것이다. 화주는 인가(人家)나 저자 거리로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불법의 인연을 맺어 줌과 동시에 보시(시주)를 받아 사원에서 쓸 비용을 마련하는 소임이다. 초기 선종사원은 재정적으로 빈약해 이들이 이름 그대로 거리(街)나 방방곡곡(坊坊曲曲)을 다니면서 화주를 한 적이 있었다.

**중료, 선원 소직 중 중요성 으뜸**

**혜능 선사도 행자시절 마두 소임**

화주(가방화주)는 다양하다. 조죽(朝粥, 아침은 죽 공양)꺼리를 화주해 오는 죽가방(粥街坊), 쌀과 보리를 화주해 오는 미맥(米麥)가방, 채소를 화주해 오는 채가방(菜街坊), 된장 등을 화주해 오는 장가방(醬街坊) 등이 있었다. 모두 일시적인 소임이었다.

다두(茶頭)는 다각(茶角)으로서 차를 끓이는 소임이다. 승당(僧堂, 禪堂)의 다각 외에도 수좌가 거처하는 당우인 수좌료(首座寮)의 다각, 유나료(유나의 거처)의 다각, 지객료(지객의 거처)의 다각, 고원(庫院)의 다각, 주지(방장)의 시자료 다각 등 각 요사마다 다두가 있었다. 각 요사의 다두는 보통 행자들이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을 '다두행자(茶頭行者)'라고 한다.

원두(園頭)는 원주(園主)라고도 하며, 채소밭을 관리, 담당하는 소임이다. 제 때 채소를 재배(栽培)해서 고원(庫院, 주방)에 공급해 주는 소임으로 〈칙수백장청규〉 열직잡무(列織雜務) 장에는 "근고(勤苦)를 꺼려하지 말고 몸으로 솔선해야 한다. 채소를 파종해야할 시기를 놓치지 말고, 물을 주고 길러서 주방에 공급해야 한다. 채소가 결핍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원두가 재배하는 채소는 주로 상추 · 순무우 · 근대 · 가지 · 호박 · 오이 · 해바라기 · 무 · 장다리 · 시금치 · 난향(蘭香, 香味料의 일종) · 결명자(決明子)이다. 결명자 씨앗은 간(肝)의 열(熱)을 내려서 눈을 밝게 하며 두통, 변비에도 좋기 때문이라고 한다. 농감(農監)과 같은 소임이다.

마두(磨頭)는 마주(磨主)라고도 하는데, 방앗간에서 쌀과 밀가루 등을 빻는 일을 담당하는 소임이다. 정미(精米) · 제분(製粉) 담당인데, 그 유명한 육조 혜능 선사도 행자 시절(노행자)에 8개월 동안 이 일을 했다고 한다. 6조혜능이 방앗간에서 디딜방아로 쌀을 찧는 장면은 더러 사찰의 벽화에도 나온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몇 백명이나 되는 대중들의 공양미를 혼자 디딜방아로 찧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총림에는 마원(磨院)이라고 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정미소가 있었는데, 정미(精米)나 제분(製粉)은 연애라고 하는 큰 맷돌을 사용했다. 맷돌에는 당나귀나 말을 이용하는 육연애와 물을 이용하는 수연애가 있었는데, 당나라 때는 주로 물을 이용하는 수연애를 사용했고, 송대에는 육연애를 사용했다고 한다. 〈칙수백장청규〉에는 "마두는 반드시 도심(道心)이 있는 사람을 택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데, 쌀 한 알, 곡식 한 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 마호(磨糊)라는 소임이 있는데 마호는 빨래에 먹이는 풀 쑤는 일을 담당하는 소임이다. 근래 책에서는 마호를 마두(磨頭)라고 한 곳도 있다. 제분을 하게 되므로 풀 쑤는 것까지 담당한 것인지, 아니면 정미, 제분 담당인 마두와 풀 담당인 마호가 다른 소임인지 분명하지 않다.

장주(莊主)는 농장을 관리하면서 일꾼들을 부리며 또 소작인으로부터 소작료를 받아들이는 소임이다. 송대에는 황실이나 사대부들로부터 많은 토지가 기증되어서 선종총림의 장원이 비대해졌다.

수두(水頭)는 욕실과 세면장 등에 물을 공급하는 소임으로 수도(水道) 담당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새벽 기상 때에 사용하는 온수를 끓여서 공급하는 일이다. 〈칙수백장청규〉 열직잡무 장에는 "반드시 오경(4시)에 탕(더운 물)을 끓여서 대중의 세수, 양치물을 공급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미두(米頭)는 대중의 양곡과 쌀 등을 맡아 관리하는 소임으로서 미감(米監)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공양미 지출을 담당한다. 공양주가 임의로 쌀을 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감이 상주 대중과 외부 손님 등을 계산한 다음 적정량의 양곡을 내 준다.

노두(爐頭)는 화롯불 담당이다. 당송대 선종사원은 온돌방이 없고 모두 마루였다. 여름에는 관계가 없었으나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냉기가 돌고 몸이 으실으실했기 때문에 화로를 피웠다. 냉기를 없애는 정도였는데 연료는 숯이었다. 숯불 화로인데, 음력 10월 1일에 설치하여 2월1일에 철수했다. 화로를 설치하는 것을 개로(開爐)라고 하고 철거하는 것을 폐로(閉爐)라고 한다.

탄두(炭頭)는 숯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소임인데 숯은 겨울철 화로(火爐), 난로(煖爐)와 차를 달이는데 사용했다.

화두(火頭)는 부엌에서 불을 때는 소임이다. 〈선원청규〉에는 "화두는 항상 불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중국은 물론 선종사원도 온돌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화두는 주로 고원(庫院, 주방)에서 불을 피우는 일을 담당하는 소임인 것 같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화대(火臺)와 같은 소임인데, 우리나라 화대는 각방에 불을 때는 소임이다. 주로 행자가 담당한다.

**육두는 6두수 일원인 요직**

**예불 및 법회는 종두 소임**

욕두(浴頭)는 목욕탕을 관리 담당하는 소임이지만 우두머리가 아니고, 우두머리인 지욕(知浴)이나 욕주(浴主)를 돕는 행자를 말한다. 욕두는 소직이지만 지욕이나 욕주는 6두수의 일원으로서 요직이다.

반두(飯頭) · 공두(供頭) · 공사(供司) · 공양주(供養主)는 모두 부엌에서 밥을 짓는 소임인데 명칭만 다를 뿐이다.

채두(菜頭)는 반찬 등 부식물을 만들거나 그 재료인 야채를 관리하는 소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채공(菜供)이라고 한다.

종두(鐘頭)는 조석 예불 및 법회 등이 있을 종을 치는 소임이고, 정두(淨頭)는 동사(東司) 즉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는 소임이고, 시두(柴頭)는 땔나무를 관리, 공급하는 소임인데 부목과 같다.

연수당주는 열반당주로서 간병을 맡고 있는 소임이다. 등두(燈頭)는 등불, 등유(燈油)를 관리, 담당하는 소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명등(明燈)이라고 한다. 주로 장명등, 무진등 등 불전(佛殿)이나 대중전 등 전각 앞에 등불을 관리, 담당한다. 정인(淨人)은 속인으로서 사찰의 잡무 혹은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이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anmail.net

### 선원 총림의 직책

소임에 대해서는 몇 차례 나누어 서술했는데, 전회(前回)까지 열거된 소임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했다.

| 직책 | 소 임 |
|---|---|
| 수좌 | 교육 담당으로서 수행을 지도함. |
| 감원 | 서무(庶務), 재무, 재정, 살림살이 등 선원의 운영을 총괄하는 소임. 송대에는 업무가 많아져서 도사(都寺) · 감사(監事) · 부사(副寺)로 분할됨. 가장 중요한 직책이 수좌와 감원임. |
| 도사 | 서무와 사무를 담당함. 오늘날 총무와 같음 |
| 감사 | 선원의 내부 살림을 담당 |
| 부사 | 재정 금전 출납 담당으로서 오늘날 재무와 같음 |
| 유나 | 총림의 모든 규율 · 규칙을 담당하는 소임. 기강(紀綱) 담당 |
| 열중 | 기강을 담당하는 소임으로서 유나의 이칭임. 〈선원청규〉 3권 "梵語維那 此云悅衆" |
| 서기 | 서장(書狀)이라고도 하는데, 각종 표문(表文) · 축원문 · 문서 · 서류 · 공문 작성 등 문한(文翰) 담당 |
| 지장 | 장주(藏主)이라고도 하는데, 장경각, 서고(書庫) 관리 담당 |
| 지객 | 행각승, 신도 등 접빈 담당. 모든 객을 접대, 안내하는 스님 |
| 지욕 | 욕주(浴主). 목욕탕 관리 담당 |
| 고두 | 창고를 관리하는 소임. 당말(唐末), 송초(宋初)까지는 미맥재화(米麥財貨)의 수지 출납 일체를 맡았음. 부사(副寺)의 전(前) 명칭 |
| 전좌 | 주방 담당. 주방장. 대중의 식사 일체를 관리, 담당함 |
| 직세 | 도량, 건물 보수, 관리 및 산림(山林) 관리를 담당하는 소임. 작무 담당 (참고: 어디에는 원주라고 한 곳도 있으나 잘못임) |
| 지전 | 불전(佛殿), 대웅전을 관리하며 불공, 의식을 집전하는 소임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2011년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시작 조심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묵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공급가격 별도상담)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부석사 터는 상서로운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서봉포란형이다.

최연의 산 이야기 <38> 소백산 6

# 봉황의 나래에 화엄이 꽃폈다

백두대간 태백산에서 소백산에 이르는 지형을 양백지간(兩百之間)이라고 한다. 태백산에 가까운 북쪽지역은 산이 험준하고 골이 좁아 사람이 기대고 살만한 터전이 별로 없다. 이에 반해 소백산에 가까운 남쪽지역은 산들이 수려하며 유장하게 뻗었다. 그 산줄기 사이로 널찍한 들판이 펼쳐져 있어 대대로 뿌리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양백지간은 동쪽으로 홍제사가 자리한 청옥산과 각화사가 있는 각화산 근방에서 시작된다. 양백지간은 예로부터 유불선(儒佛仙)이 함께 꽃핀 성지였다.

화엄종 중심도량인 부석사와 선풍을 크게 떨친 각화사,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들여온 안향선생을 배향한 소수서원과 선도(仙道) 수행자들은 깊은 산중 곳곳에서 끊임없이 수련했다.

〈택리지(擇里志)〉에 "각화사와 홍제암 사이엔 가끔 불법이 높은 중과 이상한 무리가 들어와 산다" 했는데 '이상한 무리'가 선도를 수련하는 사람들이다.

각화산 중턱에 자리한 각화사는 신비로운 도량으로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무애국사가 중창했다. 조선 정조 때는 800여 승려가 운집한 3대 사찰의 하나였다.

각화사에서 앞을 바라보면 멀리 봉화 쪽으로 수많은 산줄기들이 물결처럼 펼쳐진다. 신선들이 줄을 지어 늘어선 형상, 즉 신선족대(神仙族隊)이다.

그래서 불도(佛道)와 선도(仙道)가 하나로 만나 많은 성인(聖人)들이 나온다고 하였나 보다.

각화사 동편 산록에는 동암이라는 암자가 있다. 빼어난 수도 터로써 근세에 이름을 날린 선승들 대부분이 이곳을 거쳐 갔다. 동암 뿐 아니라 각화산 골짜기 곳곳에는 토굴에 은거하여 용맹정진 하는 스님들이 많이 있다.

각화사에서 산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태백산 사고지(史庫地)가 있다. 삼재(三災)가 침입하지 않는 길지라서 여기에 실록을 보관했다.

양백지간의 중앙에는 부석사(浮石寺)가 있다. 부석사는 태백산 아래 봉황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부석사는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창건한 사찰이다. 의상대사는 당나라로 유학 가서 중국 화엄종의 제2조 지엄 스님에게 8년간 화엄학을 공부하고 신라로 돌아와 화엄사상을 널리 폈고 화엄종의 도량들을 많이 지었다. 그중에서도 부석사는 화엄종찰(華嚴宗刹)로서 화엄종의 명실상부한 중심도량이다.

태백산에서 강원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며 힘차게 서쪽으로 뻗어가던 백두대간은 태백산과 소백산의 중간쯤에서 선달산을 솟아 올린다. 이곳 선달산에서 산줄기 하나가 백두대간과 갈라져 남쪽으로 향하는데 이 맥이 수십 번 솟구쳐 오르며 달리다가 우뚝 멈춰서서 크게 힘을 모아 부려놓은 봉우리가 봉황산이다.

봉황산(鳳凰山)은 봉황처럼 생긴 산 중턱에 부석사가 자리 잡고 있다.

부석사 터 형국(形局)은 상서로운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서봉포란형(瑞鳳抱卵形)으로 명당이다. 부석사의 조산(朝山)은 안동의 학가산인데 멀리 백 여리나 떨어져 있다.

백두대간과 봉황산, 학가산 사이에는 수많은 봉우리들이 뭉게구름처럼 펼쳐져 있다. 선달산을 지나 소백산을 거쳐 도솔봉에 이르는 백두대간에서 남쪽으로 갈라져 나온 산줄기들은 모두 우백호가 되는데 부석사를 겹겹이 감싸고 있다.

그래서 부석사가 기대고 있는 봉황산은 구름 위 하늘에 둥지를 튼 봉황이다. 이와 같은 형국의 명당을 신선이 구름 속에 앉은 격인 운중선좌격(雲中仙座格)이라 하는데, 풍수학에서는 이런 형국의 땅에는 많은 도인(道人)들이 나온다고 한다.

부석사 창건 이후 화엄사상을 배우러 몰려든 수가 무려 3000 여 명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중에는 아성(亞聖)이라 불린 고승 대덕도 열 명이나 된다. 그 외 오진, 지통, 표훈, 진정, 진장, 도융, 양원, 상원, 능인, 의적 등이 그들이다.

부석사에서는 영풍, 봉화, 안동, 예천, 문경 의 5개 군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풍수학에서는 부석사와 같이 시야가 넓게 펼쳐지면 그 터전의 기운이 오래 유지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의상대사의 화엄사상은 그 제자들에 의해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아득히 펼쳐진 산봉우리들을 바라보면 문득 가슴에 응어리진 것들이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느낌이 든다. 이런 곳에서 수행을 하면 뭇 중생들을 품어 안으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것만 같다.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 나무보일러 그리고

웬일일까? 경찰차가 집 앞 길을 지나 산 위로 올라간다. 경찰차의 모습을 따라 시선을 옮기니 윗집 임 씨네 집 연통 위로 연기가 꾸물꾸물 피어오른다.

임 씨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나무보일러를 놓은 때가 작년이었다.

"꽁짜로 마을 나무를 다 베어 때잖아. 저게 다 돈을 버는 거여."

일찌감치 나무보일러를 설치한 동팔이 아버지를 가리키며 비비 꼬아 욕을 하던 임 씨였다. 심야보일러 전기료가 갈수록 많이 나온다며 인상을 찌푸릴 대로 찌푸리곤 하더니 기어이 나무보일러를 놓았다. 그동안 동팔이 아버지가 '꽁짜'로 겨울을 나는 걸 보며 배 아팠던 날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셈이었다.

나는 몇 년 전에 나무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했다. 동팔이네가 '꽁짜'로 나무를 베어 땐다며 욕하는 소리가 나를 향한 소리이기도 하다는 걸 왜 몰랐겠는가? 비록 간벌작업이 끝난 곳에 가서, 베어놓은 잡목들을 가져다 때는 것이었지만, 산림청 공무원과 부딪혀 '이거 어디서 벤 것이냐'고 추궁을 당했던 경험도 씁쓸했다. 나무도 공짜가 아니었다. 무거운 나무를 옮기다, 부실한 허리가 '삐긋' 어긋나는 일이 일어나곤 해서 겨울 내내 허리통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눈이 쌓인 한겨울에 땔감이 떨어졌을 때도 있었다. 그땐 다른 도리가 없어 마을 입구의 아카시아 숲에 가서 나무를 벴다. 혹여 누가 볼까, 신고가 들어가지나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을 갖기도 했으니 그게 어찌 공짜였던가? 연탄보일러로 바꾸고 연탄을 들여 때니 세상살이가 편하면서도 경제적이었다.

**톱 소리가 예리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단 사람 사이가 어긋난 까닭이 크다.**

임 씨는 '꽁짜'로 겨울을 나는 게 신이 났던지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올해도 부지런히 딸딸이(폐차된 농업용 트럭을 개조한 차)를 몰고 다니며 나무를 날라다 땠다. 바라보면 확연히 보이는 윗집이다. 나무를 자르는 기계톱 소리가 '위윙' 수시로 들려올 때마다 나는 마음이 불편하다. 톱 소리가 예리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단 사람 사이가 어긋난 까닭이 크다. 임 씨는 축사를 짓고 소를 키우면서부터 나하고의 사이가 벌어진데다 요즘은 축사를 증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어 거리가 더욱 멀어졌다. 그런 나에 비한다면 심각하다는 표현을 써야할 만큼 사이가 벌어진 사람이 있다. 축사 위에 살고 있는 조 씨다. 두 사람의 집은 우리 집과 임 씨 축사 사이보다 더 가까울뿐더러, 십 년 전 조 씨가 이사를 와서 집 공사를 할 때 도와주긴 커녕 길에 공사재료며 돌등이 구르고 있다고 타박을 하면서 내내 원수 같은 사이로 지내왔던 내력이 합쳐져 더 벌어지기 어려운 지경이다. 두 사람의 다툼소리가 내 집까지 들려오는 날도 흔하다.

열 집이 살아가는 마을에서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 사건이 터졌는데도 마을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마을 중앙에 커다란 축사가 들어섰는데 마을 회의도 열지 않고 지나간다면 앞으로 얘기 나눌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반장에게 얘기를 하며 회의를 열어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보도록 했다. 반장은 그러겠다고 얘기했지만 회의가 열린다는 통보는 오지 않았다.

"왜 좋아하겠어? 다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오래 살아오다보니 말하기가 어려운 거지. 다들, 좋아하지는 않아."

어제, 오랜만에 놀러온 동팔이 아버지에게 축사 얘기를 꺼내니 내 시선을 피하며 한숨 쉬듯이 풀어놓은 말이다.



산책을 한다며 나갔던 아내가 들어서며 말한다.

"동팔이가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지금 경찰서에 있다고 그러네. 조 씨가 찔렀다고 그러는데, 윗집과 같이 나무를 하다가 함께 걸린 것 같아."

찌푸린 겨울 하늘 아래 무겁기 만한 날들이 흐르고 있다.

시인





수행자들의 정성으로 만든 자연발효식품

100% 순수 국산콩으로 만들었습니다.

(생산지 : 경북 영주)

우리 땅에서 자란 콩으로 빚은 복메주는,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얼이 베어있는 순수자연 발효식품입니다. 자연에 의존하여 만들어지는 전통 메주는 햇살과 바람의 숨결로 말려지고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숙성되는, 하늘의 기운을 머금은 자연이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특징

· 국산콩을 가마솥에 장작불로 삶아 나무틀에 한장 한장 정성으로 넣어 만든 수공메주 입니다.
· 발효균을 인공적으로 주입하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 자연발효로 띄워서 깊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금강정사 복식품

서울법당 : 02)742-0172 대구법당 : 053)425-3063
포항금정사 : 054)261-2231 울산법당 : 052)211-2161
부산법당 : 051)514-3566 대전법당 : 042)862-5539

황금의 불탑 미얀마!!!



미얀마를 알고 계십니까?

걱정 마세요.
미얀마 성지순례는 안전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성지순례 !!!

■ 중국성지순례
2월 21일 출발
지장보살, 관음보살 성지순례 1,290,000원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6일

■ 3월 2일 출발
미얀마성지순례 1,690,000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익티오 7일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 02)365-7747
[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47>

# 탐·진·치 끊음이 출가

학승이 물었다.
"근본을 버리지 않고 지엽말단을 좇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정도(正道)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훌륭한 출가승이로군."
학승이 말했다.
"저는 이제껏 무엇이 출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는 거야."
학승이 물었다.
"벗어나야할 집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바로 모름지기 출가해야 돼."
학승이 물었다.
"그를 편안하게 보낼 곳이 어디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장차 집에 앉아있어라."

問 不棄本不逐末 如何是正道
師云 大好出家兒
學云 學人從來不會出家
師云 歸依佛歸依法
學云 未審有家可出也無
師云 直須出家
學云 向什麼處安排他
師云 且向家裡坐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정도를 추구하는 것은 훌륭한 자세다. 특히 선문(禪門)에서는 지엽말단을 좇지 않고 근본으로 들어가야 한다. 지엽말단은 선악시비와 장단(長短)에 집착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현자들은 선(善)을 존중하고 악(惡)을 멀리하라 했다. 이것은 지엽말단을 좇아가는 것이다. 성인은 선악을 다 버리라고 말한다. 선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慈)'이기 때문이다. 성인은 근본을 좇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정도주의자이고, 평화주의자이다.

출가는 탐진치(貪嗔痴) 삼독을 벗어나는 것이다. 집[家]은 탐진치 삼독의 표상이다. 부모를 모시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다 보면 탐진치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출가하는 것이다. 출가자는 철저히 부처님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들끓는 마음을 잠재워야 한다.

조주 스님은 출가하라 해놓고 나중에는 되레 "그 집에 앉아있으라" 했다. 도대체 선사의 뜻이 무엇인가? 선사는 지엽말단을 좇지 않고 근본을 붙잡는다. 사람이 출가하고서도 여전히 세속적 명예와 재물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타는 이쪽 집을 버리고 화약이 가득한 저쪽 집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출가는 집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느 집에 앉아있던지 탐진치 삼독을 끊으면 그곳이 바로 진정한 출가이고, 곧 부처가 있는 곳이다.

학승이 물었다.
"눈 밝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본다고 합니다만 도리어 형태[色]도 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 따위 것은 두들겨 없애버려."
학승이 물었다.
"어떻게 해야 두들겨 없앨 수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힘쓰지 말라."
학승이 물었다.
"힘쓰지 않고 어떻게 두들겨 없앨 수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만일 힘을 쓴다면 바로 어긋나버리고 말아."

問 明眼人見一切 還見色也無

**마음이 힘 쓰면 깨달음은 멀어져**
**몸은 부지런히 마음은 푹 쉬어야**

師云 打卻著
學云 如何打得
師云 莫用力
學云 不用力如何打得
師云 若用力即乖

진리에 눈뜬 사람은 일체 모든 것에 변재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다르고 그의 영혼이 달라지므로 행동도 다르고 말도 다르다. 이렇게 되는 것은 껍데기를 육안으로 보지 않고 심안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리에 눈뜨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훌륭한 선지식을 정해 수년 동안 법문을 듣다 보면, 어느 날 저절로 눈이 밝아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중국의 배휴이다. 배휴는 최종 10년간 재상까지 지냈던 사람이고 평생 수십 권의 불서를 지었다. 배휴는 여러 선사를 찾아가서 법을 들었는데 그중에는 묵조선의 대가 굉지 스님도 찾아가서 법을 들었다. 나중에는 황벽 스님을 가장 존경했고, 수년을 다니면서 들었던 것을 기록해 〈전심법요〉와 〈완능록〉 2권을 지어서 재가 불자로서 선서를 남겼는데 오늘날 귀중한 선서가 됐다.

혹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7일간, 혹은 3개월간 잠도 안자고 힘을 쓰면서 용맹정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마음이 힘을 쓰면 쓸수록 깨달음은 더 멀어지는 법이다. 입문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쉬는 일이다. 몸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마음은 푹 쉬어야 한다. 깨달음에 대한 열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즉시 그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 마음이 그 무엇도 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문득 한 생각이 툭 터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토록 그대가 원했던 깨달음이다.

학승이 물었다.
"불조(佛祖)의 큰 뜻은 누구에게 적합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다만 요즘 사람에게 적합할 뿐이야."
학승이 물었다.
"그런데 어찌 얻지 못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누구의 잘못이겠는가?"
학승이 물었다.
"어떻게 이어받아야 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지금 아무도 이어받을 사람 없어."
학승이 말했다.
"그러면 의지할 것이 없어집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또한 노승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問 祖佛大意合爲什麼人
師云 只爲今時
學云 爭奈不得何
師云 誰之過
學云 如何承當
師云 如今無人承當得
學云 如麼即無依倚也
師云 又不可無卻老僧

불조의 뜻은 이어받는 것이 아니다. 이어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사기꾼이다. 도대체 무엇을 이어받았다고 헛소리를 해대고 있는 것인가? 금시(今時)에 불조의 뜻을 이어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대는 원래부터 부처이다. 부처는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다.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다. 종국에는 조주 스님도, 스승도 다 물리치고 하늘 아래 홀로 우뚝 서서 세상을 향해 포효하는 것이다. 불조는 그것을 원한다. 요즘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㉗ 조당집(祖堂集)

# 세계 최고 선종사서

〈最古〉

〈조당집〉 20권은 선종의 사서 가운데 하나로서 초기선종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오대의 남당 보대 10년(952)에 초경사(招慶寺)에 주석하고 있던 정수선사(淨修禪師) 문등(文燈)의 문하였던 정(靜)과 균(均) 두 선자가 편집하고, 여기에 문등의 서문이 붙은 모습으로 성립됐다. 정(靜)과 균(均)은 함께 설봉의존 - 보복종전 - 정수문등의 법계를 계승한 인물이다.

기존의 현색의 〈능가불인법지〉 - 두비의 〈전법보기〉 - 정각의 〈능가사지기〉로 계승되는 일련의 북종정통을 주장하던 전등사서에 비해, 〈조당집〉은 801년에 성립된 지거의 〈보림전(寶林傳)〉 10권을 계승해 과거칠불로부터 시작해 서천의 28대 및 동토의 6대를 거쳐 청원행사 이하 제8대 곧 설봉의존의 손제자, 그리고 남악회양 이하 제7대 곧 임제의현의 손제자에 이르기까지 257명의 전등법맥(傳燈法脈) 및 그 기연어구(機緣語句)를 수록하고 있다.

〈조당집〉은 일찍이 남북 양종의 정통문제를 남종의 정통으로 해결하고 그 계보를 서천 28대조사 및 동토 6대조사로서 선종의 삼삼조사(卅三祖師)를 확정한 것으로 801년 성립된 〈보림전〉을 계승하고, 이후 1004년 성립된 도원의 〈경덕전등록〉으로 전승되는 전등사서의 근거가 됐다. 〈조당집〉은 이후 〈전법정종기〉 〈속전등록〉 〈천상관등록〉 〈가태보등록〉 〈연등회요〉 〈오등회원〉 등 전등사서의 모범이 됐다.



〈고려대장경〉 제45권에 수록된 〈조당집〉 인경본
/ 고려대장경연구소 자료

## 257명의 전등법맥과 어구 수록
〈傳燈法脈〉
## 신라 유학승 기록도 실려

〈조당집〉의 성격은 사전(史傳)보다는 수록된 선자의 법요(法要)를 집대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본서는 오대에 성립됐지만 중국에서는 비교적 일찍이 그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다만 명교대사 설숭(1007~1072)의 〈협주보교편〉에 〈조당집〉이라는 명칭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1세기 말엽 까지는 중국에서 유통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고려시대 고종 32년(1245)에 판각됐던 〈고려대장경〉 보유편에 수록됐던 판본이 20세기에 와서 새롭게 발견됐다. 그 중간에 전혀 주목되지 못한 까닭인지 〈조당집〉의 이본은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 유통본으로는 영인본 〈고려대장경〉 제45권에 수록돼 전한다. 이후 일본의 야나기다 세이잔 교수에 의해 오랜 연구 끝에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조당집〉에 수록된 선자들 가운데는 선종오가 가운데서도 임제종 및 위앙종과 관련된 기록이 돋보인다.

〈조당집〉은 제1권에는 과거칠불로부터 인도의 제16조 라후라까지, 제2권에는 제17조 승가난제로부터 동토의 조계혜능 및 총지비구니까지, 제3권에는 혜융선사로부터 남악회양까지, 제4권에는 석두희천으로부터 약산유엄까지, 제5권에는 태전 화상으로부터 덕산선감까지, 제6권에는 투자대동으로부터 석상경제까지, 제7권에는 협산선회로부터 설봉의존까지, 제8권에는 운거도응으로부터 상람화상까지, 제9권에는 낙포원안으로부터 나산 화상까지, 제10권에는 현사사비로부터 장경혜릉까지, 제11권에는 보복종전으로부터 녹문까지, 제12권에는 조산하옥으로부터 선종 화상까지, 제13권에는 초경도광으로부터 산곡 화상까지, 제14권에는 마조도일로부터 장경회휘까지, 제15권에는 서당지장으로부터 방온 거사까지, 제16권에는 남전보원으로부터 석상성공까지, 제17권에는 대자환중으로부터 신라의 쌍봉도윤까지, 제18권에는 조주종심으로부터 앙산혜적까지, 제19권에는 향엄지한으로부터 자복정수까지, 제20권에는 신라의 요오순지로부터 미령 화상까지 도합 257명 대한 기록이다.

〈조당집〉 제17권 및 제18권에는 특히 당나라에 유학했던 신라의 유학승들에 대한 기록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나말여초 선자들의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요오순지(了悟順之: 807~883)에 대한 법어의 기록은 순지어록으로 불릴만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말 여초 중국의 조사선법을 수입한 사람들 가운데 중국 선종오가의 위앙종풍을 수입한 사람으로 오관산 서운사(瑞雲寺)의 요오순지가 있다. 순지화상은 중국 위앙종의 앙산혜적(仰山慧寂) 선사의 법을 이었다. 이로써 중국의 남양혜충 국사로부터 탐원응진 - 앙산혜적 - 요오순지로 전승되는 96종의 상징과 기호 등으로 선법의 도리를 드러낸 표상현법(表相現法)을 더욱 발전시켜 선법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 가운데 순지화상의 표상현법에는 첫째는 사대팔상(四對八相), 둘째는 양대사상(兩大四相), 셋째는 사대오상(四對五相) 등 17가지 형상이 있다. 또한 화엄의 도리에 입각해 증리성불(證理成佛)·행만성불(行滿成佛)·시현성불(示顯成佛) 등 〈삼편성불론〉이라는 독특한 이론과 실천이 결부된 가르침을 제시했다. 이 〈삼편성불론〉에 대해 그것을 실제로 증득해 나아가는 방법을 3가지로 제시했는데 이것이 곧 삼증실제설(三證實際說)이다. 삼증실제란 첫째는 돈증실제(頓證實際)이고, 둘째는 회점증실제(廻漸證實際)이며, 셋째는 점증실제(漸證實際)이다. 이처럼 순지는 원상(圓相)이라는 나름대로 독특한 방편을 통하여 해동에 선풍을 진작한 인물이다.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 (사) 한국불교 연화조계종 입종 안내

본 종단은 문체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제2010-17호)를 받은 정법수호 종단입니다.
종헌 제80조에 의거 사설사암을 창건한 승니 및 신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과 상속권을 영구히 보존합니다. 제방에 참신한 종도들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입 종 서 류**
- 법복 착용한 반명함판 사진 4매
- 주민등록등본 1통
- 법당 내외 사진 각 1매
- 주민등록 앞뒤 복사 1통
- 입종원서(종단양식)

**행 자 모 집**
승려(재가승 포함)가 되고자 하시는 분이나 사암(포교원)을 운영하시려는 분의 교육을 위해 본산에서 행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총무원에 문의)

**교 부 서 류**
입종 완료와 동시에 주지 임명장, 사찰등록증, 승려증, 본종 사단법인 등록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수 계 득 도**
본 종단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득도, 사미(니), 비구(니) 수계를 미루어 오신 스님들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금강계단을 설단합니다. (총무원에 문의)

입종문의 : 전화 054)231-3101(총무원) / 팩스 054)292-9301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474번지 구운사
(사)한국불교 연화조계종 총무원장 보월 합장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 보 건 식 품 처 방 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 교 육 과 목 | 교 육 기 간 |
|---|---|
|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br>·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br>※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 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 14주 과정<br>토요일 반 |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호남교육원 063-288-5623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441-0111 전북익산교육원 063-854-1060 제주교육원 064-755-7588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광주교육원 062-672-5432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前 조계종 교육원장·청암사 주지 **청화 스님**

# "바람이 향기 담으려면 꽃 속 지나야"



**청화 스님**은 … 1962년 출가. 1977년 〈불교신문〉, 197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청평사 주지, 조계종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역임. 지금은 정릉 청암사에 주석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시집〈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산문집 〈돌을 꽃이라 부른다면〉〈향기를 따라가면 꽃을 만나고〉 등이 있다.

흰 눈이 분분히 내리는 날, 정릉골짜기를 찾았다. 흰 나비처럼 허공을 날아오르던 하얀 눈은 나무 위에 쌓이지 않는다. 나목을 비롯하여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정릉골짜기에 금빛 바람이 불고 흰 빛으로 빛나는 풍광을 상상해 보았다.

시간에 녹아 사라지는 것이냐/ 잠시 쌓이다가 눈이 부시다가/ 어느덧 물이 되는 덧없는 흰 눈//그렇구나!/한 다발 꽃을 들고/ 웃고 있는 너도 흰 눈/무너진 돌담에 기대어/울고 있는 나도 흰 눈// 인생은 모두가, 모두가 흰 눈.

청화 스님의 시 '흰 눈' 전문이다. 육각형의 결정체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눈은 종내는 녹아서 물이 되는 덧없음을 노래하면서 인생 또한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인생이란 흰 눈처럼 덧없는 것이니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포근하고 넓은 마음으로 살라는 의미로 읽었다.

낡은 목현판에 써진 '청암사'라는 글자를 보고 사찰임을 알 수 있었다. 여염집과 다름없는 청암사 뜰에는 작은 석등이 하나 서 있을 뿐, 사찰의 상징물이라고는 없었다. 청화 스님의 청빈과 검소함을 단청으로 삼은 절이다. 소박한 스님의 처소에는 다양한 장르의 서책들이 한 벽면을 채우고 있다.

## 세상 변화시킨 붓다처럼 시대정신으로 살아야

서책들을 둘러보면서 청화 스님의 문학에 대한 열정을 읽을 수 있었다. 스님은 등단 31년 만에 시집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세상에 내놓았다. 조계종 교육원장 소임을 마치고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은 '시(詩)를 마음껏 쓰는 것'이라 했다. 한 때의 열병처럼 스쳐지나가지 않고 평생을 두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문학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두고 청화 스님은 '전생의 업'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면서 웃었다.

소년시절부터 사랑방에 굴러다니는 책을 보면서 문학에 매료되었다. 소설을 읽으면 소설가가 되고 싶었고, 시를 읽으면 시인이 되고 싶었다. 소년시절부터 굉장히 감성적이었고, 계절의 변화에 예민하고 섬세하였다. 이러한 아이의 감수성을 조금이라도 아는 부모라면 무언가 뒷바라지를 했을 터인데 주변 환경은 그러지 못했다. 한학을 공부했던 아버지는 사회진출을 꿈꾸었지만 지독한 좌절을 맛보았고, 아버지는 '공부 같은 것은 별 소용없다'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아버지는 식견(識見)이란 오히려 농사를 짓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소년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한학을 가르쳤다. 하지만 문학에 들떠 있던 소년은 신식 공부를 하고 싶었고 끊임없이 읽고 싶고, 쓰고 싶은 욕망에 시달렸다. 낮에는 농사일을 돕고 밤에 짬을 내어 책을 읽기 위해 호롱불이라도 켤라치면 그것마저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주변 환경이 소년을 출가의 길로 이끌었다.

스님은 〈출가〉라는 시에서 '출가는/ 먼 물소리 따라/ 물 찾아가는 길… 출가는/저기 저기 저 설산 너머의/눈부신 물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노래했다.

청화 스님은 문학에 대한 열정만 뜨거웠던 것이 아니었다. 암울했던 시대에 민주화운동에 앞장섰으며 기형적인 정치에 의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했으며, 저 낮은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민중들의 삶에 가슴 아파하는 또 하나의 뜨거운 가슴을 지녔다.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고 말했던 유마거사처럼 청화 스님 또한 민중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다. 먼 물소리 따라 물을 찾아 나선 출가의 길, 그 길에서 여러 갈래의 물줄기를 만난 것이다. 세인들의 고통에 대해 애써 외면하지 못하는 스님의 여린 가슴이 사회참여에 발을 내딛게 했을 것이다. 수행자의 사회참여에 대해 사시의 눈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 않느냐고 여쭈었다.

"스님들도 사회적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살아있는 불교가 됩니다. 불교가 사회와 더불어 숨 쉬는 생명체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자(隱者)적인 그런 수행자의 삶을 산다면 불교는 사회와 동떨어지고 결국은 소외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세속을 떠난 사람이, 출가한 사람이' 하면서 자꾸 섬이 되려고 하는데 이것은 소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대승이란 보살의 원력으로 세간을 위해 회향하는 것인데, 자꾸 수행자의 이름 속으로 숨으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어떤 것이 중생 제도인지'를 물었다. 굳이 답을 들으려고 던진 물음이 아니라는 듯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어갔다.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지 않을 경우 고통 받는 사람들 역시 중생입니다. 부처님은 그 당시 인도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카스트제도를 부정하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어요. 카스트제도가 있는 한 인권이란 것이 있을 수 없지요. 인권이란 특수층에만 있는 것이지, 노예계급이나 천민들에겐 인권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여성들은 가정에서 말할 자유, 행동의 자유도 박탈당한 채 남녀차별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카스트제도의 폐지와 여성해방운동을 펼쳤어요. 카스트제도나 여성차별은 당연한 것으로 행해졌던 시대에 부처님의 이러한 사회참여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어요. 여성차별에 대해 관심을 가진 부처님은 먼저 '어머니의 은혜'부터 부각시켰고 차츰 그 범위를 넓혀나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하게 설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고, 사회를 변화시켜나갔어요. 부처님은 결코 자신의 공부에만 안주하지 않고 시대정신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부처님이 세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연민을 가지고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람직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자 무던히 애쓴 흔적이 〈아함경〉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음'을 강조했다. 근본불교사상 위에 대승사상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러한 것이 바탕이 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한다면 대승불교는 공허한 사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부처님의 육성이 오롯이 담겨있는 〈아함경〉은 현실생활에 유익한 내용들이 담겨있기에 청화 스님은 〈아함경〉〈법구경〉〈숫타니파타〉 등 초기경전을 인용하여 법문하기를 좋아한다. 부처님의 교법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감로수도 되고 캄캄한 밤길에 등불도 되고 갈 곳을 모르는 곳에서는 안내자도 되는 것이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보배란다.

"좋은 법문이란 듣는 사람이 감동하고 법문을 통하여 삶에 대한 강한 지침도 발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내고 있는 세인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추상적이고 불교사상적인 것만 이야기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풍요와 빈곤, 풍요와 오염, 개발과 보존 등의 역설로 존재하는 환경문제는 21세기의 중대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요즈음 논쟁의 한복판에 있는 4대강 개발에 대해 여쭈었다. 4대강 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반대관점이 다를 수도 있다면서 "자연은 자연그대로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에 선 것이라 한다.

## 자연 훼손 않음이 인간·자연 공존 조건

"4대강 사업이 운하인 것은 명백해요. 운하가 아니라면 보를 쌓을 필요가 없고 수심을 6미터로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을 살리려면 강을 오염시키는 주변시설물을 철폐하고 오염 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더 급하지 않을까요. 운하를 만들면 주변에 위락시설을 설치할 것이고 그야말로 강을 망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은 4대강 개발은 '물그릇을 키우는 것'이라면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스님은 고시조 한 편을 읊었다.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山)절로 수(水)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그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라.

"절로란 인위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을 배재한 것입니다.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것에는 인간의 탐욕이 개입되어 있어요. 개발이라는 포퓰리즘(populism)은 경제성장을 빌미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개발이 불가피한




# “욕구에 만족이란 없다. 오직 갈증 뿐…”



청화 스님은 물질에 바탕을 둔 행복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어 믿을 것이 못 된다고 강조했다.

것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의 삶과 지금의 삶과는 천지현격의 차이가 있어요. 한국전쟁 직후의 가난한 삶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지금의 삶을 비교했을 때, 많이 가진 만큼 행복지수가 높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낮아진 상태입니다. 물론 행복지수가 더 높아진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5만불 시대가 온다고 가정하면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다 행복이 넘치는 얼굴이 될까요? 지금 선진국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욕구충족에는 만족이란 것이 없고 계속 갈증만 생겨나는 것인데,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목표로 삼고 있어요. 이젠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람다운 삶,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가치를 크게 발현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소유 그 자체가 목표가 되고, 욕망만 추구하는 사회가 되다보니 인심이 각박해지고 심신이 점점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스님은 물질에 바탕을 둔 행복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유리알과 같은 것이기에 위태롭고 믿을 것이 못된다고 했다. 물질의 소유에서 오는 행복, 승리와 지배에 의해서 얻는 행복, 사랑에 의한 행복, 명예와 권력에 의한 행복 등 제각기 추구하는 행복의 종류는 다양하다. 하지만 부처님은 ‘진리에 의해 행복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진리가 아닌 것은 사람을 배신하고 끝내는 변하고 덧없기 때문이다. 진리는 부귀처럼 왔다가는 것이 아니며 현실적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기에 금강석처럼 단단한 행복을 주는 것이다.

“진리에 의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는 번뇌를 소멸해야 합니다. 번뇌는 무명의 산물인데, 번뇌

## 욕망·소유가 목표 아닌 행복 자체를 고민해야

가 소멸된 마음에는 반야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은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의 삶에 활력소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재앙과 파멸의 독이 되기도 하므로 욕심에는 수용과 자제가 필요합니다.”

‘향 하나 사르며 비로소 흉터 없는 나를 만난다는, 향 하나 사르며 나를 만나 번뇌가 없는 계단을 경건히 오른다’는 청화 스님에게 특별히 현대불교 신문 독자들을 위한 법문 한 마디를 청했다.

수향죽변 유출녹 풍종화리 과래향
水向竹邊 流出綠 風從花裏 過來香
물이 대나무 숲가를 흐르니 푸르고
바람이 꽃 속을 지나오니 향기롭구나.

“물은 여기저기 아무데나 갈 수 있는데 그 물이 어쩌다 푸른 대나무숲가를 흐르니 대숲이 가지고 있는 푸른빛을 띠게 되었어요. 물은 대숲의 푸른빛을 동경하였기에 푸른빛을 띠게 된 것입니다. 이리저리 흔들고 지나가는 것이 바람인데 바람의 소망은 향기를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향기는 꽃에서만 나는 것이니 바람이 향기를 담으려면 꽃 속을 지나와야 합니다. 말하자면 대숲과 꽃은 하나의 환경을 상징하는 것이며 누리고자 하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물 혹은 바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사회는 푸른 대숲과 향기를 내뿜는 꽃밭이 많아야 합니다. 자신이 소망하는 대숲과 꽃밭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스스로가 만들어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앞에 벌어진 사회문제는 남의 문제도 아니요 남의 탓도 아님을 자각하라는 말씀이다. 내 한 마음이 보태어져 이 사회에 향기를 낼 수도 있고 밝은 푸른빛을 낼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청화 스님은 푸른 솔처럼 풋풋한 청년정신을 지녔는가 하면 맑고 명징하고 담박하다. ‘저마다 삶이 어떻다 해도, 목숨은 끝내 흰 꽃을 피우는 것’이라는 스님의 시 한 구절을 가슴에 새기고 싶다.

문윤정 수필가(본지 객원 기자) blueyon6@hanafos.com



석길암의 **한국불교 승려열전**

## 태허성숙 (太虛星淑, 1898~1969)①

중생이 세상에 부닥쳐가는 모양새는 제각각이다. 중생이 세상에 바라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제각각이니 사는 모양새 역시 제각각인 것이다. 자연히 스님들이 세상에 뛰어들어 그러한 중생들에게 부닥쳐가는 모양새 역시 제각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뻔히 그런 줄 다 아는 데도, 태허 성숙(太虛星淑), 그를 만나면 고민스럽다. 승려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리고 승려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근현대의 많은 고승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자를 남겼다. 아니 그들의 삶을, 그들의 언어를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바램을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다. 그런데 그러한 각인들의 틈새를 당연한 듯이 빠져나가버린 이들 역시 적지 않다.

그런 이들 중의 한 분이 바로 태허 성숙 스님이다. 법호가 태허(太虛), 법명이 성숙(星淑)이고, 아호가 운암(雲巖)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태허라는 법호를 기억하지 못한다. 오히려 독립운동가,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더 많이 기억되는 존재가 바로 그다. 하지만 그러한 직함조차도, 그가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조차도 사라진 기억에 불과한 존재가 바로 그이기도 하다.



태허 스님

## 국가의 독립유공자 지정 거부했던 선지식

광복 후 귀국한 고국 땅에서, 독립한 고향 땅에서 집 한 채 없어서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 얻은 친구 집 방 한 칸에 기거하면서도, 나라를 빼앗은 일본군의 장교 출신이었던 대통령에게 독립운동 사실을 인정받기를 거부해 독립유공자조차 되지 못했던 이.

스님은 태허라는 법호보다는, 성숙이라는 법명보다는 님 웨일즈의 〈아리랑〉에 나오는 “붉은 승려 김충창”의 실체로 세상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인물이고, 세상의 관심 또한 그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는 1898년 3월10일 평안북도 철산군(鐵山郡) 서림면(西林面) 강암동(江岩洞)에서 태어났다. 자식이 없어 고심하던 어머니가 미륵부처님께 3년간 기도한 끝에 본 아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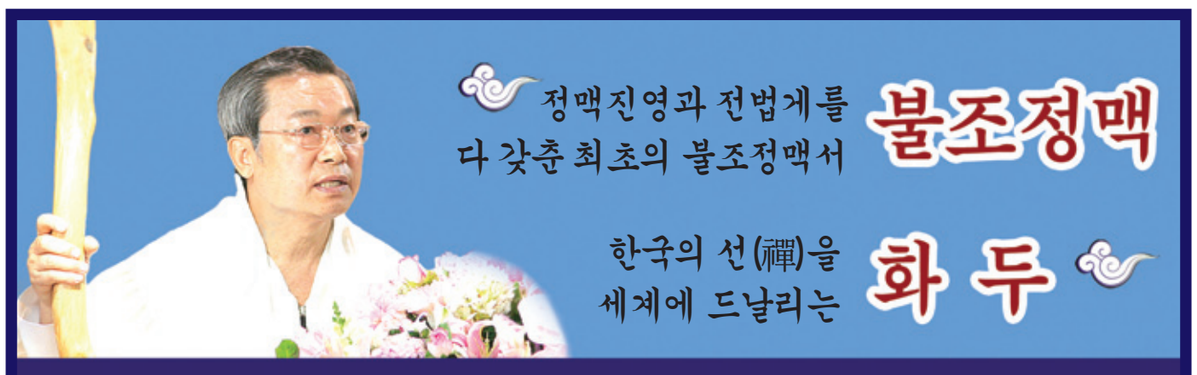
스님의 출가는 사실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전국에 독립학교가 설립되었는데, 그의 고향에도 대한독립학교가 세워졌다. 스님은 10살 때 그 곳에 입학하여 애국심을 키웠다. 그러나 국권 상실로 학교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일본의 보통학교가 들어서자, 학교에 다니는 대신 집에서 조부로부터 직접 한문을 배웠다. 이런 그에게 독립운동의 열의를 다져 준 것이 그의 삼촌이었다. 만주로 망명,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삼촌으로부터 독립군 얘기를 들으며 독립운동에 가담할 것을 결심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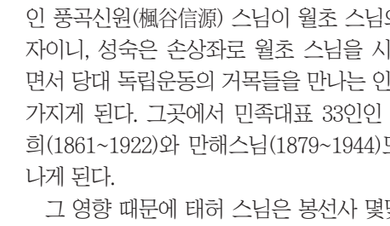
1916년 집안의 땅 판 돈을 몰래 들고서 그는 만주로 향한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향해 나섰던 길이 출가길이 되었다. 중국어를 몰라 원산 뱃길을 통하는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평안도 사투리 때문에 일본군에 붙잡혀 여관에 머물게 되었고, 그 여관을 벗어나기 위해 택한 방법이 마침 만난 스님을 따라 양평 용문사로 향하게 되고, 그 길이 출가길이 되었던 것이다.

왜 용문사에 주저앉게 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하지만 2년 여를 용문사에서 수학하고, 다시 봉선사로 옮겨 3년을 공부한 끝에, 당시 봉선사 주지로 주석하고 있던 월초 스님(月初 巨淵, 1858~1934)에게서 ‘성숙’이라는 법명을 받고 비구계를 수지하게 된다. 이로 보아 독립운동의 열의에 가득 차 있던 청년을 주저앉힌 무언가를, 스님은 불교에서 발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월초 스님은 근대불교교육의 선구자로 불리는 인물인데 대한제국 황실과도 적지 않은 인연을 가졌던 분이다. 스님의 은사인 풍곡신원(楓谷信源) 스님이 월초 스님의 제자이니, 성숙은 손상좌로 월초 스님을 시봉하면서 당대 독립운동의 거목들을 만나는 인연을 가지게 된다. 그곳에서 민족대표 33인인 손병희(1861~1922)와 만해스님(1879~1944)도 만나게 된다.

그 영향 때문에 태허 스님은 봉선사 몇몇 스님들과 경기도 양주와 포천 지역에서 독립선언서를 돌리고, 사람을 모아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덕분에 서대문 감옥에서 2년간 옥고를 치러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스님에게는 모든 것을 놓아버린 보살만행의 출발점이었을 뿐이었다.

석길암(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센터 교수)


“일이 잘 안 풀리시죠?”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성적은 안 오른다 구요?”
“평소엔 잘 하다가 시험만 보면 꼭 실수가 나오나요?”
“이유 없이 자꾸 아프시다 구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아지질 않는다 구요?”
“사업을 벌이는 족족 망한다 구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사주는 아주 좋다는데 왜 그러는지 답답하시다 구요?”

유남 탁대영 창천 백구빈

그렇다면 이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잘못 바꾸면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돼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제 한자 중심의 작명, 수리학 중심의 작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름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미성 이름 연구원에서는 세계최초로 30여개 성명학을 집대성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작명을 합니다.
“이름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름 속에 희망, 꿈, 성공, 건강, 재물, 실패, 좌절, 절망, 부도, 파산,불행 등 모든 운명적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름의 중요성에 대한
<무료 강연회>
매주 화, 목, 토
현재 불교 TV 광고 중
(10:30, 14:00, 18:00, 23:00)

<상담·문의전화>
1600-0063

자미성 이름 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 3차 빌딩 409호

# “1000원 법보시로 이웃에 희망을”

보시에는 대표적으로 재시(財施), 법시(法施), 무외시(無畏施)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보시를 하는 이가 수승한 공덕을 쌓는 이유는 법보시를 받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 깨어나 무명을 밝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도 667명의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해 군법당 · 교도소 · 경찰서 · 교육기관 등 894곳에 1363부의 현대불교신문이 발송됐습니다.

## 교도소·군법당·병원 등 894곳 전달
## 바른 삶 살게 해주는 좌표역할

### # “무거웠던 한 해. 현대불교신문 보며 참회”

경○○씨 (군산 장애인 교도소)

무겁고 힘들었던 올 한해 법보시를 받아 구독하기 시작한 현대불교신문 덕분에 제 삶에 부처님의 진리가 배어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신문을 통해 대행 스님 등 여러 큰 스님의 법문을 듣게 돼 행운이라 생각하며 참회하면서 출소하는 그 날까지 선행하면서 성불하겠습니다.

### # “다음 주가 기다려집니다”

전○○씨 (공주치료감호소)

여기 있는 동안 현대불교신문을 읽게 됐습니다. 큰스님들의 법문과 수행 정보, 불교소식 등을 접해서 좋고 특히 대행 스님의 ‘길을 묻는 이에게’라는 코너가 제 가슴에 너무나 와 닿아 작년에 정기구독을 신청했습니다.

불교를 통해 죄를 참회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매일 108배를 하고 불교를 틈틈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주 현대불교신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 # “수행도 점검하고 불교 외 분야 두루섭렵 좋아”

연꽃마을 박모 어르신

현대불교에 연재되는 글들을 읽는 재미로 시간을 보냅니다. 신문이 도착하면 불교계 종합소식을 읽은 뒤 ‘선지식을 찾아서’ ‘믿음과 닦음’ ‘함께 가요 강의실’ ‘길을 묻는 이에게’ 등을 주로 읽습니다.

조주 선사와 제자의 문답 해제를 보며 나의 수행도 점검하고 큰스님들의 법문을 읽으며 가슴에 새길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함께 가요 강의실에는 불교미술, 문화, 천문학, 과학 분야 등 불교 외의 분야도 다루고 있어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 # “뒤늦게나마 불교 귀의 다행”

김○○씨 (여주교도소)

보내주신 신문은 동료들과 돌려가며 잘 보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불교에 귀의할 수 있기 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며, 더욱 더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부처님 제자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출소하게 되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법보시 발송처

| 구분 | 발송처 | 발송처 | 발송부수 |
|---|---|---|---|
| 경찰 | 경찰서 | 164 | 168 |
| 교화기관 | 감별소 | 1 | 3 |
| | 교도소 | 68 | 263 |
| | 교정청 | 1 | 3 |
| | 구치소, 감호소 | 13 | 82 |
| | 소년원 | 10 | 30 |
| 군부대 | 군법당 | 315 | 398 |
| | 군병원 | 10 | 50 |
| 복지단체 | 기업복지재단 | 6 | 6 |
| | 노인복지 | 23 | 24 |
| | 복지관련대학 | 30 | 30 |
| | 복지단체 | 45 | 46 |
| | 복지협의회 | 4 | 4 |
| | 부랑인복지 | 3 | 3 |
| | 아동복지 | 23 | 23 |
| | 의료기관 | 15 | 61 |
| | 장애인복지 | 10 | 10 |
| | 지역복지 | 20 | 20 |
| | 청소년복지 | 10 | 10 |
| 관공서 | 관공서 | 8 | 14 |
| 문화재 | 박물관/문화재연구소 | 8 | 8 |
| 교육기관 | 불교학생회 | 107 | 107 |
| 합계 | 23건 | 894 | 1363 |
| 1년 합계 | | | 70,356 |

## *1구좌 1000원으로 자비와 지혜의 법등 밝히세요*

‘현대불교’는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를 지켜 가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자 군부대,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병원 및 사회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 불국토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700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해 매주 1363부의 신문이 군장병 · 교도소 수형자 · 경찰 병원 등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00여만 여부의 신문이 포교사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금강경〉에서 이르기를 “사구게 하나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공덕이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로써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법보시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참여방법**: 자동이체는 관리부로 전화신청하시고, 온라인 입금은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금 후 전화주세요)

**#법보시 동참 계좌번호(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038-25-0008-365

농협 053-01-269050

**#법보시 동참 문의 및 안내**

현대불교신문사 관리부 (02)2004-8200(대표) (02)2004-8212(직통)

팩스: (02)737-0697

## 현대불교 법보시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강덕순 강명옥 강명자 강민정 강수옥 강순희 강승민 강영내 강욱섭 강은심 강정아 강종구 강춘계 강태옥 강태화 강황진 경연혜 계미영 고경옥 고재숙 고필선 공병길 공주지원 공평근 곽명순 곽순정 곽우진 곽은아 곽춘자 광주지원 구명보 구자삼 권경숙 권경자 권두상 권명아 권미경 권익중 김강산 김경숙 김경용 김경화 김경희 김계숙 김교도 김규순 김규연 김근숙 (김무진행) 김금옥 김기석 김기성 김기홍 김나령 김나리 김나영 김남규 김남오 김다정 김덕순 김동민 김동찬 김명란 김명숙 김무재 김문윤 김미래 김미리 김미원 김민재 김민지 김방옥 김병일 김병희 김봉란 김봉애 김비연 김상구 김선녀 김선아 김선엽 김선옥 김선임 김성길 김성수 김수옥 김숙자 김숙희 김순교 김순남 김순복 김순분 김순희 김승재 김승호 김승훈(2) 김신숙 김안숙 김연수(2) 김영선 김영성 김영숙 김영애 김영예 김영옥 김영임 김영자 김영출 김영팔 김영현 김영환 김옥선 김옥수 김옥자 김용만 김용범 김용석 김용순 김용호 김윤경 김윤관 김윤성 김윤자 김은기 김의식 김인순 김인태 김장원 김재방 김재철 김재희 김정규 김정단 김정덕 김정렬 김정석 김정아 김정아 김정애 김정헌 김정혁 김정환 김종미 김종보 김종영 김중철 김지숙 김지영 김지혜 김진금 김진선 김진영 김창연 김채란 김철수 김철종 김춘희 김태수 김태윤 김학수 김학수 김한구 김한솔 김향숙 김현국 김현신 김현진 김현진 김현화 김형중 김화영 김화일 김효래 김효례 김효상 김희주 김희진 나귀례 나민자 나양균 나양균 남선자 남주희 노성일 노성희 노승현 노실호 노영애 논술문화 단영숙 대지행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도이환 도태순 류지연 류진훈 류해창 목포지원 문경숙 문수홍 문숙희 문영희 문임숙 문정희 민경애 민미자 민정원 박건웅 박경국 박경수 박경애 박경옥 박경자 박경환 박경희 박공임 박귀자 박기숙 박기임 박남순 박말이야 박명란 박무주행 박미자 박봉균 박봉기 박봉순 박봉영 박상돈 박상섭 박상현 박성준 박수경 박숙자 박숙희 박순애 박순자 박순희 박승목 박연숙 박연신 박영숙 박영준 박영춘 박옥경 박옥남 박용욱 박원희 박은미 박은주 박인서 박인선 박장미 박장미 박재석 박정노 박정부 박정숙(2) 박정자 박정희 박종임 박종희 박주찬 박주호 박준용 박지연 박진우 박찬 박철홍 박춘미 박춘봉 박태균 박태수 박한기 박향옥 박현동 박현주 박현주(2) 박형숙 박형채 박혜경 박혜리 박혜선 박화재 방명극 방명섭 방미애 방순자 방장수 방재순 배광자 배민화 배삼순 배영숙 배임선 배정임 백경훈 백규현 백영규 백영목 백지은 백훈규 법천스님 변영희 봉현주 상현스님 서경자 서귀희 서미옥 서영주 서영호 서예숙 서의숙 서정우 서청자 서호준 석영수 선덕스님 설정수 성민자 성불사주지스님 소충호 손문영 손문철 손종헌 송동호 송연희 송용관 송은경 송정구 송종화 수선화보살 신남선 신덕근 신동호 신상균 신선자 신수영 신수호 신영찬 신영희 신용례 신용순 신정우 신조현 신주호 신창순 신희순 심경우 심광화 심길현 심숙희 심영애(2) 심영자 심원식 심현보 안광기 안병윤 안병태 안선환 안은희 안정은 안중희 안형준 안효진 양세욱 양순조 양연숙 양연희 양영모 양영순 양익수 양현주 양흥용 엄경미 엄재욱 엄재욱 엄태영 염종희 염흥수 오강록 오경환 오광자 오미덕 오병건 오병덕 오병진 오상숙 오승훈 오신재 오용근 오원중 오윤서 오재영 오정애 오지은 오창순 옥영식 용석천 우동렬 우림사 우병선 우지예 우진궁 우춘자 위영란 위주환 유경자 유금열 유상재 유영미 유재기 유지연 유지호 유진옥 유태선 육성희 윤기홍 윤병덕 윤본숙 윤석범 윤순화 윤여경 윤영숙 윤오인 윤정연 윤정일 윤채남 윤춘매 윤현숙 윤희원 이강만 이강민 이강희 이건우 이경남 이경애 이경자 이광수 이광훈 이국부 이군자 이규달 이근기 이근혜 이기덕 이기수 이기승 이기환 이나은 이낙영 이대섭 이대성 이동구 이동주 이동준 이동진 이명숙 이명숙 이명순 이명희 이미라 이미화 이민서 이병태 이보편 이복성 이복희 이산궁 이상숙 이상순 이상은 이상태 이성수 이성표 이수옥 이순덕 이순덕 이순자 이순희 이승남 이양희 이여주 이연보 이연애 이연주 이영득 이영숙 이영애 이영자 이영희 이예은 이옥순 이왕구 이왕진 이용법 이용재 이우순 이우윤 이우진 이우환 이운화 이원상 이원호 이원희 이윤경 이은자 이은희 이익수 이점오 이정남 이정녀 이정순 이정식 이정안 이정옥 이정일 이정임 이정자 이정조 이정헌 이종락 이종섭 이종성 이종옥 이종의 이종협 이주복 이준구 이준범 이중기 이지현 이진선 이진순 이철헌 이춘근 이춘도 이춘자 이춘자 이충선 이한희 이해 이해송 이향림 이향순 이현숙 이형신 이화자 이훈노 이희숙 이희순 이희영 이희정 일진성 임경희 임미순 임성환 임연미 임연희 임옥빈 임용식 임재철 임재환 임점순 임정숙 임종구 임춘희 임형준 임희석 자현스님 장미숙 장미자 장성윤 장성호 장영남 장영철 장재원 장현만 장혜선 장희숙 전경희 전계영 전명국 전미영 전병수 전유신 전은희 전재호 정갑임 정경남 정구순 정규열 정금란 정금자 정명자 정미자 정분임 정영수 정영숙 정영신 정영희 정운경 정은영 정인순 정인자 정정애 정창남 정하석 정학진 정해순 조공옥 조대영 조민규 조성준 조세은 조영석 조재규 조점이 조정해 조정희 조진한 조창희 조행숙 조현정 주미숙 주정숙 주현순 지경애 지민정 지혜선 진동석 진말련 진수명 진영숙 차민영 채은훈 천병길 천상봉 천수해보살 천영기 청무스님 최갑식 최미진(영가) 최미희 최복림 최복순 최분태 최순옥(2) 최영숙 최원주 최윤희 최은희 최재순 최재원 최정기 최종열 최종원 최주범 최주선 최창숙 최태영 최태준 최학우 최현창 최희숙 최희승 탁순례 태순덕 하미경 하미희 하재한 하정희 하태선 한경규 한기영(2) 한기준 한동원 한마음선원공주지원 한마음선원광주지원 한마음선원목포지원 한마음선원안양본원 한마음선원울산지원 한마음선원진주지원 한마음선원통영지원 한마음선원포항지원 한세진 한승균 한승화 한영순 한영순 한예리 한윤진 한은섭 한인식 한재희 한창훈 허두련 허명범 허미옥 허복영 허수자 허추자 허태영 허태환 현미숙 호진스님 홍순 홍승덕 홍애순 홍월자 화명선원 화정스님 황경숙 황금영 황논철 황성미 황수진 황순수 황순희 황용숙 황인순 황인형 황태숙 효원스님 익명


#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경허 | 용성 | 학명 | 만공
한암 | 만암 | 만해 | 효봉
혜암 | 동산 | 경봉 | 고암

# 목탁 스님과 미얀마에서 자비 실천 하세요



**미얀마 관심있는 분**
**미얀마 문화원으로 오세요~**

한국과 미얀마 양국간 친선 차원에서 창립된 미얀마문화원(공동대표 목탁)은 2008년 8월 22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개원했다. 미얀마문화원은 양국의 종교·경제·보건·사회·문화·예술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NGO단체로 상호 양국 관계를 발전을 꾀하고 있다.

미얀마문화원 내에는 목탁 스님이 지난 20여 년 간 모아 온 부처님 사리와 불상을 전시한 국제붓다사리박물관이 조성돼있다. 미얀마 불교문화를 접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친견 가능하도록 개방돼있으며 정기적으로 마정수기법회도 봉행하고 있다.

후원계좌: 국제불교지도자협회 국민은행:023501-04-147581 농협301-0016-0537-91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로 일컬어지는 미얀마, 남방불교 국가 가운데서도 수행의 열기와 그 전통이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곳으로 살아 숨쉬는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나라다. 하지만 그 현실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군사정권 하의 장기 독재와 경제 봉쇄 속에 하루하루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불교는 하나의 종교라기 보다 삶의 희망으로 다가온다.

지난해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인해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고 폐허가 됐던 미얀마의 국민들을 돕기 위해 한국 불자들이 정성이 모여 희망의 싹을 틔웠다. 바로 한국기술대학이다.

## 한국기술대학 착공
## 외국어 및 실용기술 전파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회장 목탁 스님을 비롯해 부원장 법성 스님, 포교원장 천장 스님, 총무부장 법진 스님 등 스님 12명과 재가자 40명으로 구성된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성지순례단은 12월 7~14일 7박 8일간 미얀마 양곤에서 미얀마 종교성 장관과 함께 한국기술대학교 기공식을 열고 제반 사항을 협의했다.

양곤에 들어설 2년제 종합 국립기술대학인 한국기술대학은 미얀마 극빈계층 청소년들에게 한국어·영어·일본어 등 외국어와 컴퓨터 활용·자동차 정비·봉제기술 등 실용기술을 무료로 교육하는 대학교다. 대학관리자는 미얀마 종교성 장관이, 운영자는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 책임을 진다. 현재 미얀마 정부에서 5만 평의 부지를 제공하고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 10억 원의 건립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군사정권 하에 외부 구호 단체의 물품도 정부 통제와 관리를 받는 미얀마 정치 상황에서 국제불교지도자협회의 국립대학 운영권 유치는 미얀마 구호단체 사상 유래없는 일이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가 미얀마 정부로부터 부지 제공 및 관리운영권을 수탁한데는 지난 수십 년간 미얀마에서 아낌없이 자비의 손길을 펼쳐 온 목탁 스님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목탁 스님은 미얀마와 실질적인 문화교류를 시작한 대표적인 스님이다. 목탁 스님은 서울 종로에 미얀마문화원을 세우고 한국·미얀마 불교, 문화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목탁 스님은 "총장 인선과 교수진 확보, 지속적인 학교 운영을 이끌어갈 이사 선임을 준비하고자 준비위를 발족할 예정"이라며 "2011년 부처님오신날에 운영 체제를 완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목탁 스님 원력 결실
## 보디따따웅 사원 한국관 개관

스님의 이러한 원력은 이번 성지순례에서 또 다른 결실을 낳았다. 세계 최대 대불이 자리한 만달레이 보디따따웅 사원에 한국관을 개관한 것이다.

보디따따웅 사원은 140m에 달하는 세계 최대 대불과 120m규모의 와불이 봉안돼 만달레이를 방문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곳 중 하나다. 대불 내부에 32층으로 구성된 각 나라 법당이 있는데 이번 한국관은 6층에 자리하게 됐다.

한국관 개관에는 20여 년간 불사금을 보시한 목탁 스님과 보디따따웅 사원 전 주지인 고 우나라다 스님의 인연이 있었다. 우나라다 스님은 당초 목탁관으로 명칭을 정했지만 목탁 스님의 요청으로 이번에 부처님 봉안과 함께 한국관으로 개관하게 됐다.

이밖에 성지순례에 동참한 스님들과 신도들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신심의 힘으로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한국 불자들의 따스한 자비의 마음을 전달했다.

12월 4일에는 만달레이 몽유와 승가학교에서 미얀마 스님들에게 직접 공양을 준비해 탁발공양 했으며, 6일에는 양곤 인근 식수가 부족한 극빈마을 3군데를 방문해 우물을 파 보시했다.

특히 7일에는 양곤 극빈 마을에서 50명의 소년들을 선정해 출가의식인 신뿌 의식을 봉행해 주었으며 직접 삭발식에 동참해 공양을 올리는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역할을 했다. 이날 신뿌의식에서는 신도들과 양부모 맺기도 진행됐다.

또 성지순례단은 고아원생들에게 장학금과 운동기구를 기탁했으며 2년 여 된 초등학교 운영기금과 딜라신 비구니 수행처 운영기금 전달식도 병행했다.

목탁 스님은 "이번 미얀마 성지순례단은 성지순례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순례자 모두가 동참해 나눔을 나누는 행을 행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초발심의 자세로 되돌아가 자신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데 역점을 둬 순례자 모두가 삼보의 존엄성과 승가에 대한 존경심, 봉사의 의미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1. 수행중인 강원 스님들께 직접 공양을 준비해 탁발공양을 몸소 체험했으며, 식수가 부족해 고통받는 극빈마을 3곳에 우물을 파 주민들에게 보시했다.
2. 종교성 장관 미팅에서는 한국기술종합대학 착공에 따른 제반 사항을 협의했으며 대학교 관리자는 종교성 장관으로 운영자는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에서 책임을 갖기로 합의했다. 장관과의 미팅 이후 5만 평의 학교부지에서 착공 의식을 행하였으며 공사 진척에 따른 적절한 시기에 학생 모집 등 개원에 따른 제반 사항을 수시로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3. 인도 국경에 가까운 지역의 몽유화에는 백만불의 사원 외에 세계 제일의 와불과 최대의 입불(31층에 해당)이 있는 말 그대로 부처님 성지요 부처님 세상이다. 특히 입불 내부에는 각 층마다 각 나라들의 특색있는 법당 조성이 되어 있다. 중국법당, 일본 법당, 대만, 싱가폴, 캄보디아, 태국, 미국 등의 법당이 조성돼 있고 31층 중에 6층이 한국 법당으로 탱화에서부터 한국불교의 법당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석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등 4불의 부처님을 한국에서 조성해 이운 봉안하는 의식을 봉행했다.
4. 국제불교지도자협회는 극빈 마을을 선정해 50명의 소년들을 선정 출가의식(신뿌식)을 봉행했으며 성지순례자들이 직접 삭발식에 동참해 공양을 올리는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역할을 해 고아원생들에게 장학금과 운동기구를 기탁했으며 2년여 된 초등학교 운영기금과 비구니(딜라신) 수행처 운영기금 전달식도 병행하기도 했다. 또 무연고 어린이들을 양부모되기 운동을 벌였다. 양아들, 양딸들의 인연을 맺고 자식들과의 포옹하는 장면은 성스럽고 아름다운 가족의 탄생이기도 했다.

당신 안의 부처가 녹슬고 있습니다

# 청운 스님의 도담 '나를 찾아가는 길'

〈道談〉



남악회양 스님이 육조혜능 선사를 찾았을 때이다.

육조혜능 선사가 물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남악회양 스님은 말문이 막혀 대답을 하지 못했다. 스님은 그 길로 돌아가 8년을 용맹정진했다. 다시 육조혜능 선사를 찾았을 때 선사는 똑같은 질문을 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남악회양 선사가 답했다.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선사가 되물었다.

"가히 닦아서 증득할 수 있는 것인가?"

"닦아 증득함은 없지 않으나 물들지 않습니다."

'한 물건도 없어 물들일 수 없는' 마음으로 50여 년 동안 한결같이 〈금강경〉을 독송해 온 한 거사가 있었다. 속가 생활을 통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그는 사업체를 일구면서 성취감도 맛봤지만 가슴 한 켠의 갈증은 가시지 않았다.

진제 선사(대구 동화사 조실) 등 제방의 선지식으로부터 화두를 받아 수행해 온 거사가 어느 날 태고사 도천 스님을 만났다. 거사는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출가를 했다.



스님이 된 거사는 용맹정진을 통해 갈증을 씻어냈다. 법열이라 불리는 그 청량감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 그는 그 환희를 만인과 나누고 싶었다. 그 환희를 책에 담았다.

수행에세이 〈나를 찾아가는 길〉은 광명 선재사 청운 스님(사진)이 펴낸 책이다. 스님은 먼저 펴낸 〈길을 묻는 나그네에게〉 〈육조혜능과 금강경오가해〉(우리출판사 刊)를 통해서도 부처님 정법과 올바른 수행의 길을 제시해왔다.

대중과 법열을 나누고 싶은 스님의 간절한 마음은 〈나를 찾아가는 길〉 책머리에서부터 드러난다.

"한 구절이라도 읽으시고 한 소식 접하신 불자님께서는 이 책과 팔만사천경을 하나로 묶어 한 입에 삼켜 저 넓은 동해바다 한가운데에 토해 버리거나, 이 책을 불쏘시개로 삼아 일체 경을 허공에 불태워 버리시고 바른 하나의 정법수행으로 견성성불하시길 기원합니다."

청운 스님은 "'내가 곧 부처'라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스님은 "사람들이 자기 밖에만 관심을 갖고, 자기 밖에서만 답을 구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어 정작 내 안의 부처가 녹스는 줄 모른다"며 "'내가 곧 부처'라는 믿음을 시작으로 죽은 부처를 산 부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청운 스님은 "성불은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볼 줄 아는 것"이라며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등 불·보살 명호를 부를 때에도 내가 아미타불과 하나, 관세음보살이 바로 '나'임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스님은 "대표적인 화두인 '이뭣고'에 모든 세상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모르고자 하는 것을 알려는 것이 화두이지만 찾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이 화두이다"라고도 말한다.

청운 스님은 "하늘과 땅이 나와 더불어 한 무리요. 온누리는 나와 더불어 한 몸"이라며 "한지붕 한 생명 한뿌리 윤리를 알면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책에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아는 것이 화두이며 수행이다"라는 스님의 수행지론이 조목조목 정리돼 있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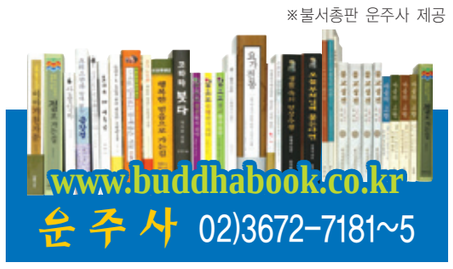
**청운 스님 지음 | 불교시대사 | 1만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5~21

| 순위 | 도서명 | 저 자 | 출판사 |
|---|---|---|---|
| 1 | 기도 | 법륜 | 정토 |
| 2 | 법정 스님 선묵 | 법정 | 다래헌 |
| 3 | 스님의 주례사 | 법륜 | 휴 |
| 4 | 행복, 비움으로 얻는가 채움으로 얻는가 | 미산 외 | 운주사 |
| 5 | 초기불교이해 | 각묵 | 초기불전연구원 |
| 6 |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 | 대행 | 한마음선원 |
| 7 | 허공법문 | 김기추 | 고려원북스 |
| 8 | 굿바이 티베트 | M. 블루멘크론 | 하얀연꽃 |
| 9 | 소설 무소유 | 정찬주 | 열림원 |
| 10 | 사벽의 대화 | 지허 | 도피안사 |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윤남진 REVIEW

# 인간 무의식 속 영웅을 흔들어 깨우는 이야기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이 책은 인간과 문학의 뿌리에 대해 신화학, 심리학, 철학을 종횡으로 결합해 해석한 책이다. 이야기의 소재는 영웅의 탄생과 각성, 귀환과 홍익(弘益)의 여정을 담은 갖가지 신화들이다. 수메르, 이집트, 그리이스 로마, 아일랜드, 게르만, 마우리족, 인디언 등 세계의 여러 지역, 여러 민족이나 종족의 신화를 일관된 이야기 구조(패턴)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경, 성경, 코란, 베다 등 오늘날 주요 종교의 경전에 기술되어 있는 신화적 상징들도 원시부족의 신화들과 구별을 두지 않고 순수한 이야기 구조로서만 비교되고 다루어진다.

저자가 염두에 두는 것은 거의 모든 신화들에 공통된 이야기 구조(패턴)와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유사한 상징들에 대한 의미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잠자는 숲 속의 미녀와 석가모니의 출가와 성도, 모세의 출애굽,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동일한 이야기 구조(패턴)로 설명된다. 일체의 치장을 제거하고 오직 뼈(골격)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있다.

약 500쪽에 달하는 이 책에서 사례로 인용한 수많은 신화들에 대해 나는 이 지면이 허하는 범위 내에서는 도저히 요약해 보고할 재간이 없다. 다만 독자들을 위해 신화에 나타난 공통된 영웅 이야기의 구조(패턴)에 대해 부족하나마 한번 요약해 볼까한다. 그럼 독자들은 붓다나 예수, 모세의 일대기를 상기해 보라. 아니면 헤라클레스나 건국신화 또는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를 영웅로 생각하고 이들의 모험의 여정을 따라가 보자.

우선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영웅의 여정의 핵이 되는 패턴부터 알고 넘어가자. 영웅의 모험은 세계로부터의 분리(출발), 힘의 원천에 대한 통찰, 그리고 황홀한 귀향의 패턴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저자는 이 핵이 되는 3개의 이야기 패턴을 출발(분리), 시련과 입문의 성공, 회귀와 사회와의 재통합이라는 제목의 3부 17장으로 구성해 그 구조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영웅 이야기의 출발은 영웅의 평범한 일상을 비춘다. 그 평범한 일상에 돌연 소명을 알리는 전령관이 나타난다. 신들은 싯다르타 태자가 정각에 이를 때가 되었음을 알고 사문유관을 체험케 하는 전령관 역할을 한다. 어떤 영웅은 소명을 즉각 깨닫고는 길을 나서지만(출가), 어떤 영웅은 타성이나 힘에 겨움 또는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잠시 소명을 거부하고자 애쓰기도 한다.

모험에의 길로 출발한 영웅에게는 권능이 결여되어 있다. 주인공은 권능(열쇠)이 있어야 비로소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이 때 초자연적 조력자가 나타난다. 노파나 노인은 영웅에게 호부(부적, 열쇠)를 선사하고 주인공은 첫 관문을 통과한다. 저자는 본생담의 오무기태자(五武器太子) 이야기로 관문 통과의 과정을 설명한다. 태자는 스승에게서 전수 받은 다섯 무기로는 도깨비를 물리치지 못한다. 다섯 무기는 오감에 집착하고 있는 세계의 상징이다. 태자는 여섯 번째 무기인 천상의 벼락 즉 지혜를 통해 조복 받는다.

영웅은 첫 관문을 통과해 목적을 향해 전진하지만 근원적 어둠,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암흑에 빠진다. 출가한 사문 고타마는 당대의 최고 스승들을 뛰어 넘었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수준의 고행을 하였지만 자신의 그림자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 그림자는 오직 그 자신이 빛으로 화해야만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깨달은 영웅은 가능성, 한줄기 빛을 본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사생결단의 정면대결을 결심한다. 우유 죽으로 기운을 차린 고타마는 길상초를 깔고 보리수 아래 앉는다. 이 나무는 우주수(宇宙樹) 즉 우주의 중심인 나무다. 고타마는 깨닫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겠다고 정면대결을 결심한다. 고타마는 마라와의 정면대결에서 승리하고 스스로 빛이 된다. 그는 깨달은 이, 붓다, '위대한 영웅(大雄)'이 된 것이다.

그러나 영웅은 귀환하여 홍익(弘益)을 실행하지 않으면 진정한 영웅이 되지 못한다. 영웅은 귀환을 가로막는 장애를 넘어야 한다. 처음엔 내 깨달음을 이해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며 귀환을 주저한다. 그러나 영웅은 귀환으로 예상되는 사회와의 불화 -기존의 관습과 타성, 문화 등과의 갈등을 예견하고 귀환을 주저하지만, 처음 소명을 전달했던 그 전령관(신들)의 간청을 계기로 귀환을 결심한다. 그리고 마침내 귀환하여 홍익을 베푼다. 이것이 신화에 나타난 영웅들의 공통된 여정(모험의 패턴)이다.

뒤르켐(종교학)은 신화를 '개인을 집단에 귀속시키기 위한 비유적 가르침의 보고'라고 했고, 융(심리학)은 '인간의 심성 깊 곳에 내재한 원형적 충동의 징후인 집단의 꿈'이라고 정의 했다고 한다. 신화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진정한 영웅심(大雄心)을 흔들어 깨우는 이야기다. 영웅의 이야기를 통해 종교는 내면적 침잠과 성찰의 다른 쪽 날개인 홍익의 열정(菩薩道)이라는 여의주를 획득한다. 이로써 종교는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 사회와 통합되고, 존재와 죽음을 넘어서는 열정의 상징으로서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사원의 대웅전(大雄殿)을 다시 보자. 그곳에 고요하고 덕스러운 경배의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을 깨우는 영웅이 있다고 다시 바라보자.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왜 원효를 그토록 사랑했겠는가? 그것은 아마도 그의 학식과 높은 도업에 대한 흠모보다는 그가 저잣거리로의 성공적인 귀환을 실현한 진정한 영웅 이야기의 전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리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

나를 찾아가는 길




初發心時便正覺 (초발심시변정각)

"처음 마음을 낼 때(발심할 때)가 곧 깨달음이다. 이말은 우주를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두는 그 순간이 곧 성불이라는 것이다." "내가 본래 부처다"라는 말씀은 기도할 때 자기 성품자리에 마음을 두고 하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正見(정견)도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예로 "이 뭣고"하는 자리가 반야공성(般若空性)을 일러주는 一句로서 부처님 마음하고 딱 합쳐진 자리여서 그 자리에 일체 제불즉석가여래, 관음, 지장, 아미타불이 계신 곳이다. 그 자리가 우리가 살아 숨 쉬는 곳이고 불가사의한 영험과 기적이 일어나며 아프면 자동적으로 약사여래가 나오는 곳이다. 모든 기도란 부처의 반야지혜작용을 살려 우리가 쓰지 않아 녹슬어 있는 자성불을 생불(生佛)로 만들어 작용하게 하는 것이며 이 반야지혜작용을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 반야지혜가 우주법계의 만물 만생을 창조는 본체이며 반야지혜인 우주와 내가 하나로 연기된 것이 無我이다.

한 구절이라도 읽으시고 한 소식 접하신 불자님께서는
이 책과 팔만사천 경을 하나로 묶어 한 입에 삼켜
저 넓은 동해바다 한가운데에 토해 버리거나
이 책을 불쏘시개로 삼아 일체 경을 허공에 불태워 버리시고
바른 하나의 정법 수행으로 견성성불하시길 기원합니다.

지은이 청운스님 합장 010-4399-4326



「나를 찾아가는 길」

한 지붕 · 한 생명 · 한 부처
청운스님 지음 | 불교시대사 | 10,000원

» 청운 스님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충남 금산군 대둔산 태고사에 계시는 경허 대선사의 법제자인 수월(1855-1928)스님의 법손이신 도천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였으며, 현 조계종 원로의원이시며 대종사이신 명선 스님에게 수계하였다. 현재 경기도 광명시 선재사에 주석하고 있다.
저서로 《길을 묻는 나그네에게》《길을 묻는 나그네에게 II》《육조혜능과 금강경오가해》등이 있다.

#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가보가 아니다

〈家寶〉

☞1면에서 계속

순례하는 동안 신심이 깊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 수불 스님이 펼치는 야단법석과 동행하는 분들의 체험담이 그것이다. 어젯밤도 유양시(瀏陽市)의 한 숙소에서 차담을 나누는 동안 안국선원 신도들에게 존경받는 무량심 회장보살의 얘기를 들었다. 회장보살이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사연도 절절했다.

"부유한 부모를 만나 결혼하기 전까지는 세상 물정 몰랐어요. 초승달만 봐도 좋고 별만 봐도 좋았어요. 세상이 무지개와 같이 아름답기만 했거든요. 그러나 결혼하고 3년 뒤부터는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몸이 병들기 시작했지요. 모친이 걱정이 되어 사직동 친정집 옆에 새로 집을 지어주었어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제 얼굴 보려고 그러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식탁에 우두커니 앉아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제가 없는 거라요."

보살은 커피 잔을 내려놓고 울기 시작했다. 남편 거사가 퇴근해 온 저녁때까지 울었다. 옷을 갈아입는 거사의 바지를 잡고 '당신한테 오고 나서부터 내가 없어진 것을 오늘 처음 알았으니 나를 찾아내라' 며 울었다. 이윽고 남편이 전화를 해 모친이 뛰어왔고, 모친과 남편의 권유로 모친이 다니던 소림사를 오가게 되었다. 부처님 일대기나 불교교리를 알고 싶어 처음으로 집에서 법사를 모시고 서른 명이 법회를 가졌다. 나중에는 보림사 법당을 빌려 매주 화요일마다 2년 6개월 동안 공부했다. 그런 뒤 새벽 2시 반에 일어나 목욕재계하고 6년쯤 새벽기도를 했다. 천일기도를 두 번 하는 동안에는 백일이 지나니 2시 반만 되면 저절로 일어나졌다. 제사를 지내 피곤하여 조금 늦을 때는 문에서 "팍!" 하는 소리가 나 벌떡 일어났다. '누가 나를 깨우는가 보다' 하고 신바람이 나 10년을 넘게 했다. 낙산사 같은 데서 밤새 기도했다. 저녁에 법당으로 들어가 발뒤꿈치 들고 아침예불 때까지 관음보살을 불렀다.

"발뒤꿈치를 드는 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3년 정도 지나니 5분만 지나고 나면 몸이 파리똥만한 점이 되어 밤새 그렇게 설 수 있었지요. 저는 그게 선정인 줄 알았어요."

## 선(禪)은 자기 이성과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길

회장보살이 수불 스님을 만난 것은 그 무렵이었다. 알고 지내던 옥련화 보살이 범어사 행자복 15벌을 보시할 시주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보살은 시주금을 가지고 범어사 내원암으로 갔다. 마침 내원암에는 수불 스님이 능가 노스님을 모시고 있던 중이었고, 보살은 희유한 꿈을 꾸고 난 뒤부터 가슴이 몹시 갑갑한 상태였었다. 꿈에 하얀 새가 하늘에서 한 마리 두 마리 날아와 모이더니 무슨 글을 쓰고 나서 보살은 하늘 글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점지했다.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하고 목이 막혀 잠에서 깼고 가슴이 답답해져버렸다.

"내원암으로 올라가 스님을 처음 뵀어요. 그런데 스님 몸뚱이에서 흰 우윳빛이 확 나오더니 나를 덮어씌우더라고요. 순간 갑갑한 게 시원해지거라요. 그때 스님 하시는 말씀이 보살은 지금까지 절에 다녔지만 아무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보살이 알고 있는 불교가 불교인 줄 아느냐 그래요. 시원해진 줄 알았는데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마침 또 어느 한 보살이 지나가는데 말씀하시데요. 저 보살의 머리카락을 탁 보는 즉시 한 올도 틀리지 않고 완벽한 숫자가 나와야 그게 불교이자 불법이라고."

보살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잠시 후에야 일어나 능가 노스님에게 가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보살은 다시 내원암으로 찾아가 스님에게 삼배를 올리며 스승 되기를 간청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스님을 법회 장소인 총무집으로 초대했다.

"화요일 법회 모임의 총무 집에서 겪은 일이지요. 스님을 모시고 부회장 두 사람이 함께 한 자리였어요. 총무가 다식이 담긴 과반을 스님 옆에 놨어요. 스님이 포크로 배를 한 조각 찍어 들고는 '불법은 별 다른 도리가 아니다. 바로 이 속에 다 있다. 이거만 알면 다 된다. 이렇게 하는 놈이 무엇인 줄만 알면 다 된다' 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순간적으로 빈 허공에 비닐 막 같은 것이 쫘악 갈라지더니 포크가 포크 아닌 도리를 알겠더라고요. 그럼 내가 막 속에 갇혀 살았나, 그게 착각이었던가 하고 말이에요. 점심을 드시고는 다른 보살 집으로 옮겼는데 스님은 2층 응접실에 계셨고 우리는 아래층에 있었지요. 그 친구가 차를 타러 부엌으로 간 사이에 저는 창문 너머 정원의 작약 꽃봉오리와 마주쳤어요. 그 순간 화산이 터지듯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내 몸뚱이가 산산조각이 난거라요. 하늘에서는 얼마나 큰 우렛소리가 나는지 나는 목이 달아나는가 싶어 소리를 질렀지요. 그런데 날아간 줄 알았던 몸뚱이는 그대로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쾌함이 몰려와요. 2층으로 올라가 스님께 제가 달라졌다니까 한두 마디 말씀으로 점검하시더라고요."

보살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파도 넘실넘실 타고 넘을 줄 알고 자기 이성과 의지대로 살아지는 것이 견성체험 이후의 변화라고 술회했다. 한 생각 일으키기 이전에 이루어진다고 하니 주인공으로



감회에 젖어 석상사 경내를 둘러보는 스님




임제종 황룡파와 양기파의 발원지인 석상사

산다는 뜻이었다.

석상사로 가기 위해 순례자 일행은 숙소에서 버스를 타고 일찍 나선 셈이다. 그러고 보니 아직도 호남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형양의 밀인사나 유양의 석상사나 모두 호남성의 절인 것이다. 버스가 석상사 가는 길로 진입하자마자 지체된다. 비 온 뒤의 비포장도로가 엉망이다. 겨우 교행하는 비포장도로인데, 어디선가 고장 난 차가 길을 막고 있어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스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야단법석을 편다. 석상사도 꿈에 보았다고 하신다. 꿈속의 석상사는 절 앞으로 물소리가 날 정도의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꿈이 맞는다면 전생에 한 번 왔다간 인연일 거라며 순례자들의 귀를 기울이게 한다.

"이 길이 과거에는 강서 호남을 잇는 대표적인 길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원오심요〉를 공부했지만 원오 스님도 양자강의 배를 타고 사천성으로 왔다갔다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걸어서는 장가계쪽 협산사에서 장사로 내려와 강서로 갈 적에는 이쪽 길을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양 석상사에서 주무시고 강서의 백장사, 황벽사를 넘어서 진여선사로 넘어가는 일정을 택한 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큰스님들이 동서를 왕래할 적에 이 길을 많이 이용하였을 텐데 지금 우리도 이 길을 지나고 있어 감회가 큽니다."

## 동산 선사를 아홉 번 참방했던 설봉의 간절한 구도심

과거의 큰스님이란 당연히 덕산선사 회상의 암두와 설봉도 포함될 것이다. 스님은 암두 스님과 설봉 스님의 기연(奇緣)까지 법문하신다. 덕산 선사가 말년에 상좌로 맞아들인, 천재적인 소양을 지닌 암두는 설봉보다 6살이 적었지만 호남성 오산진에서 설봉을 크게 깨치게 했다고 한다. 당시 설봉은 덕산선사를 찾기 전에 투자를 세 번, 동산을 아홉 번 참방한바 이를 삼도투자 구지동산(三到投子 九至洞山)이라 했는데, 동산과 투자산까지는 무려 5000 리나 되는 먼 거리였다고 하니 설봉의 간절한 구도의지가 어땠는지 짐작이 된다. 특히 동산 밑에서는 삼십대 중반까지 공양주 소임을 지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뼈저리게 자기정진을 놓지 않으려는 근기를 내보였던 것이다. 다음은 그때의 일을 보여주는 선화다.

설봉이 공양주(飯頭) 소임을 보면서 쌀을 이는데 동산 스님이 다가가 물었다. "모래를 일어 쌀을 걸러내느냐, 쌀을 일어 모래를 걸러내느냐." "모래와 쌀을 다 걸러냅니다." "그러면 대중은 무엇을 먹으라고." 설봉이 대답 대신 쌀 쟁반을 엎어버리자 동산 스님이 말했다. "너의 인연을 보건대 덕산(德山)에 있어야만 하겠어."

수불 스님은 이쯤에서 동산 스님의 너그러운 성품을 평한다. 동산 스님은 공양주가 쌀을 엎어버렸는데도 화를 내지 않고 '너와 나의 인연은 이쯤인 것 같다. 네가 나를 믿고 이렇게 찾아와 공부해 온 것은 고맙지만 내가 볼 적에는 너는 덕산 스님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으니 바로 그곳으로 가라' 고 여유를 보였다는 것이다. 결국 설봉은 덕산 선사를 찾아가 물었다.

"예부터 내려온 종문에 저도 자격이 있습니까."

덕산 선사가 몽둥이로 한 대 때리며 '뭐라고?' 하자, 설봉이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다음 날 설봉은 다시 덕산 스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자 스님이 말했다.

"우리 종문에는 말이란 것이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줄 그 어떤 법도 없다."

설봉은 이 말에 크게 사무쳤다. 이후 설봉은 사형 암두와 예주 오산진에 갔다가 눈이 내려 그곳에 함께 머물게 되었고, 그때 암두는 날마다 잠만 자므로 오로지 좌선만 하고 있던 설봉이 어느 날 암두를 부르며 말했다.

"사형! 금생에는 틀렸나 봅니다. 전에 문수란 작자와 행각할 때는 가는 곳마다 그 작자가 귀찮게 굴더니 이번에는 사형이 잠만 자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 암두가 '악!' 하고 할을 했다. 그런 뒤 말했다.

"잠이나 실컷 자두시오. 매일 선상에 앉아 있는 꼴이란 촌구석의 토지신 같으니 훗날 사람들을 홀릴 것이오."

"나는 이 속에 답답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감히 스스로를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설봉은 지금까지 공부해 온 자신의 견처(見處)를 암두에게 하나하나 점검을 받았다. 그러나 암두는 아직 깨달음의 인연이 도래하지 않은 설봉의 견처를 다 부정했다.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가보(家寶)가 아니란 말을. 훗날 그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려 한다면 자기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대로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렇게 된다면 하늘을 덮고 땅을 뒤덮을 것이오."

설봉은 암두의 말끝에 깨닫고 소리쳤다.

"사형! 오늘에야 비로소 이곳 오산진에서 도를 이루었소."

훗날 암두는 뱃사공 노릇을 하고, 설봉은 고향으로 돌아가 1500 대중을 거느리게 되는데 설봉 문하에서 운문종과 법안종이 태동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침 버스가 석상사 초입의 산허리를 들어서자, 수불 스님이 버스 안 법문을 마치신다. 버스가 산모퉁이를 몇 번이나 돌고 도는데 산세가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다. 이윽고 절의 담에 새겨진 석상사 안내문이 보인다. 배휴의 지원으로 창건된 석상사는 당나라 희종이 '숭승선림(崇勝禪林)' 이라 칭했으며 임제종 황룡파와 양기파의 발원지라는 구절이 눈에 띈다. 〈계속〉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 요절복통 여래네 집

#39. 방귀만 뀌려고 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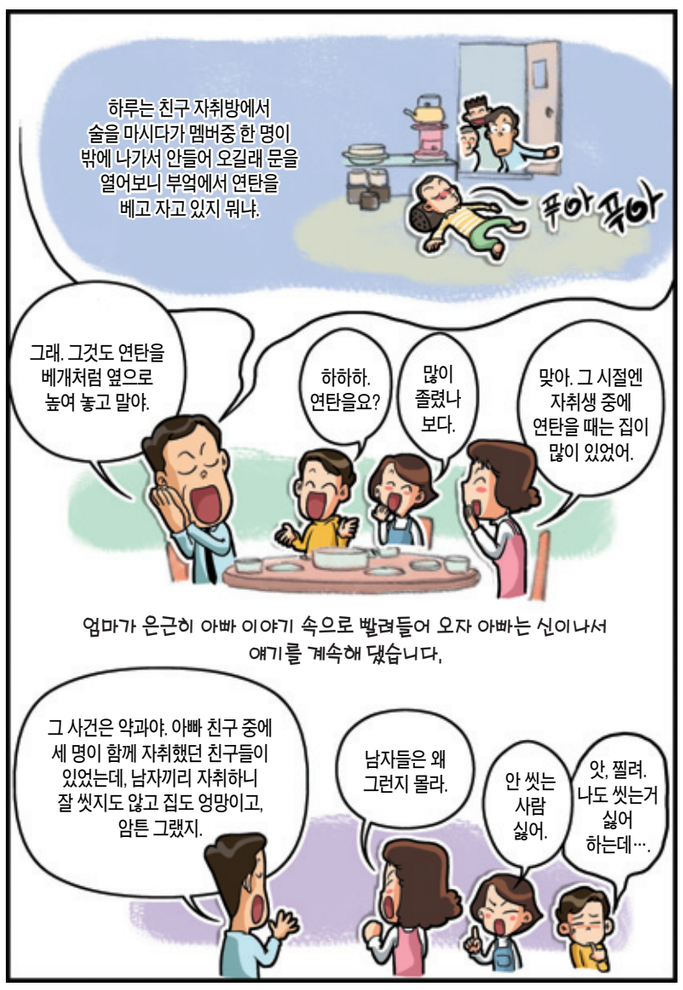



술을 좋아하는 여래 아빠도 연말연시 계속되는 술자리에는 고개를 젓습니다.




여래 아빠는 불현듯 한참 술을 잘 마시던 20대 생각이 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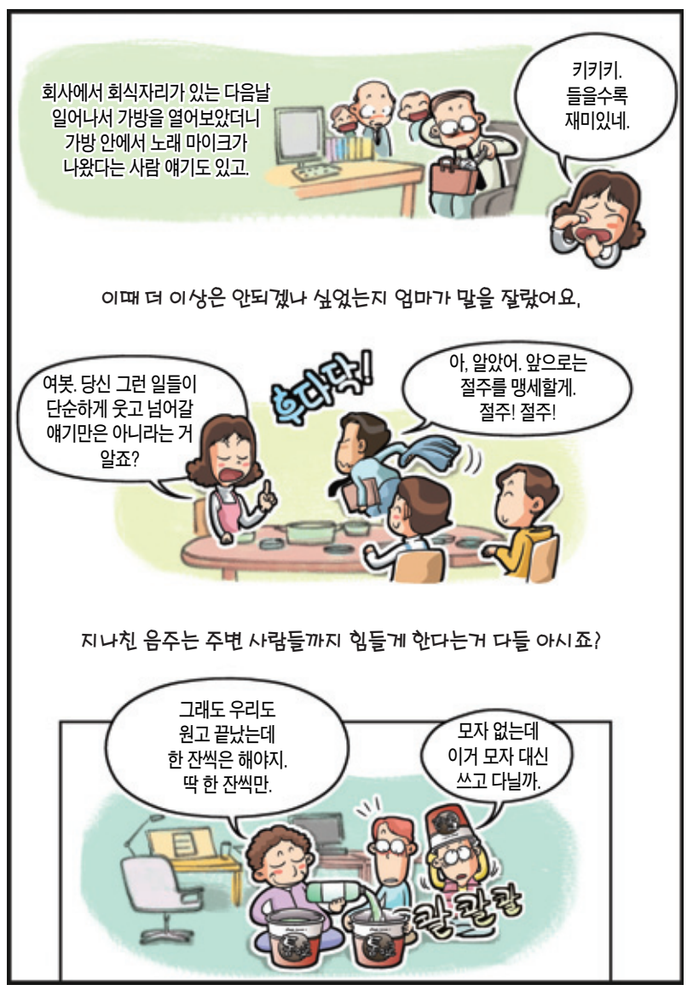







내친김에 아빠는 술꾼 시리즈를 몇 개 더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애들한테 이래도 되나 몰라 ^^)




## 이주일의 화두

마음 마음 마음이여 알 수가 없구나
너그러울 때에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일듯이 하다가도
한 번 옹졸해지면 바늘하나
꽂을 자리도 없으니 - 달마 -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불심의 발길이 머무는 곳,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삼베 삼재풀이 @700원 (100개이상)
한지 삼재풀이 @700원 (100개이상)




www.buddhashopping.co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대량구입시 전화주십시요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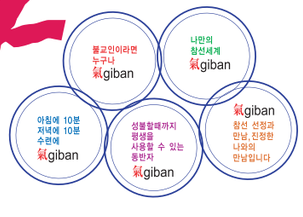
경면주사삼재부적 9×20cm (100매) @5,000원
공단등 8cm 1BOX 24개 / 등지름 24cm 할인가 @3,000원 (96개이상)
집게PVC등표 / 칼라등표 (100매 포장) @20,000원/@6,000원
밀대양초(국산) 4.6×25cm 70개 @105,000원
금강반야바라밀경 할인가 @1,500원 (100권이상)



입춘대길 (大/小) 할인가 @大 3,000원 (7.2×28.5cm) @小 2,500원 (5×19.5cm)
한지 입춘대길세트 100조(大/2도) 할인가 @ 大 12,000원 (10×43cm) @2도 10,000원 (7×30cm)
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 (100개이상)
음양오행만재풀이 할인가 @800원 (100개이상)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삽!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통증 제거 기술 무료교육

스님들 요즘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원심수기요법을 배워 활용하신다면, 사찰운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심수기는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기술로 배우는데도 쉽고 간단한 기술입니다. 원심수기는 침이나 지압도 아니며 외국에서 들어온 기술도 아닌 우리전통기술입니다.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연락처 : 한의원 051)802-0661 * 또한 불자님 중에 한의사 선생님을 초빙합니다. (숙식제공 가능)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울산)

###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약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 범음 범패 염불 교육도량
학인모집 개인지도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물, 범음범패
사찰 각종 행사대행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 점안식
011-243-3587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 범 음 범 패
실제위주 교육도량
천도재, 49재, 점안식, 수륙재,
영산재, 화청, 바라, 나비무, 명리풍수
각종 불공 행사전문
1학년 무료강의, 학인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예술원)

### 태극기를 알면 삶이 행복하다
국민건강의 지혜가 담긴
한의학, 명리학, 풍수학을
무료 강의합니다 (스님환영)
"스님과 함께 동행하는 깨달음
(돈오견성 체험)으로의
여행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열 린 시 민 선 방
010-3045-0085

### 수강생 모집
철학반 • 무속반
승도반 • 치유반
도건명리학당(불당사)
042)526-1123
010-3452-1123

### 입 종 안 내
한국불교법화종
위 종단은 50년된 전통종단이며
행사협조, 친목도모, 계첩,
도첩, 법계증, 사찰등록증,
권익보호와 운영에 관심있으신 분
입종을 환영합니다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567-2(성불사)
총무원 051)204-8494

### 법문강사스님 초청
역학 가능한
부전스님 초청
일학 합장
011-851-3333

### 스님 초빙
부산, 대구에서
열심히 할동하실 분
가정과 회사방문
기도 및 상담
대불정능엄신주 기도함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 인연되실 분 찾습니다
저는 어느 비구니스님 보살핌으로 자랐으며, 제 나이가 70세로서 경남 하동에 조그만 암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비구니스님과 제 부모님 영가를 영원히 잘 모셔주는 조건으로 강원졸업이나 참선수행을 하시는 30대 미만의 비구니스님께 암자를 무상으로 양도코져 합니다
011-557-2773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개원사
053)981-0995
010-2828-0664

###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011-9514-3721

### 신심있는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절 관리해 주실 스님)
▷삼척
010-9219-7695

###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 대한불교 구화조계종 총본산 구화사
함께하실 종도스님,
학인스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
불교 모든 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의식,49재,영산대재, 천도재등
054)977-9733
010-9421-9364

###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7232-0384

### 사찰운영 같이 합시다
혼자 절을 가지면 죽을 때 가져갑니까?
잘 되지도 않는 곳에 혼자 절을지어
어렵게 살지말고 여기 6억원 들여
시내 한편에 목조로 불사를 잘한 이곳에
2억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수행합시다
돈이 모자라면 1억도 됩니다
등기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비구니스님을 원합니다
아니면 노보살님도 괜찮습니다
011-9837-8668

### 영가를 쉽게 찾는 방법
띠와 생일만 알면 됩니다
보시금 10만원
영가천도의 간단한 방법
영통을 쉽게 할수 있는 특수부적,
급 매매 부적, 남녀 이성문제
농협 356-0394-311943 이정화
010-6662-8853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당 노원구 중계동
▷60세 이하, 출퇴근 가능 하신 분
02)3391-8523
011-9002-8523

### 청소년 빙의
100% 치유
학업성적향상
부처골 지장선원
www. jijangsw.com
054)383-8553
* 퇴마의식 비법전수 *

### 평생을 함께하실 기도스님과 공양주, 화주, 시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41)835-3933
010-8353-3337

### 부전스님 모십니다
사찰운영 함께 하실분
종무실, 법당, 공양실,
거사, 보살님 모십니다
가정적인 사찰입니다
▷부산
051)242-1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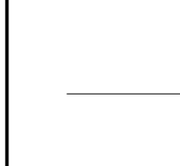
### 포교당 주지스님 모십니다
▷ 50세 전후 (법랍 20년 이상) ▷ 조계종
▷승가대, 동국대 출신스님 환영 ▷보수 : 월 280만원 (공양주 포함)
▷승려증 및 이력서 지참 면담
▷소재지 :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052-23
051)782-0033

### 도와 주십시오
36세 비구니 스님으로 조계종 청암사에 출가하여 승가대학 사지과 재학중 몸이 아파 지금까지 15년간 당뇨, 신장염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투석을 해야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도움손길 기다립니다.
해진 합장
연락처 : 010-9045-5215

### 대방등 신통기도
• 간절히 원하면 이루워집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130-1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 좋은 인연. 멋진 인생
▷전통 예술 : 대금,단소, 태평소, 학춤, 한량무 ...
▷불교 의식 : 예불, 범패, 바라무, 법고 ...
▷전통 무예 : 선무도, 봉술...
위 수행으로 불심을 가꾸어가실 도반을 모십니다
선무도 양산 연수원 010-9314-0950

### 東和임영재선생의 氣.수맥.풍수지리이야기

◆ 수강생모집 ◆
풍수지리,수맥 전문가 양생교육
모집인원: 선착순20명
교육일시: 2011년2월13일 일요일 오전11시 6주코
교육장소: 교대역13번 출구 스타벗스건물 7층
◆ 수맥,풍수지리 상담 ◆
음택, 양택, 재혈,원격감정, tv.출연 이론입증
전화예약 ☎:1644~8457 동화자연지리회 www.dh21.kr

###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뉴욕 3월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화, 금요일 오전, 목요일 저녁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문의 : 전화 053)474-8228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전화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덕연선생 약력 및 저서〉
- 서라벌대학 풍수명리과 교수 역임
- 인터넷 홍익TV 명리학, 구성학 강사
- VJ특공대 이색 역술인 출연
- 다음 N-사주카페지기
- 내가바로 사주왕, 사주여행 저서

### 인터넷 역학(사주)강좌 안내
학습내용 왕초보 입문, 격과 그릇의 이해, 테마별 사주보는 법, 육친 통변의 날개 마음을 보는 사주통변 등 무료강좌 다수
사주 기초부터 고수까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하여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사주보는 눈을 확 틔어 드립니다.
■ 인터넷 창에 '덕연풍수명리학회'를 검색 하세요.
■ http://www.sajuacademy.com
덕연풍수명리학회 문의 042)320-2444

###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렵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 승복·전통복식 30년
www.kyksb.co.kr
김윤경승복·우리 옷
- 30년을 한결같이 전통복식 연구·보급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공장직영,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주요품목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김윤경 기획상품
(이중직)적삼 바지 ~~150,000원~~ → 80,000원
— 겨울신상품 —
(목화솜누비)적삼 바지 ~~300,000원~~ → 180,000원
(목화솜누비)동방 바지 ~~350,000원~~ → 220,000원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승복관련 기술자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02-495-777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서 울 점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31 02-2265-2278
제 주 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6-2 064-724-7999
입금계좌 농협 178424-56-036570(예금주 : 김윤경)

###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신불사
• 법 명 : 도균 (김지환)
• 주 소 : 경북 경주시 양남면 환서2리 985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천운사
•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00-6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국제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덕산사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1375-2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 2010년 12월 29일 이후의 상기 덕산사 주지직인 및 주지인감 사용은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 법하

# 불자정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 / 상단 돌출 150,000 / 중앙 돌출 500,000 / 하단 먹 7cm 100,000
▷ 마 감 : 매주 월~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평택시 소재
- 아파트 및 상가지역 6층건물
- 평수 4층 70평(법당)
- 6층 70평(요사채) 각층 전체
- 삼존불 (동불) 및 후불탱화, 지장, 신중탱화, 관음지장 , 호신불 108위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상담

031)672-3353 / 031)677-9950~1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법당 : 35평
- 요사 : 100평
- 부지 : 600평
- 가액 : 12억

- 위치 : 충북
- 법당 : 50평
- 요사 : 80평
- 부지 : 224평
- 가액 : 3억 8천

- 위치 : 강원(동해안)
- 법당 : 25평(목조)
- 요사 : 50평(목조)
- 부지 : 270평
- 가액 : 4억 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 사찰 및 토굴안내

### 부산 범일동

- 총대지 : 100평
- 건물(법당 13평, 요사 방3칸)
- 마당 3층 석탑, 뒷산 공원
- 가액: 7천만원

### 전통형 사찰 (급 절반가)

- 대지 : 490평(국유지 300평 포함)
- 법당 20평, 염통전 15평, 용왕각 15평
- 지장전 20평, 삼성각 15평, 전각 5동
- 단층완료, 뒷산 공원
- 가액: 4억 5천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 전세: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3866-5928

## 암자 ·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지 344㎡, 104평
- 아궁이, 황토방
-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가액 : 1억 2천만원 (대출 4,500만원)

011-9393-4965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광진구 구의동 아리수 정문앞
- 법당 80평, 친견실, 부엌, 산신각, 방3
- 보증금 2천만원, 월 18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8599-9977
010-3596-2538

## 토 굴 터 안 내

- 위치 : 거창군 가북면 중감마을에서 500M
- 현재 묵은 논, 2필지, 1017평
- 남향, 해인사 뒷산
- 깊은 산속 시원한 계곡물
- 가액: 2천 5백만원

011-9393-4965

##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읍 아파트 주택밀집지역,시장3분거리
- 4층건물 중 2층
- 상단후불탱화,신중탱화,삼존불외지장단
- 법당, 방2, 주방, 화장실, 집기일체
- 주차장완비, 전체평수 약 4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1-544-9777

##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군 무안면 운정리 노리실 부근
- 대지 450평, 법당 50평, 요사채 20평
- 가액 : 9,500만원

055)356-5322
051)254-3016
016-832-5114

## 한 국 불 사

- 서울근교 (APT밀집지역, 재래시장근접) 교통주차 편하고 산세수려함
- 대지 약 160평, 2층 목조법당
- 가액: 10억

※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운영 하실분 전화 상담해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횡성 근교
- 전망좋고 댐과 접해 있음
- 사찰터로 최고 적합
- 주택2동
- 실평수 1500평, 3000평 사용가능
- 가액: 3억

011-369-4154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 평수 46평. 교통편리
- 보증금 4천만원, 월 14만원
- 시설비 2800만원
- 시설일체 완비
- 현재 법회중

010-8631-6333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인천 부개역사거리 대로변
- 3층건물 중 2층 실평수 35평
- 아미타불,관음세지협시불,지장보살
- 산신탱화, 용왕탱화, 후불흑탱화
- 방2, 도시가스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780만원

011-729-6011
032)614-6011

##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호계동 위치 좋음
- 평수 500평
- 산신, 용왕, 법당, 요사채 각1동
- 심야보일러
- 가액: 3억 3천(조절가능)

011-595-1522

##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조양동
- 총평수: 880평, 대지 380평
- 법당 목조 18평
- 요사채 40평,(콘크리트건물), 종각1개 약 1평
- 심야전기보일러, CCTV 설치되어 있음.
- 가액: 4억(은행융자 8천만원) 조건부 가격 절충

010-3112-3513

## 절(사찰)요양시설

복 지 시 설

- 경남 산청
- 농장, 약초재배단지 다용도
- 3만 5천평
- 가액:17억 5천만원

02)739-5008

## 전원주택 토굴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 위치: 충북 보은군 보은IC 10분 거리
- 대지 200평, 조립식 법당 25평, 전답 1,6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 평당 1만 4천원
-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9967-9832




##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 3층 건물중 2층 65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 집기일체양도. 법회 즉시 가능

055)855-5950
010-4867-8977

## 토 굴 안 내

- 위치:충북 옥천군 안남면
- 평수12평, 2필지
- 건물 1700만원
- 토지세 1년에 25만원

010-9288-0048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 부지 235(실사용 300평)
- 건평 40평
- 뒤편 산 및 조그마한 계곡
- 가액: 2억 2천만원 (융자 5천5백만원) 가격일부조정가능

010-8550-6552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남 서산 터미널 뒤편
- 평수 23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8만원
- 시설비 300만원
- 대체의학 하시는 분 환영

010-2864-7284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황대로 1000번길 (진영역 앞)
- 평수 : 1층 30평, 2층 3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0-3578-0161

## 터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보은읍에서 5분거리
- 대지 2,000평
- 절터, 전원주택용이
- 사슴축사 200평 포함
- 좌우로 산을 끼고 있음
- 분할양도 가능

016-475-3051

## 포교원안내

- 위치:부산 온천사거리 부산은행 맞은편
- 평수 58평, 방2, 주방, 화장실2
- 삼존불,아미타불,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모셔져있음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010-8566-9799

## 임 야 안 내

- 위치 : 상주시 외서면 소재
- 총 17만평
- 10만평, 4만평, 17,000평
- 각각 분할 판매가능
- 2차선 도로 인접

냇가, 토질도 우수함

010-7188-6359

##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노원역 4.7호선 역세권
- 시장 상가 아파트 밀집지역
- 5층 건물 중 2층
- 큰대로변, 법당, 면적실, 휴게실 , 다용도 삼존불 모셔져 있음
- 보증금 5백에 월 60만원
- 시설비 550만원(약간절충가능)

010-4045-1337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광주 광역시 북구 일곡동
- 자연마을내 신축 4층 건물
- 수련장전용건물
- 14,000세대 아파트단지의 주거지역과
- 유동인구가 활발한 지역에 위치
- 가액: 5억 2천만원(은행융자 2억 1천만, 전세보증금 1억 8천만 포함)

010-6291-1035
062)573-1035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 전세: 500만원 월 30만원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3866-5928

##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시내인접)
- 대지 약 265평
- 건물 2동, 공양실 별도
- 법당 30평, 요사 30평
- 방 3, 주방, 거실, 화장실 3
- 가액: 4억 5천만원,
- 토지거래 허가지역 해제

010-8643-6676

##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포교활동 적지
- 대지 : 149평
- 법당 : 20평 단층기와
- 요사채 기와(2동)
- 가액: 4억 7천만원 (개인사정으로 양도)

011-811-5466

##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시내 중앙 산밑
- 최고요지 남향
- 대지 186평
- 법당, 목조, 신축 25평
- 요사 2동 26평
- 주차 10대 가능, 지하수 사용
- 가액: 4억 5천만원

018-554-6198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재송동 재송시장 부근
- 4층건물에 3층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완비, 80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9773-8532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기장군.읍
- 2층건물 2층
- 법당 40평중 방3칸, 주방1, 화장실, 주차장완비
- 후불탱.지장탱신중탱화,아미타삼존불 ,집기일체
- 등산로 입구, 아파트 주변 대로변 교통원활
- 보증금 2천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010-6556-6431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 5동 3층건물 중 2층
- 약 45평. 삼존불, 욕실, 화장실, 주방, 종무실 겸 방 2칸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모든시설 완비(시설 A급), 시설비 1천 5백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5535-6487/053)522-6487


##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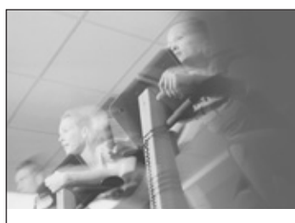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 O링 테스트 맹신은 금물



어떤 분이 오링테스트로 체질을 쉽게 감별할 수 있다고 해 한동안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또 어떤 분은 오링테스트로 기(氣)를 측정한다고도 한다. 오링테스트로 건강을 판정하는 모임이 전국에 퍼져 있기도 하다. 오링테스트는 자신의 몸은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원리에서 출발한다.

오링테스트는 '오무라테스트'라고도 한다. 일본의 의사 오무라 요시아키(大村惠昭)에 의해 창안된 방법이기 때문이다. 오무라씨는 이 테스트가 70년대 뉴욕의 의과대학에서 인체의 운동에 대해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운동기능학의 연구를 하던 중 발견된 방법이라고 했다.

**이롭고 해로운 것 미리 아는 원리**
**일본인 오무라 요시아키가 창안**
**O링 테스트 결과 바뀔 수 있어**

환자의 병의 상태, 약물의 유효성 무효성 독성여부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해 본 결과 임상적으로 상당한 유의성을 얻게 돼 광범위하게 쓰이게 된 방법이다.

기본적인 방법은 환자의 한쪽 손 제1지에 다른 손가락을 붙여서 둥글게 고리(O링)모양을 만들고, 검사자는 이 고리를 손가락으로 벌리려고 하고 피검사자는 반대로 벌려지지 않도록 저항하게 하여 유지하려고 애쓰는 피검자의 손가락의 힘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오링을 유지하는 힘의 강도가 높을수록 정상이고 낮을수록 비정상이다. 편의상 +4에서 -4까지의 8단계로 측정한다. 검사를 하기 전에 피검자의 자세를 가능한한 편안하게 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들을 멀리해야 한다. 각종 전자파를 유발하는 전자용품과 금속 등을 멀리하고, 몸에 부착된 반지 금속으로 된 시계 안경 등을 떼어내야 한다. 머리를 기울이지 않고 두 발은 약간 벌리고 손가락은 가급적 동그랗게 해야 한다.

장기의 상태를 측정하려면 장기의 대표점에 기계적 전기적 자극을 가하여 측정하고, 약물의 적응여부를 측정하려면 한 손에 약물을 쥐고 다른 손의 O링의 힘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만일 어떤 약물이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거나, 어떤 장기가 약하다면, 다른 손가락의 O링의 힘은 현저히 떨어져 쉽게 벌려진다. 이상은 전신적인 측정방법이다.

전문적으로는 어떤 약물이 어떤 장기에 미치는 정도를 측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면, 한 손 위에 검사물질을 올려놓고 위장의 대표점인 혈자리를 자극하며 O링의 강도를 측정해 볼 수도 있다. 같은 물질이라도 장기에 따라 나타나는 오링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질병과 치료에도 O링은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다.

O링테스트를 정확하게 하려면 많은 수련과 해당장기에 대한 반응점인 경혈에 대한 지식이 뒷받침돼야 한다. O링은 동서의학의 접합으로서 새로운 진단법의 발견이라는 의의를 갖고 있다. 간단한 테스트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검사법을 대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O링테스트에 대한 신경학적 연구나 장기의 대표 반응점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성과도 있다.

전문적인 진단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O링테스트를 생활에 응용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녹즙이 전신적으로 현재 내 몸에 맞는 것인지를 검사해 보자. 먼저 그 녹즙을 만드는 야채의 껍질을 잘 벗겨낸다. 껍질에 묻은 농약이나 여러 화학성분이 O링테스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껍질을 벗긴 야채를 한손에 들고 다른 손가락으로 O링을 만들고, 다른 사람이 그 O링을 잡아당겨 벌어지는 힘의 강약을 측정해 보면 된다. 잘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게 해롭지 않은 것으로 판정할 수 있고, 힘이 더 강해졌다면 이로운 것으로 보면 된다. 약해졌다면 물론 해로운 것이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인삼이 내게 맞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자. 그 의미는 지금 상태에서 인삼이 내게 부적합한 것이지 (요즈음 O링으로 체질을 판정한다는 곳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인삼이 맞지 않는 체질이라는 말은 아니다. 같은 사람이 1년 뒤 다른 체질로 판정받는 어이없는 일이 O링테스트를 빙자한 집단들에서 나오고 있다. 체질판정과 O링테스트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 잇몸질환 예방은 스케일링부터



정미화 원장의 건강한 구강 관리법

잇몸질환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치과진료가 스케일링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케일링을 받으면서도 정작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스케일링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잇몸질환 예방이다.

기본적인 스케일링 진료에 관해서 일반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첫 번째 오해는 "스케일링을 받은 후 치아가 깎이고 시린 느낌"이다. 그러나 스케일링은 치아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는다. 치아를 깎는 것이 아니라 잇몸과 치아뿌리 쪽에 단단히 붙은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치석이 제거 되면서 치아의 뿌리가 노출되기 때문에 치아가 깎여 보이고, 시린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런 시린 느낌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없어진다.

두 번째는 "스케일링을 받은 후 치아사이가 벌어졌다"이다. 붙어있던 치석이 제거되면서 치석이 있던 자리에 공간이 생기게 된다. 또한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상대적으로 치아뿌리가 전보다 더 드러나 보일 수 있다. 이런 증상은 치아와 잇몸이 정상적인 상태가 된다는 증거이다. 이가 시리거나 치아사이가 벌어져 보인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일시적 이가 시리는 현상은 치석 많았다는 증거**

세 번째는 "스케일링을 받은 후 치석이 더 잘 쌓인다"이다. 즉, 스케일링을 한번만 하면 치석이 더 잘 끼기 때문에 아예 스케일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근거가 전혀 없는 말이다. 스케일링을 해서 치석이 깨끗이 제거되고 나면, 후에 치석이 조금만 생겨도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치석이 더 생기는 것처럼 보인다.

네 번째는 "스케일링은 너무 아프다"이다. 평생에 한 두번 스케일링을 하는 사람은 아플 수 있다. 치아에 붙은 치석을 모두 떼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사람은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으며, 아프지도 않고, 스케일링 한 후에 시린 느낌도 적다.

마지막으로 "스케일링은 치아를 하얗게 만든다"이다. 스케일링을 한다고 해서 치아미백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치석과 니코틴이나 외인성 색소를 같이 제거함으로써 약간의 미백효과는 있다.

올바른 칫솔질을 하면 프라그는 어느 정도 제거된다. 그러나 치아 사이나, 앞니 안쪽, 어금니 뒤쪽 등은 구강의 해부학 · 형태학적 구조로 인해 잘 닦이지 않는 부위들이 있다. 이곳에 치석이 생기면 냄새가 심해지거나, 잇몸이 붓고, 시리며, 아픈 증상이 생긴다.

치태와 치석은 치아를 불결하게 하는 것은 물론, 잇몸질환을 부르는 원인이 된다. 잇몸이 건강해야 치아가 건강하다. 치아를 오래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고 구강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우치과 (02)733-1030

# 바른 체형, 취업에도 도움 돼



Dr. 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아나운서, 모델, 스튜어디스, 연예인에서 보험 영업사원 등 우리 주변에는 대중 앞에서 일하는 직업들이 많다. 그 중에서 스튜어디스는 아름다운 외모와 신체적 체형의 균형미를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꼽힌다.

얼굴이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란 여성분들 중에는 스튜어디스를 꿈꾸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스튜어디스를 선망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단순히 상대적으로 우수한 외모를 통해 스튜어디스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미모뿐 아니라 아름다운 체형까지 전체적인 미를 갖춰야 지원자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때문에 구부정한 자세나 휘어진 휜다리, 오다리, 처진 엉덩이 등 불균형한 체형을 가진 사람들을 바르고 균형된 체형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수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면서 해외여행객들이 급증했다. 자연히 많은 고객들은 여행시 스튜어디스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게 됐다. 따라서 최고의 서비스와 고객만족을 제공해야 하는 스튜어디스의 모습이 구부정한 거북목 자세와 벌어지고, 휘어진 다리, 휘어진 척추를 갖고 있다면, 채용해야 할 회사의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하는 점을 고려해 우수한 외모와 함께 균형된 체형을 채용 시 필수 조건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의 체형교정센터에는 위와 같은 스튜어디스 지망생이 상당히 많다.

특정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을 위해 체형교정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체적 균형은 중요하다.

바른 자세와 반듯한 척추, 예쁜 다리가 건강의 척도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다. 항상 바른 자세의 모습과 환한 인상, 외모 그리고 반듯한 체형은 학업으로 비틀어지는 척추측만증의 청소년들, 출산 후 골반의 비틀림과 벌어짐으로 고민하는 여성,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들까지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갖춰야 할 부분이다.

예전에는 건강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뚜렷이 구분됐다면, 현재는 체형의 아름다움이 '건강함'으로 상징된다.

필자의 체형교정센터에는 스튜어디스를 지망하는 20대 여성이 있다. 이 고객은 무용과 전공자로 우수한 외모와 신체적 균형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휘어져 보이는 O자로 휜 다리(좌), 교정후의 다리(우)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 방문했다.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 없어 보이는 체형미인 이었지만, 본인의 다리교정에 대한 열정과 의지는 상당했다. 이 여성의 벌어지고 휘어진 다리모양을 유발시키는 골반의 틀어짐에 맞는 운동처방과 휜다리교정을 통해 현재는 본인이 입사를 꿈꾸던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근무하게 됐다.

항상 바르고 균형 된 체형은 현대인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필수조건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을 매일같이 방문하는 젊은 고객들을 볼 때 마다 느끼게 된다. 항상 바른 자세 생활을 기억하고 유의해야 곧은 체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1544-9697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분거리 국도 옆)

■ 면 적 : 사찰 전시관 2층(신축) 240평 외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중공양실, 기념품판매장 총 2,200평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 좌불(목불), 국내최대 관음목불입상, 50여점 크리스탈 개금불, 천여점 희귀불상 전시(국내최대전시장), 외관벽 일체 크리스탈 장실 만다라 액자로 장식

■ 연간 5만명 참배, 천도재 월 10건이상

■ 전시관에 전시중인 크리스탈 개금불은 주지스님이 10여년간에 걸쳐 조성한 창작개금불로서 일본으로부터 불교예술의 새 역사를 연 작품으로 호평 받고 있으며, 절대 모방이 불가능한 불상이며 참배하시는분께도 황홀함이 빠져드는 작품으로서 TV방송 등 총 18회 방영된 바 있습니다.

■ 양도가 : 35억 가능

■ 사찰내역은 인터넷상에 포항 성취관을 입력하십시오.

■ 연락처 : 054)249-1023 휴. 010-4504-0174

■ 자금력 있으신 대덕스님께서 운영하면 대 성공을 확신합니다.

사찰대출안내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0년 전통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사찰 전문 은행이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전국의 많은 사찰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사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 할 수 있으며 도와드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대출이자는 1억원 대출시 월62만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
2. 대출상환은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개인명의 뿐아니라 단체명의 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상무 이강욱

☎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2011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3기 수강생 모집안내문

스님!!!

사주명리학을 배우십시오.

명리학은 점술류가 아니며 학문입니다. 사찰을 운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께만 무료로 6개월간에 특별한 비법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주명리학을 완전히 터득하실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제1기 수강생은 전국에서 100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기 수강생은 전국에서 160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장소 : 제1장소 : 성지관음회 법당(매주 화요일 오후1시~5시까지)
제2장소 : 부산강의실(경상도 지역 스님들을 위한 교육장소)
(매주 토요일 오후1시~5시까지)
◎일시 및 기간 : 2011년 3월초 부터 6개월간
◎수 강 료 : 6개월간 무료
◎신 청 : 전화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읽어 보시고,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신 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3리 704-1 성지빌딩
전화:031)768-8414~6 팩스768-8413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⑲ 고구려의 불상

# 16.2㎝에 담긴 고구려의 비밀



경남 의령에서 발견된 연가7연명 금동불입상. 현존하는 우리나라 불상 중 가장 오래 된 불상으로 고구려 안원왕(539년) 때 만들어졌다.

고구려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한 국가로 주목된다. 광개토대왕을 시작으로 장수왕(413~491) 때부터 양원왕(545~558)에 이르는 시기까지 고구려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요하(遼河) 동쪽으로부터 만주 전역에 이르는 그들의 북방 영토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고구려는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규모와 광범위한 문화적 발전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발전 시기에 나타난 불상이 연가(延嘉)7연명금동불입상이다.

##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최고 불상 〈最古〉
## 광배 뒷면에 독자 연호 새겨 있어

높이가 16.2㎝ 밖에 되지 않는 이 자그마한 불상은 경상남도 의령에서 발견됐다.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불상 중 가장 오래된 불상이다. 광배(光背) 뒷면에는 47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연가(延嘉) 연간의 7째 해인 기미(己未)년에 고구려 수도 평양에 있던 동사(東寺)라는 절에서 만들어 유포한 천불(千佛) 중 29째 부처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배 뒷면에는 "연가7년인 기미년(539) 고려국(高麗國: 고구려)의 수도 낙양(樂良: 평양)에 있던 동사(東寺)의 주지스님 경(敬)과 그 제자 승연(僧演)을 비롯한 사도 40인이 함께 현겁천불(賢劫千佛)을 조성해 유포하기로 했는데 제29불인 인현의불(因現義佛)로 비구 법영(法穎)이 공양합니다"라고 쓰여 있다.

천불을 조성하는 신앙은 동아시아에 불교가 수용된 초기부터 시작 됐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현의불(因現義佛)' 은 〈현겁경(賢劫經)〉에 등장하는 명호이다. 〈현겁경〉은 3세기 말 축법호(竺法護)가 번역한 경전이다. 돈황보살, 월지보살로 불리는 축법호는 구마라집 이전에 중국에서 가장 활발한 경전 번역을 이끈 인물이었다.

동아시아는 인도나 서역 국가들과는 달리 대승불교 사상을 초기부터 깊이 받아들였다. 대승불교 사상중 하나가 무수한 부처가 등장하는 다불(多佛)신앙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 무수한 부처들이 등장하는 이러한 사상은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약속이다. 〈현겁경〉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신앙이 고구려에서 다시금 펼쳐지게 된 것이다.

사실 이 불상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연가(延嘉)의 연호는 중국 연호가 아닌 고구려의 연호다. 연호를 따로 사용한다는 것은 당시 동아시아적 질서에서 독립된 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고구려 연호에 대한 기록이 거의 소실된 탓에 이 연호의 정확한 연대는 추정만 할 뿐이다. 6세기의 기미년이 539년이나 599년 인데 우리는 당대의 중국불상과의 양식적 비교를 통해 539년이 아닐까 추정할 뿐이다. 539년 이라면 고구려의 안원왕(安原王: 531~544) 때에 해당된다.

연가7연명 금동불입상은 갸름한 얼굴에 강인함과 온화함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나발의 형태로 나타나 있으며, 육계도 인상적이다. 왼손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을 구부리고 있는 모습은 삼국시대 불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이다.

옷자락은 당시 신이라는 장식끈을 갖고 있던 중국 북위의 불상들의 특징에 비해 표현하지 않는 면을 보이고 있는데 고구려 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볼 수 있다.

연가7연명 금동불입상은 불교가 수용됐던 초기 불교가 어떻게 이 땅에 퍼져 나갔는지를 말하고 있다. 무수한 불상을 조성하고 절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유포하고자 한다는 표현에서 보이듯 그 역동적인 불교가 이 땅에 불교를 오롯이 전할 수 있게 했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64



# 부처님처럼 걷고 싶어라

어느 날, 홀로 알게 된 세상이 길을 걷게 하고, 고독한 시간을 견디며 끊어낸 생각들은 아득한 시간을 건너온다. 그의 이름은 잊히지 않았고, 그 날 새벽하늘에 빛나던 별빛은 오늘도 빛나고 있다.

작년 12월 16일. 새벽별이 진 지리산 자락에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들이 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이 홀로 알게 된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길 위에 세웠을까. 길 위에 방부를 들인 납자들의 화두는 '이뭣고' 도 '뜰앞에 잣나무' 도 아니었다. 그들의 화두는 '위기의 사바' 였다. 고독한 시간이 길 위에서 그들을 기리고, 그들이 끊어낼 생각들이 아득한 시간을 시작하고 있었다.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아득한 시절, 홀로 알게 된 세상 때문에 고독해야했던 그를 떠올리며 새벽길을 걷고 싶다.

사진부 차장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 제26도 용선도(龍船圖)

고판화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아미타경은 덕주사본(강원도 유형문화재 153호)과 용천사본(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154호)이며 지금까지 소개됐던 도상들은 덕주사본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소개한 도상들을 간추려 보면 제1도에서 제25도까지의 도상들은 제1 · 2도는 석가여래가 기수급고독원에서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설법하는 장면이며, 제3도부터 10도까지는 극락의 장엄함을 묘사하고 있으며, 제11~13도는 아미타불에 대한 설명이고, 제14~19도는 다른 부처님이 증명해 아미타불의 믿음을 권하는 내용이다. 제20도는 칭명염불을 권하고, 제21도는 정토왕생의 이익을 설명하고 있다. 제24도는 석가와 시방제불이 서로 찬탄하고 믿음을 권하는 내용을 도해한 것이며, 제25도는 설법을 맺는 장면으로 구성돼있는데 이 구성들은 덕주사본과 용천사본이 비슷한 도상을 유지하고 있다. 제26장에서 소개하고자하는 도상인 용선도는 용천사 판본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도상으로 목판 2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설아미타경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삽화 중 하나로 아미타부처님이 죽음에 이른 중생들이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면 반야용선을 보내 중생들을 극락으로 왕생시키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염불수행자들이 반야용선에 타고 있으며, 아미타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극락으로 염불수행자들을 태운 반야용선을 래영(來迎)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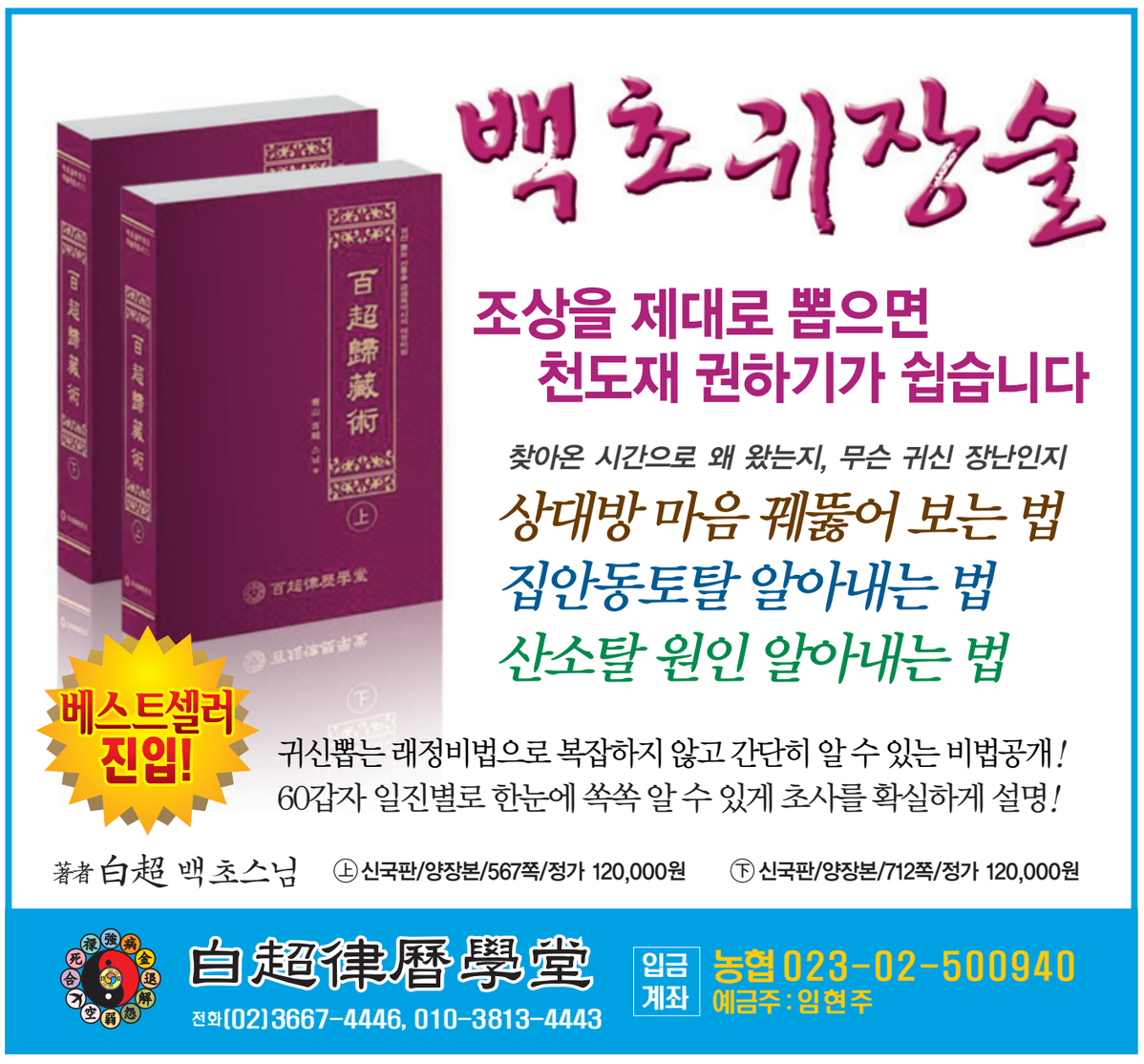
다른 아미타경의 판본에는 보이지 않는 용천사 판본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도상이다. 고판화박물관에서는 노인 판화학교 수강생들과 함께 극락으로 인도하는 반야용선을 목판으로 직접 만드는 체험을 통해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교육을 실천해 보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 우리 불자들도 이 용선도를 활용해 우리가 극락으로 타고가야 할 반야용선을 직접 그려보거나 목판화를 제작한다면 교육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소장 〈불설아미타경〉 제26도 용천사판, 1572년간행, 반곽(半郭) 26.5×18.7㎝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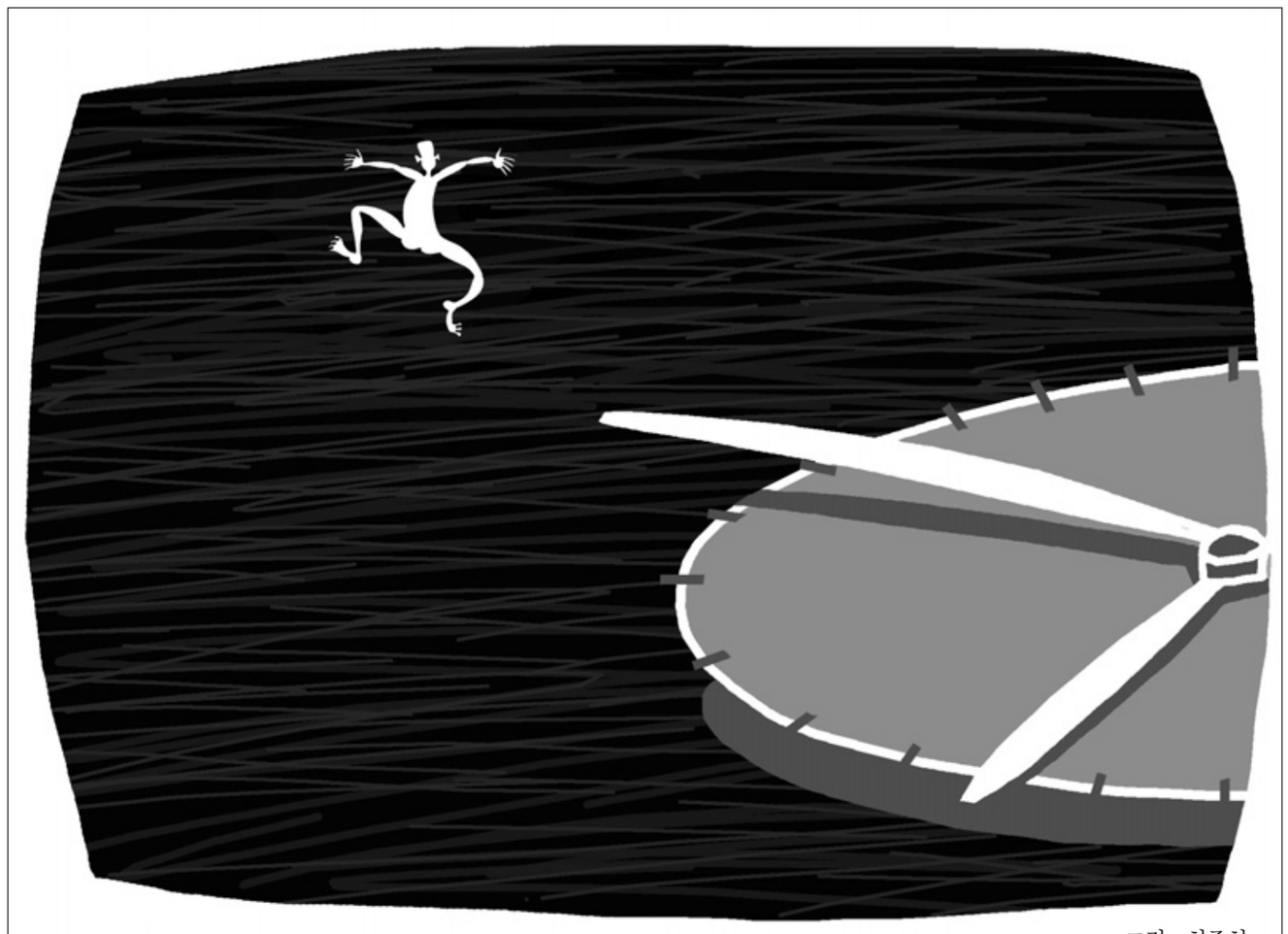
# 길을 묻는 이에게

# 올해는 마음가짐 하나하나를 인의롭고 자비하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불제자로서, 아니 불제자라고 하기 이전에 인간이기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으니 알로 낳는 거나 태로 낳는 하(下)의 동물이나 또는 질척한 데서 낳는 거 화해서 낳는 거, 이러한 사생들의 그 모든 살림살이가 우리네 살림살이와 같다는 그 점을 우리는 상세히 알아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 마음가짐 하나하나를 더욱더 인의롭고 자비하게 가진다면, 전부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 버리는 마음, 일체 방생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모두가 나한테 해(害)가 되어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방생이라는 것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방생을 하려고 억지로 놀부처럼 잡아다가 넣는 게 방생이 아니라 남이 괴로워할 때 스스로 마음을 내어 한마디 해 줘서 마음의 안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방생입니다. 또 물질적으로 없어서 애들 등록금을 못 낸다거나 이럴 때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걷어서 학비를 내게 해 주면 그것도 방생입니다. 고기가 물 바깥에 나와서 펄펄 뛸 때에 물에 넣어 주는 것이 방생입니다. 마음 하나하나 내 주는 것도 전부 방생입니다. 방생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생을 따로 할 양으로 놀부처럼 잡아다가 넣어 준다면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듯이 평화롭게 사는데 붙잡아다가, 일제 시대 때 탄광으로 보내고 이러듯이 붙잡아다가 그렇게 한다면 붙잡는 데 죽고, 또 담아 가지고 가는 데 죽고, 갖다 넣는 데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갖다 넣는 데까지도 좋아요. 갖다 넣으면 고기도 저 놀던 데로, 저희 집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십 리가 되든 오백 리가 되든 상관없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찾아가느라고 가다가 허기가 져서 죽기도 하고 또 그 물에 적응을 못하고 병이 들어서 죽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이름을 쓰고 온통 야단을 해서 거북이도 넣고 그러지마는, 내가 볼 때는 자기를 자기가 죽이는 일이에요. 달리 살생이 아니라 그게 살생이라고요! 엉뚱나가게 이런 말은 왜 하게 됐는지 모릅니다마는 말이에요.


그림 · 최주현

그리고 옛날에도 이런 예가 있었죠. 자식들이 부모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위하는 게 위하는 건지…. 옛날에 저도 산골 같은 데를 이 집 저 집 다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처음에는 사실 참 역겨울 때가 많았어요. 문 바깥에다가 질동이 삐뚜러진 거 하나 놓고 거기다 오줌을 누니까 냄새는 지독하지, 또 방에는 지직을 깔았지요. 그런데 그 지직도 그냥 쪼각쪼각 모은 거 갖다 깔고 이불은 새카맣고 큰 거 하나 깔고 발들만 전부 넣고선 자는 거예요. 또 비가 부슬부슬 오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진눈깨비가 올 때면 그냥 애들이 마당에다 누어 놓은 똥이 흐치흐치 해져 가지고요, 발 디뎌 놓을 데가 없어요. 산골에 가 보면 그런 촌이 있어요.

그래서 새새 딛고 들어가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배 속에도 지금 똥이 잔뜩 들어 있고, 갖은 각색으로 생김 생김을 가지고서 지금 모두 똥벌레처럼 그냥 헤매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똥벌레라면 저 똥에 들어가서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역겨운 것이 싹 가시더군요. 그래서 그 집에 무난히 들어갔죠. 그런데 그게 참 이상해요. 왜 굳이 거기 들어가서 자고 싶으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자자고 그러니까 그냥 그 집에서는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누추해도 괜찮겠느냐고 그래서 '나도 거지인걸, 뭐.' 속으로 그러면서 옆에서라도 끼어서 앉았다가 가겠노라고 그랬죠. 그래 앉았으면서 죄 똥그랗게 발을 넣고 자는 거 보니까…, 하여튼 밤새도록 잠이 안 오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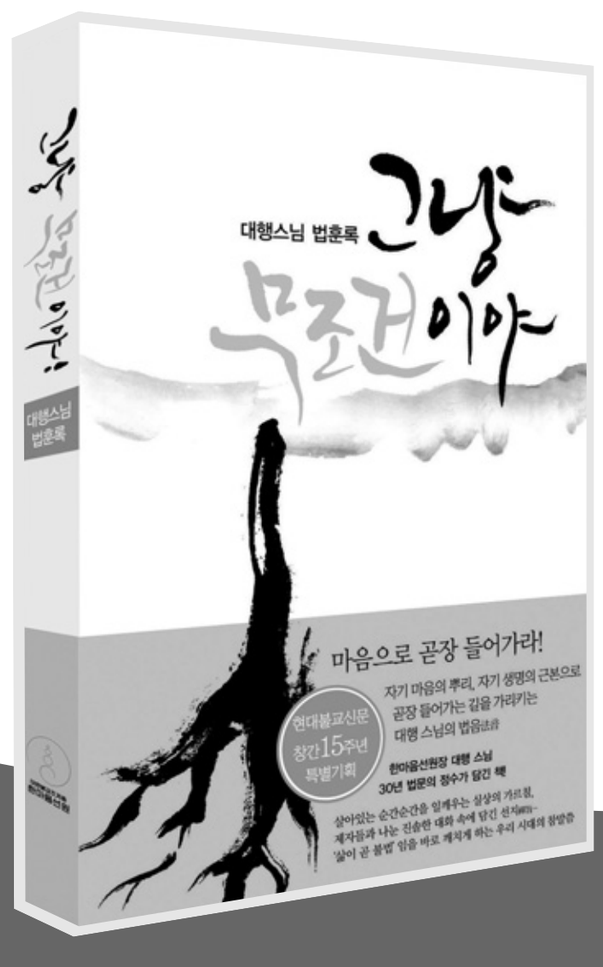
왜냐하면 사는 게 모두가,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듯 '어쩌면 부모 자식 형제가 모두, 네가 더 잘났느니 내가 더 잘났느니, 네가 더 잘사느니 내가 더 잘사느니, 오지 마라 가지 마라 하고 야단들을 하고 사는 이 이치가 얼마나 복잡했던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밤을 새우고선 나오는데, 묵은 거를 채 썰어서 간장물에다 이렇게 해서 양념도 없이 그냥 먹더군요. 그래 나도 그거 한 그릇 얻어먹고는 고마워서 내려오면서 '아이고 참, 애들도 쌀 구경 하나 못하고 참 안됐구나! 누구네 부잣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라도 좀 돌봐 주고, 저 집에 쌀 좀 주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 모든 게 마음에 달렸어요. 이 도리를 꼭 배우셔야 돼요. 안 배우면 안 돼요. 배워서 되는 일은 아니지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는데 어느 집을 보게 됐어요. 아주 큰 문이에요. 아주 솟을대문집이고 부잣집인가 봐요. 보기에도 집이 크니까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죠. 뭐, 모자도 그냥 다 떨어진 거 하나 쓰고 옷도 그냥 찢어진 걸 쭝쭝이어서 입고, 그때만 하더라도 옷이 그렇게 든든칠 못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룻밤 들렀다 가겠다고 그러니까 어느 부인이 나오더니 "아이고, 지금 우환이…, 아침에 별안간에 우리 마님이 쓰러져 가지고는 지금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냥 갈까요?"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우리 영감마님한테 여쭈어서 좀 쉬었다 가세요." 그러더군요. 그렇게 착한 집들도 있어요. 그 집 마님이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 언제 병이 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별안간 그냥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 묵 먹은 집, 그 집 생각이 나더란 얘기예요. '응, 그 집을 내가 도와줬으면 했더니 미리 와서 다 이렇게 울타리를 쳐 놨구나.' 참 그게 얼마나 묘한 일인지 모두 모르실 겁니다. 이게 다 비밀이에요. 허허, 내가 그런 줄 알면 나한테 몰매 들어오게요? 허허허…. 그래 인제 싱긋이 웃고선 그 뭐, 뭘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다 인제 낮이 되니까 밥을 들여왔어요. 그래도 밥을 좀 주더군요.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나이가 연소하시지마는 그래도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 마음 하나하나 내 주는 것도 모두 방생이에요

☞ 25면에서 계속

직감이라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 마님이 왜 그렇게 쓰러졌는지 아십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왜 쓰러졌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가 "하여튼 뭔 약이 조금 있는데 그걸 잡숴 보시면 어떨는지 모르겠다." 그래 놓고는, 그 어떡합니까. 누가 준 미숫가루를 물에다 개 가지고는 그걸 이만하게 환을 지었죠. 그 미숫가루도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환을 한 댓 개 지어 가지고선 "이거 아침에 하나 먹고 점심에 하나 먹고…." 하하하, 그랬지 어떡합니까? 모르는 사람 앞에는 나도 모르는 거고, 어쩝니까?

그래 그렇게 하고서는 기다리고 있었지요. 기다린 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나을 때를 기다려야 어떻게 그 집을 좀 도와주고 가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 그 약을 먹고 얼마 안 있더니만 아주 생생하게 살아난 거예요. 생생하게 살아나니까 그 집에서 그냥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아유,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러기에 "주시려면 뭘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달라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쌀 한 섬만 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쌀 한 섬을 어떻게 갖고 가시려고 하느냐 그래요. 난 가지고 갈 게 없노라고, 저기 아무 데로 가다가 보면 아무개네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제가 빚을 졌는데 한 섬을 졌노라고, 그러니 갖다가 갚아 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래 또 나는 휘적휘적 간 거죠.

그 집에 쌀을 갖다 주면서 어저께 묵 얻어먹고 간 사람이 빚을 갚느라고 가져왔다고 그래 달라고 그랬거든요. 가서 그러니까 아이고, 빚은 무슨 빚이냐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러면서 그분 어디 갔느냐고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나중에, 몇 년 만에 찾아와서 만나도 봤습니다. 그럭하고 간 예도 있습니다. 그런 예가 더러더러 그때는 참 많았다고 보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남에게 무엇이든 준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 줄 아세요? 나에게 해(害)가 돌아오더라도 남에게 준다는 거, 마음 하나를 내 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에서 뜯어서 가난한 집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좀 여유 있는 집에서 여유가 없는 집을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방생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고요. 그저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할 양으로 '내가 장하게 그렇게 한다.' 이런 생각도 없이요. 찰나에 그 생각이 있고 찰나에 그런 일이 있고 그랬을 때에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다 되게끔 돼 있는 것은, 내 몸 안에 들어 있는 생명들이 전부 털구멍을 통해서 내가 한생각 내면 그냥 가서 미리미리 다 일들을 하거든요. 신장도 될 수 있고 호법신도 될 수 있고, 화신도 될 수 있고 법신도 될 수 있고 모두 될 수 있는 겁니다. 미리미리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건 찰나의 살림살이지 어떤 한계가 있는 살림살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모든 걸 주인공에 맡기고 살아라. 맡겨 놔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실감이 날 거 같아서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한군데다 맡겨라. 한군데다 믿고 맡겨라.' 믿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맡겨라' 이렇게 했죠. 무조건 그렇게 맡기게 되면 어디로 통과가 되느냐 하면 벌써 시각부터 통과가 되고 청각이나 촉각이나 후각이 발로가 돼요. 그래 감각이 아주 영리하게 되는데, 이 안의 심안부터 밝아져요. 그런데 심안이 밝아졌다고 해서 도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자꾸 밝아지고 뜻이, 자기가 생각하는 뜻이 쪼끔쪼끔 자꾸자꾸 이끌려 가는 거기에 의해서 다섯 가지가 자꾸 발로가 됨으로써 그때는 지견으로 들어가고 지각으로 들어가요. 그럼으로써 오신통을,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를 같이 쥐고 그대로 조금조금이라도 체험을 하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자기를 자기가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발견해서 자꾸자꾸 체험을 하고 가는데, 발견을 해서 되는 것만이 '이것이 내 공부다, 잘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안되는 거 되는 거를 다 놓지 않고 이걸 모르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누구를 구하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줄 모른다면 어떻게 현실에서 구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되는 것도 되는 것도 양면을 다 놔야만 합니다. 안되는 거는 과거의 업으로 인해서 안되는 거고 되는 것도 선업으로 인해서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선업과 악업이 다 한데 합쳐져서 녹아 들어가서 자기가 그것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지혜와 심안이 밝아져야 하고 오신통이 다 밝아져서 그 오신통마저도 이름조차도 없이 자유자재권을 가져야만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때까지는 자기가 체험을 하면서 자꾸 놔야 돼요. 놔라 하는 게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마는 다 자기 주인공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감사하게 놔야죠. 거기에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해야지 딴 데다가 해선 안 되죠. 그게 자기 나기 이전 조상이니까요. 자기 아비니까요. 자기가 현재에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들이라면 그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체가 없고 능력만 있기 때문에 가만히 움쭉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꿰어 가지고 굴리는 능력만 있어요. 그래서 심력이라고 해도 돼요. 원심력이라고 해도 되고 에너지라고 해도 되죠. 그런데 마음내는 거는 자꾸 그게 역할을 하도록 굴려서 쓰는 거거든요. 그것을 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몸을 움죽거리고 이러는 것도 활용이고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공전하면서 돌아가면서 체험하면서 놓는다, 감사하게 놓는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바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둘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까 물었지마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둘이 아님을 아느냐? 당신은 지금 사는 요 50%의 물질세계만 보니까 그게 나오지를 않아요. 50%를 마저 알아야 죽어 가고 살아나오고 하는 연결된 이 자체를, 유의 세계 무의 세계가 연결된 이 자체를 다 통틀어 봐야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둘이 아닌가 알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집에서든 한 가정으로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한 식구라고 사는데요, 언제 적에 한 식구로 살았습니까? 그게 영원합니까? 한 철 사는 겁니다, 한 철. 우리 스님네들이 한 철 나가서 살고 한 철 또 들어오고 이러는 거와 마찬가집니다. 이게 한 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철 집에 모여서 살다가 또 헤어졌다가 다른 데 가서 또 한 철 삽니다. 그러니 네 부모 내 부모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통틀어 본다면 네 부모 내 부모, 내 자식 네 자식이 따로 없어요. 또 그거보다 더 크게 본다면 사생이 따로 없단 얘기예요. 너무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돼서 화해서 자꾸자꾸 돌아가니까요. 그러니 '내가 위대하고 잘나고 아, 참 조건 좋고, 이렇게 사니까 이만하면 만족해.' 이러지마는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것도 한 철이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한 철이다. 인생은 나그네의 길인데 이것을 한 철이라고 보죠. 그러니 한 철이라고 하는 데서 볼 때는 여러분이 전부 나그네의 길이에요. 내 남편 내 자식에게도 착 두지 마세요. 착을 두면요, 외려 더 걸려서 되는 일이 없어요. 법망에 걸리고 레이다망에 걸리면 가지 못하죠? 그렇듯이 유의 세계 무의 세계를 넘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옴치고 뛰지도 못해서 자꾸 걸려 가지고 되는 노릇이 없거든요. 그러니 모든 자손들과 남편과 아내, 형제와 모든 것은, 어떠한 일이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인공밖에는 해결 못한다. 주인공 운전수가 다 끌고 다니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맘대로 하랴.' 하고 믿으면서 딱 놔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발이 묶이지 않는 겁니다. 이 마음 자체가 체가 없으니까 발이 묶이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 그 마음으로다가 육신을 잘 끌고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잘못되는 것도 마음으로 지어서 잘못되거든요. 내가 꼭 저게 하고 싶어 가지고는 돈을 왕창, 돈 쪼끔쪼끔 탄 거 전부 들여 가지곤 홀딱 집어먹고선 죽겠네 살겠네 하거든요. 그것도 자기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너그럽게 볼 수 없는 그런 눈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만 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심안을 통해서 봤더라면 그것이 그렇지 않을 건데, 그게 그렇게…. 나는 어떤 때는 그래요. 아니, 가난한 것도 그렇고 전부 보면 모두가 자기 탓이에요. 그것도 억지로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내 마음에 놓는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다섯 가지가 계발이 돼서 오신통을 그대로 여여하게 할 수 있는 자유권을 얻게 되고 그때 다시 체험을 하면서 또 보임을 합니다.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주 법계를 다 통할 수 있어요. 우주 법계에도 다, 우리네 몸뚱이에 법망이 있고 법계가 있고 그렇듯이 그냥 전부 통해요. 즉 말하자면 그 통신망을 넘나든다는 얘기죠. 천체에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통신이 잘되니까 심안으로도 밝게 볼 수 있고 또 모습 없는 모습들이 천이, 신족, 타심, 숙명 이런 것이 다 발로가 돼서 동시에 용도대로 한생각이 나면 그냥 그 즉시 행합니다. 그래서 찰나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도리를 모르고 그냥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도리를 모르면, 살아서 열반을 못하면 죽어서도 열반이 아니에요. 몸뚱이가 없어지고 있어지고 이러는 것이 살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이 도리를 모르면 그냥 영원히, 십억 년이 돼도 벗어나지 못해요.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인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나중에 더 미해지고, 더하면 짐승의 몸을, 탈을 쓰고 나오게 되고 이러니까 그것은 완전무결한 뭐가 못되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윤회에 끄달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자유권을 가졌다는 거죠. 사람이 되려면 사람이 되고, 천상 인간이 되려면 천상 인간이 되고, 부처님 자리에 같이 하려면 하고, 맘대로 하는데 중생들을 돌봐 주기 위해서 때로는 나올 수도 있고, 어디고 나오고 들어감도 없이 나고 들거든요. 천상에도 내가 있고 인간에도 내가 있고, 벌레를 건지려면 벌레 속에도 들어가야 하고 어느 거 하나 아니 되는 게 없이 될 줄 알아야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천백억화신으로서 나툼이 있는 거고요. 나투는 것과 나투기 이전을 알아야 육십이견에 속하고 팔십종호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사람이 남에게 무엇이든 준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 줄 아세요?**

※위 법문은 1989년 1월 8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누워하는 참선 + 와선체조

와臥禪선

중단전챠크라(명치,화병,상기병)단전
시원하게~ 뚫어 줌

호흡초월, 몸뚱아리 초월, 공(空)삼매 즉석 체험
머리에서 잡생각 망상이 개미떼 벌떼처럼 빠져나감
엄청난 오로라 전신에 꽉 찬 황홀경 누구나 체험
진짜 달콤한 감로침! 행복감 체험

피로회복 · 면역력증대 체험 100%
발 무릎 꼬리뼈에서 냉기, 병기, 나쁜 기운 빠져나감
스트레스해소 · 우울 · 불안 · 고민해소체험 100%

▸대상 : 누구나, 스님, 선생님, 교수님, 연구직, 예술가 템플스테이 운영자, 출가예정자, 참선, 위빠사나 고시생, 수험생, 유능한CEO, 사회지도자

아나빠나사띠 수행이 잘 안 되시는 분
심장박동, 생각, 마음 보기 뚜렷한 체험이 없는 분
참선, 염불, 절, 명상수행의 진전이 없으신 분
목, 뒷골, 어깨, 명치, 단전이 저절로 풀리고, 뚫림 체험
꿈 많고, 자다깨다 반복 잠에서 빨리 깨어나지 못하는 분
스트레스지수 면역력 콜레스테롤 엔돌핀, 토파민, 세로토닌 검사해 보시면 100% 놀라운 확신

♣ 청견스님 직접 교육 수행지도 ♣
☎ 02)456-0035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법당)
www.법왕정사.kr (와선특강)
▶매주 화요일·절교육, 2011년 1월부터 수행템플스테이 운영



권 선 문

삼보에 귀의하옵고
대한불교 고승연합회 복지지원단에서 부처님과 불자를 위해 한 생을 바치신 노스님 들의 귀의처가 될 복지원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전국 사 · 암에서 버려지는 불필요한 폐초 및 불기 자재 수거와 후원금을 받습니다.
부디 고승복지원이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위에 여러 불자님께 많은 홍보를 부탁 드립니다.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수거품목 : 폐초, 파불, 촛대, 향로, 제기, 불화, 공양미 등
[후원금 예금주] 대한불교 고승연합회 (농협) 1124-01-138620

● 수거품이 있으실 때 연락 주시면 택배업체를 보내드립니다. (택배비는 복지지원단에서 지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십시오.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삼리 227번지
전화 : ☎ 031)764-3511, 070-4246-3511 / 팩스 031)764-4711
● 복지지원단에서는 스님들이 수행하시는데 불편한 각종 애로사항을 최선을 다해 해결하여 드립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연락 주시면 성심을 다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大韓佛敎高僧聯合會 복지지원단
총무원장 대종사 광명 합장

후원단체 : 대한불교신인종, 국제불교조계종, 불교무술사회교육원, 해동불교금강조계종, 대한민국무술연합, 자비실천운동본부, 용화불교교단, 천토불국사, 백제무예연구원, 불자가수회, 호국연예인예술단, 사천왕경호대, 서울불교방송, 한·중 불교문화원

불자 세상보기

# 아이들 건강도 우리의 책무



이강렬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서울시와 의회와의 예산 건으로 촉발된 무상급식 논쟁은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다분히 정략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번 사태는 지난 서울시의 정책에서 보듯 화려한 치장에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진작 아이들 밥한 끼 먹여주는 데는 인색한, 빈곤한 사고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작금 이 문제는 찬반이 뚜렷하게 갈라지는 정책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은 교육 재정을 잠식해 교육여건의 악화를 가져오기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국고급식은 뒤로 미루고 저소득층, 결식아동에 대한 식사 제공과 낙후 시설 개선 등에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나름 이유 있는 설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자 아이들에게 점심을 주는 것이 마치 큰 국가적 재앙이 발생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결코 균형감 있는 시각이 아니다. 부잣집 아이나 가난한집 아이 모두 사회가 책임져야할 소중한 미래의 희망이며 자산이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눈치 보면서 밥 먹게 해서야 될 말인가. 밥 한 끼 정도야 차별 없이 먹여줄 수 있는 것도 우리 사회의 덕목이다.

서울시 1년 예산이 대략 20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올해만 해도 한강운하사업으로 766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고, 해외 마케팅에도 154억 원이나 쓸 계획이다.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이 조 단위쯤 된다면 이해가 지만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예산은 7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서울시 전체 예산의 0.3% 수준인데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충분히 대화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을까.

서울시가 민선4기 빚을 내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4조 원 가량의 채무가 증가했다고 한다. 1조 원의 1년 이자비용을 3%로만 봐도 매년 이자만 1200억 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된다. 이에 대한 반성과 설명도 없으면서 내년 무상급식을 위해 700억 원이 증가되면 마치 큰일이 날 것처럼 난리다. 반포인공분수 설치나 서해뱃길사업 등 불요불급한 전시성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을까. 사실 이러한 사업들이 진정으로 서민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이다.

무상급식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면 지금 초·중학교에 실시하고 있는 의무교육도 폐지돼야 한다. 시장의 '3무(無)학교' 사업도 포퓰리즘적 공약이라고 해야 맞다. 물론 내면에 깔린 정치적 이해득실을 간과해서가 아니다. 무상급식을 인정하면 오세훈표 사업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시장은 4년간 특화된 프로그램 없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평가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도 서울시민이 위임한 행정권이지만 서울시의회도 시민이 투표로 선출한 견제기관이다. 서울시 교육감도 시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리다. 이를 망각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솔직히 지난 선거 때 서울시민이 지금의 구조로 선택했을 때는 정책에서는 비판적이지만 그래도 인물로서는 한 번쯤 더 기회를 줘보는 것이 좋겠다는 민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던가. 무상급식 논란이 불거진 이후 시장은 아직도 시의회와의 시정협의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무상급식을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대화도 타협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자신이 공약했던 준비물 없는 학교는 되고, 무상급식은 왜 안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변 참모들의 정무적 판단도 문제이다. 세간의 흐름과 방향을 제시해 주고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어야 하는데도 오로지 한 사람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적하고 싶다. 시장 역시 세련된 정치적 판단이 매우 미숙해 보인다. 대화로 문제를 풀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대화와 타협의 묘책을 찾길 기대해 본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수의 시민들은 분명히 표로 말했다. 아이들의 건강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차별 없이 좋은 음식을 먹이고, 질 높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시민의 의무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시민의 요구를 부정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사부대중 칼럼

# 엄동에 필요한 활발발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세상 사람들은 고즈넉한 산사를 그리지만, 실제로 주지 스님 이하 사찰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르다. 많은 신자 혹은 사람들이 절에 오는 것을 원한다. 밖에서 펼쳐지는 야단법석이든 실내에서 개최되는 법회든 기꺼이 준비한다.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무차대회 단어가 등장한다. 막힘없다는 무차(無遮)는 '열린' 법회를 말한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법회에 참석해 큰 스님의 법문과 함께 한바탕 어우러지는 행사를 실감했을 것이다. 오늘날 고찰에 남아 있는 당간지주들은 거대한 괘불을 걸며 펼쳐졌던 그 옛날 법석의 역동성을 남기고 있다.

누구나 세속과 격리된 산중에 선찰이 있어야 한다지만, 포교사들은 불교의 역동성을 위해 도심 법당 불사를 외친다. 가부좌를 한 수행자가 고요하게 응시하지만, 내적 사유는 오히려 맑고 환한 상태에서 중생구제를 위한 원력을 준비한다. 선자들은 불일보조 선사의 말씀을 따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힘찬 전진을 의미하는 성성(惺惺)을 말한다. 좌선은 고요한 가운데 힘찬 모습으로 다가와야 한다. 선정의 선(禪)은 활발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대상과 사물들을 관조한다. 정(定)은 자신을 고요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선정 상태가 이어지면 삼매이며, 삼매는 많은 공덕을 가져온다. 그래서 선을 공덕총림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필자는 한국불자마라톤동호회에서 활동한다. 주로 잠실운동장 대회에서 강변으로, 월드컵 공원에서 한강 줄기를 따라서 뛰곤 한다. 5년 전 입적한 前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께서 휘호를 주셨다. '주선일미(走禪一味)'이다. 스님은 "달리는 역동성과 선의 역동성은 같다며 체육인 포교에 정진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다. 덕분에 우리 동호인들은 유니폼에 주선일미를 새겨 넣고 달린다. 뛰는 발에 맞추어 〈반야심경〉과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을 외우다 보면 어느덧 골인 지점이다. 함께 달리던 '달림이'들이 주선일미의 뜻을 물어온다.

이 때 선의 역동성을 표현하는 활발발지(活潑潑地)가 떠오른다. 임제 스님의 일갈이다. 중국 당나라 때 활동했던 임제 스님의 이 한마디는 많은 선자들이 즐겨 사용한다. 물고기가 펄떡펄떡 물을 차고 뛰어오르는 힘찬 도약을 뜻한다. 어떤 책에는 발(撥)자 혹은 발(潑)이라 하는데, 모두 물고기의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가리킨다. 또 있다. 활구는 선사들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며, 활인검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의 칼이다. 검이라는 글자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힘과 속도를 실감하게 한다. 〈전등록〉에 전하는 1700 활구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활인검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공안 하나 하나가 진취적 사고를 제시하며, 늦추어진 의식을 깨치며, 멈추려는 의지를 채찍질한다.

〈숫타니파타〉에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는 말씀이 있다. 〈반야심경〉에는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라는 말이 있다. 보리살타는 걸림 없고, 두려움이 없으며 어긋남이 없어 힘차게 나아간다는 메시지이다. 아미타불이 48원을 세우고 성불하는 그 불토에 지옥 중생은 물론 아귀와 축생이 없도록 제도한다는 원력을 나타낸다. 지장보살의 지옥 비우기 서원도 역동이다. 관세음보살이 고난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행도 다를 수 없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아미타불과 지장보살의 서원에 대입시킨다면 힘차게 나아가는 신행자 아니겠는가.

그러나 힘찬 정진 앞에 조건이 붙는다. 불타의 가르침을 정녕 알고 있는가, 알려고 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선정을 이해하고 경험해 보았는가를 묻는다. 선정은 무념무상의 아무 생각 없다거나 단순히 정신을 집중 한다는 것이 아니다. 공(空)을 비었다고 하거나, 무(無)를 없다거나 아니라는 부정의 뜻이 아니다. 공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충전이며, 계기를 만들며, 발상의 전환이다. 불타의 가르침은 결코 세상을 등지라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을 피하는 염세주의자 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적극 참여하고 알아보고 실천하는 보살의 정신을 가지라는 것이다.

엄동의 추운 겨울이다. 기온이 하강하면 신체가 움츠러들고 마음도 위축되기 마련이다. 세상의 움직임도 내 뜻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 활발발의 선정이 필요하다. 서원이 필요하다. 힘찬 출발은 밝게 비추어 보라는 것이다. 임제 선사가 제자들에게 자신을 확인하라며 회광반조의 할을 크게 외쳤다.

## 사 설

### 정부, 계속 이럴텐가

12월 22일 한국불교총본산 조계사가 늙은 군화발에 짓밟혔다. 라이트코리아, 고엽제전우회 녹색국민연합 등 친정부 관변단체 소속 50~60대 남성 20명이 동지법회가 열리는 조계사에 난입해 신도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탁자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들은 확성기를 들고 조계종과 스님들을 모욕하는 발언까지 쏟아냈다. 백주대낮 서울 시내에서, 그것도 한국불교총본산에서 벌어진 일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부산에서는 범어사 화재 발생 후 1주일이 지나도록 CCTV에 찍힌 인물을 찾을 수 없자, 경찰이 사건을 '내부소행'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속초에서 입적한 스님은 범어사 재적 승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의선상에 올라 수사 대상이 됐다. 속초·금정경찰서는 공조수사까지 펼쳤으나 결국 스님의 혐의를 찾지 못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경찰은 고인이 된 스님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불교계는 "경찰이 정부로부터 내부소행으로 몰아 사건을 축소하라는 지시를 받았거나 과잉충성을 위해 스스로 벌인 일"이라며 정부·여당에 이어 경찰까지 성토하고 나섰다.

정부는 불교계가 무엇을 어찌 했길래 이리 하는가. 불교계는 정부를 상대로 그 어떤 물리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 오직 참회 정진만 해 왔다.

정부는 더 이상 불교계를 자극하지 말라. 권력은 유한해도 국민은 무한하다. 고작 2년 뒤 후회할 일을 더 이상 만들지 말라.

### 선사, 신학자 만남에 거는 기대 크다

불교-기독교간 평화의 대회가 12월 31일~신년 1월 5일 대구 동화사 등지에서 열린다.

행사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의 한 분인 진제 스님(대구 동화사 조실)과 미국 뉴욕 유니언 신학교 폴 니터 교수의 법문과 특강, 대담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폴 니터 교수는 실제적인 종교간 대화에도 깊이 참여해 온 종교대화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달라이 라마 등과 평화평의회국제위원회 이사로 활동해 온 니터 교수는 오랫동안 명상수행을 해 온 친불교 성향의 신학자이다. 달라이 라마는 그런 그에게 '연꽃치유자(Lotus Healer)'라는 법명을 내리기도 했다.

폴 니터 교수의 활동과 업적 외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의 결혼생활이다. 신학자 폴 니터 교수의 아내 캐서린 코넬 여사는 불자이다. 코넬 여사는 세계적인 평화운동가로 불교명상 수행을 사회운동과 치유활동에 접목해 실천해 왔다. 세계 지식인과 종교인들은 폴 니터 교수 부부의 삶에 주목해 왔다. 한 울타리 안에서 불교-개신교가 공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이번 행사를 종교를 초월해 사회통합과 평화를 이뤄내자는 간절한 사회 통합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가 유일신 교리에 앞뒤 꽉 막혀 분란을 일으켜 온 개신교인에게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의 도리를 깨쳐줄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5-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도우미]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안타는 제품입니다.

옻가네 절대 옻이 타지 않는 옻의 원조 농업법인 (주)옻가네

# 헐은 위, 지친 간

## 혈액순환 장애는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



대한민국신지식인대상
산림청 신지식인에 선정된 옻안타는 참옻 국내 최초개발자 池 龍 禹

# 토종참옻으로 다스린다!!

## 절대! 옻이 타지않는 (오르지 않는) 토종참옻으로 건강을 지키자!

'흰쌀밥에 쇠고깃국'을 최고의 밥상으로 생각했던 보릿고개 시절, 그때는 지금처럼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병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운동부족, 공해 등으로 혈액순환의 장애를 가져와 여러가지 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혈액은 우리 몸을 꾸준히 순환하며 몸에 필요한 물질을 전달하고 불필요한 물질을 몸밖으로 배출하는 대사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혈액이 나빠지면 대사기능이 떨어져 세포조직에 영양공급이 잘 안되고, 몸안에 나쁜 독성물질이 쌓여 모든 병의 원인이 됩니다.

### 혈액순환장애의 원인

혈액순환장애의 원인은 매우 많다. 대표적으로 1) 과잉 영양섭취로 혈액내에 지방과 탄수화물의 과다로 인해 혈액이 탁해진 상태 2) 혈관이 나빠져 막혀있거나 좁아진 상태 3) 몸이 허약해 심장기능이 떨어져 심장박동이 약한 상태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혈액순환장애가 일어난다. 혈액순환의 원활하게 잘 되면 우리 몸은 암이나, 병균이 몸안에 들어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모든 병은 우리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찾아오는 것이다. 모든 질병은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옻닭" 무더위로 지친 여름이면 즐겨 찾는 우리들의 전통보양식품

옻닭요리는 우리의 전통요리로서 중년이상이 즐겨 애용하는 식품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옻요리가 몸에 좋은 것은 알고 있으나 옻 오름 현상을 두려워하여 기피하고 있습니다. 옻가네 **참옻진액**은 국내 연구진이 3년동안 연구개발하여 식약청에서 안정성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증명되었고, FDA(미국)에서도 안전성을 인정 받은 제품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옻이 타지 않는 옻닭요리**입니다.






▲방송협찬중인 옻가네참옻제품

## 소비자들이 옻가네 참옻제품을 신뢰하는 이유

특허청 2단발효특허 제 10-0484853 호 옻안타는 참옻제조방법 10-2008-0040013 참옻을 이용한 숙취해소음료 10-2008-0040014 무독화 옻나무 추출발효물 10-2009-0133912
KFDA 식품의약품 안전청
FDA 미국식품의약청 FCE/SID 제조업체 등록, 공정과정 등록
대한기능식품학회
산림청신지식인 선정
대한민국신지식인 대상수상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출품작

#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




### 폐경 10년만에 생리가 다시 시작 박순자 1949년 1월생 61세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살고있는 61세 여성 입니다. 2010년 5월 지인으로부터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참옻진액 파워치 60봉을 구입하여 복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소화기능이 약해서 잘 체하고 고기나 일가루 음식과 찬음식도 잘먹지 못하고 손.발과 아랫배도 차거워 변비가 심했고 신경이 예민해서 깊은잠을 이루지 못하여 신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 10년동안 약을먹고 잠을 잤은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3일정도 복용 했을때 아랫배가 빵빵해 지더니 그이튿날 아침에 속변이 엄청나게 많은양이 나오더니 속이 후련한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되고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일주일정도 복용하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체했던 증상이 내려가고 아프던 허리가 좋아지고 20일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일동안 정상화게 되었습니다.
60봉을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먹던 수면제도 먹지않고 잠을잘자 있고 이제는 고기나 일가루 음식을 아무데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얼굴도 확 폴려서 몸이 아주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여우콩은제품은 안나가터어 모든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 만성피로 십이지장궤양

자영업을 하는 53세 남성입니다.
장사가 안되는 날은 술과 담배를 자주 하다보니 몸도 망가지고 그로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소화도 안되고 피로하였습니다.
가슴이 꽉막힌듯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위염 및 십이지궤양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병원에 1년간 다니면서 약을 복용하였지만 잘 낫지않아 스트레스만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는사람으로부터 참옻이 좋다는 말에 옻가네 참옻을 구입하여 1달정도 복용하게 되었으며 서서히 소화도 잘되고 속도 편안하여 아픈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약을 먹지 않고서 참옻을 몇개월 복용하니 이제는 예전처럼 술도 가끔 마실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위장약을 장복하면 남성의 정력이 약하게 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위장약을 완전히 끊게 되어 다행입니다. 참옻을 만드신 옻가네에 감사드립니다.

### 간경화 (경기도 분당 60대 / 전직 아나운서)

간경화 수치 1280으로 서울대병원에서 1개월을 치료하니 간수치가 900으로 떨어졌다 더 이상은 진정이 없어 퇴원 후 2주마다 통원치료를 했지만 간수치 700인 상태에서 더 이상은 진정이 없었습니다. 8월경 TV 방송을 보고 제수씨가 선물을 하였지만 항상소자 실희하지 않았지만 선물해 준 분의 성의로 복용하기 시작했지 10일정도 지나면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3개월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간수치가 120으로 떨어졌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담당의사도 차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2주마다 가던 병원을 3개월에 1번오라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혈색이 간수치는 85/22로 돌아왔으며 황달도 4에서 3.5로 수치됨. 다음에나 심기환 것은 10년동안 지료 복가능 했던 바톰우종이 왕치 되었으며 명치통이 약한정계로 감염되었던 대상포진 흔적 사라졌다.

## 언론보도자료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1)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2006. 6. 19
2) "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 4. 20
KBS 싱싱 일요일 – "계절의 보석" 2006. 8. 20
KBS 무한지대 큐 –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 10. 31
KBS 환경 스페셜 – "약이 되는 독" 2006. 11. 22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 8. 6
한국경제 –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동아일보 –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 10. 27

###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 利小腸(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을 고침.

**어혈제거, 혈액순환**
- 除風(제풍) : 중풍을 다스림.
- 消瘀血痺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어혈을 풀어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 削年深堅結之積滯(삭년심견결재적체) : 몸안에 오래묵은 병덩어리를 없애줌.
- 破日久凝結之瘀血(파일구응결지어혈) : 오래묵은 어혈, 응혈을 파하여 피를 맑게 함.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 九服經身耐老(구복경신내노) :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리속골을 채워줌, 골다골증, 골연화 예방치료.

**피부 질환, 아토피**
- 療咳樹(료해수) : 가래, 기침병.
-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가 저리고 쑤시는데 쓰임.

### 동의보감(허준)

옻은 성질이 따뜻하고 어혈(瘀血)을 없애며 여인의 생리불순. 생리통과 산가(疝痂)를 낫게하고,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회충을 죽이고, 몸속의 오래 묵은 병 덩어리(적)을 없애고 여성의 하혈을 그치게 하고 , 삼충을 없애고, 폐결핵을 치료한다. 옻은 살로 가는 것이 아니고 뼈로 간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골수를 채워 줄 수 있는 명약으로 뼛속, 머리 골을 채워 주며 골다공증, 골연화, 예방치료와 골수염, 관절염에 좋고, 심장병, 결핵, 신경통, 간경화, 늑막염, 담낭, 신장, 허리통증과 중풍, 방광결석을 치료하고, 남성의 정력을 보하는데 좋아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는다.

**부인병, 자궁근종, 생리통**
- 女子疝瘕(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증상

① 손, 발이 차고 저리며, 쥐가 잘나고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
② 옆구리, 등, 허리에 담이 잘 걸린다.
③ 피로감이 심하고 눈이 충혈된다.
④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다.
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흥분을 잘 하고 초조감을 느낀다.

**농업법인 (주)옻가네**

는 산업자원부 지정 전통의약산업센터 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정회원, 한방클러스터 회원업체, 농협과 제약회사에서 '옻 안타는 옻, 옻잔액기술'을 이용한 옻원액을 공급하여 간편한 포장의 참옻잔액을 제조합니다. 믿음이 있는 기업, 믿음을 주는 기업, 옻가네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구세심방, 항약집성방, 방약합편등 전통의약서적에서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에 비견된다는 토종참옻을 누구나 안전하게 염려없이 드시고, 진가는 예전 옻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비교 할수 없는 옻가네 참옻제품
**불만족시 100% 환불보장제 실시**

옻은 독성이 약성이므로 독성을 제거하면 약성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옻의 독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성은 제거하면서 약성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옻가네 참옻제품은 독성을 제거되면서도 약성은 그대로 보존됨이 입증된 국내 유일한 제품입니다.

### 무색소, 무방부제, 무과당, 100%국내산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3~4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패드병 = 1.5L)
6병 93,000원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x 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x 60포)
2개월분 260,000원
사은품 토종참옻환 300명 한정

옻닭 제천약초특구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38-25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